신 문

신문 중평 '유서 대필'시비 보도

최근 노태우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며 분신·사망한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 대필여부에 대한 전민련과 검찰의 공방을 보도하는 신문들의 태도는 대부분 검찰 주장쪽에 편향돼 있어 독자들의 객관적인 상황인식과 판단을 흐리게 한 것으로 지적됐다. 신문비평모임은 지난 18일 검찰이 이 문제를 부각시킨 이래 계속되고 있는 전민련과 검찰 사이의 공방과 이에 대한 신문들의 보도·논평들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신문들이 공정·중립적인 자세를 지키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 이유는 보도의 구체적인 내용도 문제려니와 우선 신문들이 제목달기와 편집 등에서 일방적으로 '포장'을 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검찰에 유리하고 전민련에 불리한 인식을 심어주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부분의 신문들은 크게 엇갈리고 있는 전민련과 검찰의 주장 가운데 검찰쪽 주장을 자세하고 크게 보도한 반면 전민련의 설명과 주장은 축소보도했다. 이는 대부분의 신문들이 검찰쪽 주장을 연일 사회면 머리기사 등으로 게재한 반면 전민련쪽 주장은 사회면의 2~3단 정도로 처리해온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제목달기에 있어서도 첫 보도한 지난 18일자 〈국민일보〉가 사회면에 '분신 김기설씨 유서 필적 다르다'는 단정적인 제목을 '검찰확인'이라는 토를 달아 뽑아단 이래 △〈경향신문〉이 19일자에 '분신 김기설씨 유서 89년 필적과 다르다' △〈서울신문〉이 21일자에 '전민련간부 6명 오늘중 구속, 서울지검 유서대필·자살방조 등 혐의' △〈조선일보〉가 22일자에 '김씨 수첩 일부내용 빠져 검찰 유서대필 혐의 필적감정 의뢰' △〈중앙일보〉가 22일자에 '검찰 강씨가 유서작성 단정, 분신 교사·방조 여부 집중수사' △〈한국일보〉가 23일자에 '검찰 강씨, 홍양수첩도 조작' △〈세계일보〉가 26일자에 '전민련 계출수첩 김기설씨 것 아니다, 검찰 필압에 차이…급조한 가짜 단정'이라는 등 단정적인 제목으로 처리했다.

신문들은 동일 기사 속에 일부 또는 별도의 2~3단 기사로 전민련쪽 주장과 반론을 게재하긴 했으나 검찰의 주장을 실은 기사의 제목은 극적으로 독자들에게 다가서는 것들이어서 검찰쪽에 지나친 무게를 실어주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특히 〈중앙일보〉가 김기설씨의 분신 직전 행적을 추적한 22일자 5면의 해설기사와 24일 사회면 두번째 기사는 인터뷰 등 취재내용의 부실함도 문제였지만 '분신계획 밝히며 김씨 울어' 등 제목뽑기에서 단순한 편향을 넘어 어떤 의도적 선정성마저 느끼게 했다.

신문들이 평소에 입바르게 내세우는 '객관중립주의'가 수사 초기부터 양쪽 주장이 팽팽한 사안에 대해 지켜지지 못한 데 대해, 신문비평모임 참석자들은 편집·취재기자와 편집간부 등 언론인들의 사회의식상의 수구적 편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신문들은 공방 초기 단계에서부터 검찰의 수사권 남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고유임무를 방기하고 검찰에 앞서 추동하거나 뒤에서 따라다녔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검찰과 전민련쪽 주장을 동일한 크기와 비중의 제목으로 뽑는 등 중립적인 편집을 하려는 노력을 보이면서 사설감정기관에 독자적인 필적감정의뢰, 김기설씨 수첩을 검찰에 제출할 때 동행한 이석태 변호사의 시론(24일자)·취재기자의 해설(25일자) 등을 통한 검찰수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필적감정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제기 등을 해왔다.

검찰에 의해 김기설씨 유서대필 혐의자로 지목받고 있는 강기훈(왼쪽끝)씨가 지난 21일 오전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필적 자료를 제시하며 검찰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곽윤섭 기자〉

'91. 5. 22. 한겨레

또 〈동아일보〉도 21일자 사회면 머리기사에서 '확증있다-필적공방-날조모략'이라는 주제목 아래 검찰과 전민련 양쪽 주장을 같은 크기로 나란히 부제목으로 뽑고 23일에는 '받아쓰기'가 아닌 취재기자의 심층 쟁점분석 해설기사를 싣는 등 중립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보여오다, 25일자에서는 1면 두번째 기사로 '김기설씨 유서 자필 확실'이라는 제목 아래 "김씨 수첩이 조작됐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김씨의 유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다른 대부분의 신문들과 다른 입장을 취해 관심을 끌었다.

쟁점사안별 보도태도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신문 등에서 중립적인 자세를 지키지 못한 사례들을 여럿 발견할 수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김기설씨의 필적 가운데 유서와 업무일지는 동일필적, 조카생일 기념책자와 85년 정세연구 필표지 및 89년 주민등록분실신고서도 동일필적이나 앞의 두가지와 뒤의 세가지는 '이동(異同)여부 논단 삼가'라고 판정한 결과를 검찰이 "이는 곧 다르다는 의미"라고 해석·발표한 내용에 대한 보도가 그 단적인 예다. 이에 대해 〈한겨레신문〉 〈동아일보〉 등은 사실 그대로 보도했으나 〈서울신문〉 〈세계일보〉 등은 검찰 해석대로 '논단불가는 곧 다른 것을 의미'한다는 전제 아래 보도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가 '같다' '다르다' '이동성 확인불가' '유사필체' 등 네가지로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신문간 보도내용 차이는 검찰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증노력 여부에 관련된 것으로 지적됐다.

결국 이러한 검증노력의 부재속에 신문들은 검찰이 불러일으킨 유서대필시비를 보도하면서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휘말렸거나 나아가 이를 뛰어넘는 과잉보도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신문들은 이번에 형사범죄 사건 보도의 측면에서도 유죄판결 전 무죄추정의 원칙도 지키지 못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검찰은 강씨 타살 사건 이후 분신배후 수사발표, 시위현장에 뿌려진 이른바 '과학용공' 유인물 수사 발표 등으로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희석시키려 해왔다는 것이 일반적 지적이다.

신문비평모임 참석자들은 이번 유서대필 논란에 대한 신문들의 보도태도가 시국의 본질이 무엇인지, 나무와 숲을 구분하지 못한 전형적 사례였다고 입을 모았다.

〈신문비평모임, "정리 = 이세용,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교육국장〉

검찰 주장 사실인듯 크게 다뤄

전민련 반박 소홀히 취급…말뿐인 '중립'

독자 정확한 상황판단 해친 책임 못면해

검찰 「姜씨身柄확보」 다각검토

"全民聯 관련자 행적수사도 계속"

'91. 5. 22. 한겨레

"金씨수첩 확실"

全民聯, 姜씨버렸다면 찢긴부분 설명안돼"

姜씨 「유서」 옮겨써 公開

◇金종철씨의 유서(왼)와 姜종훈씨가 써보인 필적.

국 민 일보 1991년5월28일(음력 四月十五日 戊午) 火요일

누구말이 맞나 국민은 답답하다

끝없는 소모攻防 遺書 필적 金양 死因 이제는 결판내자

노태우 정권

공폐화에 명의 '유서' 필적

노태우 정권

공폐화에가 쓴 '유서' 필적

姜씨영장 곧 公開집행

代筆은 在野탄압 음모

검 발

공정 민주적 方法으로 是非 가려라

"姜씨, 「金기설」명의 활동가능성"

검찰 가명사용수사 객관적 필체제시땐 감정 용의

"金씨 분신전 延大서 목격 정보 행적 추적

姜씨가 공개한 필적 수사자료 가치 없어

검찰서 밝혀

京 鄕 新 聞 1991年5月29日(水曜日)

「유서代筆」수사 長期化될듯

姜씨 자진출두설득 실패 상당기간 攻防예상

印在槿씨 행적등도 수사

致死정국 호도 비난

金民聯

姜씨 신병확보-金양 부검 "허탕"

時局위말려 공권력 失踪

영장집행 실패 설득 계속

사망 4일째 死因 공방만

종시 연행

송영 부검

검찰, 姜基勳씨 連行 실패

수사관 明洞성당에-全民聯서 인도 거부

신 문 (5판) 1991년 5월 29일(수요일) [15]

강씨 구속영장 불응

"공개장소면 조사 받겠다"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 분신자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는 28일 김찬이 유서대필자로 지목해 자살방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를 연행하기 위해 수사관들을 명동성당으로 보냈으나 강씨의 거부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김찬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서울지검 강력부 수사사무관 한무용씨 등 수사관 6명을 강씨가 있는 명동성당으로 보내 서준식 전민련 인권위원장 등 전민련 간계자 3명에게 영장을 제시했으나 이들이 강씨의 뜻이라며 집행을 거부해 되돌아갔다.

강씨는 이날 시 위원장 등을 통해 "김기설씨의 분신자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없이 무고한 사람을 구속하려는 검찰의 기도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이어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공개되고 안정된 장소에서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에는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찬은 강씨 연행에 실패하자 "다시 수사관을 보내는 방법은 더이상 시도하지 않겠다"면서 "구체적인 영장집행 방법에 대해서는 이러저러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찬은 이와 함께 강씨의 집에서 압수한 화학공식이 적힌 공책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수첩 및 유서 등과 동일 필적인지 감정을 의뢰했다.

'91. 5. 29. 3면

검찰, 姜씨 연행 실패

어제 수사관 明洞성당에…全民聯, 인도거부

서울지검 강력부는 28일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 분신자살 사건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는 28일 김찬이 유서대필자로 지목해 자살방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를 연행하기 위해 수사관들을 명동성당으로 보냈으나 강씨의 거부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김찬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서울지검 강력부 수사사무관 한무용씨 등 수사관 6명을 강씨가 있는 명동성당으로 보내 서준식 전민련 인권위원장 등 전민련 간계자 3명에게 영장을 제시했으나 이들이 강씨의 뜻이라며 집행을 거부해 되돌아갔다.

강씨는 이날 시 위원장 등을 통해 "김기설씨의 분신자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없이 무고한 사람을 구속하려는 검찰의 기도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이어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공개되고 안정된 장소에서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에는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찬은 강씨 연행에 실패하자 "다시 수사관을 보내는 방법은 더이상 시도하지 않겠다"면서 "구체적인 영장집행 방법에 대해서는 이러저러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찬은 이와 함께 강씨의 집에서 압수한 화학공식이 적힌 공책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수첩 및 유서 등과 동일 필적인지 감정을 의뢰했다.

검찰 明洞성당에 수사관

'91. 5. 29. 2면

姜씨연행은 못해

全民聯 제지로

서울지검강력부는 28일 김찬이 유서대필자로 지목한 강기훈씨의 자살방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를 연행하기 위해 수사관들을 명동성당으로 보냈으나 강씨의 거부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김찬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서울지검 강력부 수사사무관 한무용씨 등 수사관 6명을 강씨가 있는 명동성당으로 보내 서준식 전민련 인권위원장 등 전민련 간계자 3명에게 영장을 제시했으나 이들이 강씨의 뜻이라며 집행을 거부해 되돌아갔다.

강씨는 이날 시 위원장 등을 통해 "김기설씨의 분신자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없이 무고한 사람을 구속하려는 검찰의 기도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이어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공개되고 안정된 장소에서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에는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찬은 강씨 연행에 실패하자 "다시 수사관을 보내는 방법은 더이상 시도하지 않겠다"면서 "구체적인 영장집행 방법에 대해서는 이러저러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찬은 이와 함께 강씨의 집에서 압수한 화학공식이 적힌 공책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수첩 및 유서 등과 동일 필적인지 감정을 의뢰했다.

'91. 5. 29. 3면

성당에 出頭중재 요청

검찰 어제 姜씨 영장집행 거부당해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 분신자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는 28일 김찬이 유서대필자로 지목해 자살방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를 연행하기 위해 수사관들을 명동성당으로 보내 강씨의 거부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김찬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서울지검 강력부 수사사무관 한무용씨 등 수사관 6명을 강씨가 있는 명동성당으로 보내 서준식 전민련 인권위원장 등 전민련 간계자 3명에게 영장을 제시했으나 이들이 강씨의 뜻이라며 집행을 거부해 되돌아갔다.

강씨는 이날 시 위원장 등을 통해 "김기설씨의 분신자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없이 무고한 사람을 구속하려는 검찰의 기도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이어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공개되고 안정된 장소에서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에는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찬은 강씨 연행에 실패하자 "다시 수사관을 보내는 방법은 더이상 시도하지 않겠다"면서 "구체적인 영장집행 방법에 대해서는 이러저러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찬은 이와 함께 강씨의 집에서 압수한 화학공식이 적힌 공책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수첩 및 유서 등과 동일 필적인지 감정을 의뢰했다.

불발로 끝난 「公權力집행」

「故 송광영씨의 의문을 속 속을 풀고 · 해야 하겠는 결정적 관계자의 속앞을 얻었습니다」

28일오후 서울지검이 송민 광종부장 윤광웅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이 온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 명동성당주변은 벌써 한공기 나돌았다.

오후3시쯤 영장집행 수사관들이 명동성당을 향해 출발했다는 소식에 대책회의 관계자들은 불을 켜 채 자기이에도 자중이 · 감돌았다.

오후3시15분쯤 승용차 두대가 성당옆으로 올라오면서 『왔다왔다』 소란이 벌어졌다. 『왔다왔다』 이때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때의 수사관들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흑두한 학생들은 구호를 외치며 이들을 막았고 강한 몸싸움과 함께 승강이가 벌어졌다.

수사관들이 성모병원 후 여아가까스로 대책회의속 관계자들과 자리를 잡아갈 수 있었다.

『영장을 집행하고 싶어고는 다음 문제니 일단 돌아가 해달라』

『보아야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법적인 조치를 개인이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만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결국 대책회의속 한 관계자가 『공정하고 양심한 장소에서 이부어진 책임공수 있는 수사라면 언제라도 응하겠다』는 뜻의 입장을 권한는 것이로 오후7시 영장집행 시도는 불발로 끝났다.

명동성당에 온 검찰은 다음 기회를 기다리겠다는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관련 『법관이 · 대책회의속과 성당이 · 명동성당에 온 수사관들 · 은 장소에서 전민련 · 총장협인공 · 위원장을 3명과 만나 영장 집행의 사를 전달했지만 거절당했다』

대책회의는 『객관적인 증거없이 무고한 사람을 구속하려는 검찰의 기도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명동성당에 온 수사관들은 대책회의속과 성당이 · 명동성당에 온 성모동 · 성모병원 · 성모수녀원 · 보라매 · 보라매 · 보라매

'91. 5. 30. 경향

眞實은 하나다

——「유전」·「폭로」 규명 최대하자 않아

社說

법무부장관 송광룡씨는 유서 대필혐의를 밝히고 수사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다. 유서 대필혐의는 사건 전체의 일부일 뿐이다. 유서 대필혐의가 있다고 해서 유족의 주장이 거짓말이 되는 것도 아니다. 유족의 주장은 유서 대필혐의와 무관하게 사실로 인정되어야 한

신 문

"강씨노트·유서 같은필적" 검 찰

"9년전 영문체 대조 기만" 전민련

서울 명동성당 농성 수녀보좌신부는 29일 오후 유서대필 혐의를 받고 있는 정기훈(27)씨가 공개되고 인정된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주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 신부는 이날 전민련 민권위원장 이은직씨와 강씨를 면담하고 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너무 성급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받을 장소를 주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검 강력부 신상규 검사와 남기춘 검사는 이날 밤서 이날 오전 명동성당을 방문해 정 신부에게 "강씨가 명동성당에 숨어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정 신부는 "명동성당은 법률적인 검찰권 행사이므로 강씨를 만나 숨어도록 설득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 신부는 강씨와 이은직씨를 사제관으로 불러 검찰의 뜻을 전달했으나 강씨 등은 검찰이 이번 사건을 아름대로 조작하는 상황에서는 명동성당에 절대 숨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강씨가 86년에 경찰에서 분 자술서와 전민련이 숨긴 김귀의 것이라며 낸 수첩·유서와 강씨 집에서 압수한 화학노트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한 결과, 모두 같은 필적임이 판정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감정결과가 강씨의 유서대필 사실을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보고 더이상의 필적감정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찰은 수첩이 조작됐다는 감정결과가 나온 뒤 자술서와 수첩·화학노트 등에 대한 감정을 추가 의뢰한 바 있다.

전민련은 이에 대해 "필적 공방이 끝났다고 스스로 공언한 검찰이 갑자기 필적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미 공개한 강씨의 육성 진술과 기자들 앞에서 공개시으로 한 필체 등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하면서 한갓 이미 없고 화학공의기호와 별이로 본 9년이나 지난 화학노트를 감정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려는 압력인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金씨유서 姜씨필적

國科搜 검찰,明洞성당에 연행 협조 요청

수첩도 姜씨 것

자술서·유서·대학 노트 4개 필적 동일

姜씨 강제연행 검토

검찰 "정부·성당측 협의중"

1991년5월30일 木曜日(陰 四月十七日 庚子)

金양 강제부검·姜씨 신병확보

公權力투입 "초읽기"

白병원 주변에 戰警 진입

한때 학생과 충돌 20여명 다쳐

明洞성당에 수사관 보내-連行실패

30일 새벽 경찰이 白병원 주변의 바리케이드 철거를 시도하자 출전한 학생들이 쇠파이프·각목등을 들고 격렬히 저항하고 있다. <허문명기자>

姜씨가 유서 代筆

검찰 최종결론

4차대회前 「실력행사」 가능성

金양剖檢·姜씨令狀집행 어떻게 될까

成璋鎭大生 金鎭昇씨(26) 사체부검과 수단봉쇄부서장 鄭鍾植씨(27)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위한 공권력 투입부·시기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경찰은 송양사체 부검과 뺑소니운전자 조○○·박·한성훈씨 보호의 관련 거부속에 진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초부터 두 사건을 법적 차원에서 마무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송양사체부검과 관련해 사건발생 직후부터 송양수사 연장선상 등과 맥을 같이, 「경찰」를 유죄쪽으로 몰아가려 했던 것으로 보고 이번 강수수사 연장선상 치밀한 수사를 시도한다.

검찰은 송양사체 부검과 뺑소니운전자 조○○·박·한성훈씨 보호의 관련 거부속에 진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초부터 두 사건을 법적 차원에서 마무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송양사체부검과 관련해 사건발생 직후부터 송양수사 연장선상 등과 맥을 같이, 「경찰」를 유죄쪽으로 몰아가려 했던 것으로 보고 이번 강수수사 연장선상 치밀한 수사를 시도한다.

검찰은 송양사체 부검과 관련해 사건발생 직후부터 송양수사 연장선상 등과 맥을 같이, 「경찰」를 유죄쪽으로 몰아가려 했던 것으로 보고 이번 강수수사 연장선상 치밀한 수사를 시도한다.

검찰 꾸준한 설득으로 名分축적

在野 6월투쟁 事前견제 의미도

검찰은 3일 연말이 지나면 사건 발생 12개월째 접어들고 명동대회 2년을 목전에 한 상황에서 대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공권력 투입부·시기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경찰은 송양사체 부검과 뺑소니운전자 조○○·박·한성훈씨 보호의 관련 거부속에 진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초부터 두 사건을 법적 차원에서 마무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송양사체부검과 관련해 사건발생 직후부터 송양수사 연장선상 등과 맥을 같이, 「경찰」를 유죄쪽으로 몰아가려 했던 것으로 보고 이번 강수수사 연장선상 치밀한 수사를 시도한다.

검찰은 송양사체 부검과 관련해 사건발생 직후부터 송양수사 연장선상 등과 맥을 같이, 「경찰」를 유죄쪽으로 몰아가려 했던 것으로 보고 이번 강수수사 연장선상 치밀한 수사를 시도한다.

검찰은 송양사체 부검과 관련해 사건발생 직후부터 송양수사 연장선상 등과 맥을 같이, 「경찰」를 유죄쪽으로 몰아가려 했던 것으로 보고 이번 강수수사 연장선상 치밀한 수사를 시도한다.

검찰은 송양사체 부검과 관련해 사건발생 직후부터 송양수사 연장선상 등과 맥을 같이, 「경찰」를 유죄쪽으로 몰아가려 했던 것으로 보고 이번 강수수사 연장선상 치밀한 수사를 시도한다.

검찰은 송양사체 부검과 관련해 사건발생 직후부터 송양수사 연장선상 등과 맥을 같이, 「경찰」를 유죄쪽으로 몰아가려 했던 것으로 보고 이번 강수수사 연장선상 치밀한 수사를 시도한다.

검찰은 송양사체 부검과 관련해 사건발생 직후부터 송양수사 연장선상 등과 맥을 같이, 「경찰」를 유죄쪽으로 몰아가려 했던 것으로 보고 이번 강수수사 연장선상 치밀한 수사를 시도한다.

"부득이한 暴力」없게 說得최선"

명동성당 景甲實 주임신부 일문일답

'91.5.31. 경향

"자유와 민주를 염원하는 이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옳지 않다는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이어서는 정당화될 수 없음니다. 성당에서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난18일 발족 민대책회 등이 폭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책회의측이 자제하고 스스로 단안을 내리도록 기도하고 있다"며 검찰 이 명동성당의 상황을 알고있는 명동성당 원로 법주·임신부(42)는 "대책회의 관계 자들의 농성으로 성당의 정상업무가 마비되고 신자가 불편하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성당이 공권력 투입 등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입장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대책회의는 사태가 악화되면 성당측과 협의하고 찾는 신도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유서공간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도 미안하다"고 말했다.

"정당의 양상대가 거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대책회의는 사태가 악화될 경우 성당측과 협의하고 찾는 신도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유서공간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도 미안하다"고 말했다.

—대책회의와 성당측의 불편한 관계가 노출되면서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성당의 공권력 투입에 대로 경찰이 "제3의 장소"를 수락하는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한다.

또 박씨도 나와의 면담에서 언제가는 자진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서로 양보할수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평시와 시위 방법이다. 87년 6월항쟁이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부득이 검찰이 투입된다면 엄청난 충돌이 빚어질것이며 우리 모두는 치욕적인 역사를갖게된다. 그러나 부득이 검찰이 투입을 통보해오면 성당은 최대한 협조하겠다.

하루속히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기도하겠다."

<사진 永기자>

◇명동성당 景甲實주임신부는 "민주화를 위한 저항자라도 수단과 방법이 폭력적이어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성당內 쇠파이프-화염병 제거 요청할것

공권력 투입반대… 「유서대필」 중재 용의

"민주의 성지」였던 명동성당이 변했다는 일부 여론이 있다고 보지 않는가.

—동성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사제단내부의 반발이 큰것으로 알고있다.

"평신도동성의 사목 위원과 사제단이 이구동성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유서 대필사건」「쇠파이프건」 등에서 어느 일부 검찰 측이 정도 대책회의측의 목적이 달성될때까지 최대한 자제토록 설득하고있다. 그 이후 한발씩 물러서야 한다. 검찰 측도 무조건 대책회의 모두 한발씩 물러서야 한다. 검찰측에서 행사해야 하는것은 아니므로 검찰이 양보가 주장하는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한다.

—송양의 부검을 둘러싼 공방을 어떻게 보는가.

"부검은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므로 양측이 선입한 입장에 이뤄져야한다. 부검을 빌미로 투쟁을 장기화하는것은 부당하며 대책회의의 도덕성에도 큰 흠집이 있을것이다."

—앞서의 「유서 대필사건」에대해서는.

"검찰과 대책회의 모두 한발씩 물러서야 한다. 검찰측에서 행사해야 하는것은 아니므로 검찰이 양보가 주장하는 「제3의 장소」를 수락하는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한다.

또 박씨도 나와의 면담에서 언제가는 자진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서로 양보할수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평시와 시위 방법이다. 87년 6월항쟁이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부득이 검찰이 투입된다면 엄청난 충돌이 빚어질것이며 우리 모두는 치욕적인 역사를갖게된다. 그러나 부득이 검찰이 투입을 통보해오면 성당은 최대한 협조하겠다.

하루속히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기도하겠다."

<사진 永기자>

姜씨·대책회의간부등 지명수배

경찰 전대협·전교조委長포함 20명

사진전단 배포 조속검거 지시

◇韓相烈씨

◇李秀浩씨

◇金鍾勳군

◇宋秉畿씨

위기 해결위해 모든노력 다할것

明洞성당 景甲實수석보좌신부 일문일답

◇景甲實신부. 「위기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모든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金鍾秀 기자】

필적공개조사 장소제공등 용의

성당에 공권력투입 없을것 믿어

「自業自得」

검찰의

姜씨·汎対委등 20명 지명수배

전단배포 사건 관련 자살방조혐의로 사전구속영장 발부

사진전단 배포 조속검거 지시

대책회의 관계자등 20명 지명수배

사회부장 金基萬씨 분신자

1991년(檀紀4324年)5월31일 金요일

「死因」「유서」攻防 언제까지

社說

[illegible]

姜씨·대책회의간부 지명수배

「5·9시위」주도 20명…경찰 전담반 편성

[illegible]

在野간부 20명 경찰 지명수배

치안본부는 31일 범국민대책회의 상임대표 韓相烈씨(41), 본인자술한 金基燁씨 유서대필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全民聯총무부장 姜基勳씨(27)를 비롯해 全民聯·全大協·全靑協간부 등 20명을 지명수배하고 사진수배전단을 일선경찰에 배포, 조속히 검거하라고 지시했다.

수배자 명단은다음과 같다.

▲韓相烈▲李秀浩(42·대책회의 집행위원장)▲李東岭(37·대책회의 대변인)▲李홍분(37·대책회의 정책기획국장)▲尹永重▲玄朱俊(36·全靑協의장직무대리)▲李순형(33·서노협의장직무대리)▲崔종진(41·국민연합사무처장)▲黃仁成(38·全民聯 기획실장)▲金興澤(36·全民聯사무처장대행)▲徐상植(43·全民聯인권위원장)▲姜基勳▲金鍾植(24·全大協의장)▲許동준(23·全大協대변인)▲李敏相(24·全大協부의장)▲宋인배(23·姜基勳총학의장)▲安연민(22·大學총학회장)▲朴봉兌(21·延世大총학생회장)▲裵洪敏(23·西江大총학생회장)▲宋승오(23·全南大총학생회장)

"공권력투입사태없었어야"

明洞성당 景甲實신부 인터뷰

검찰과 대책회의의 중재역할을 하고 있는 景甲實 明洞성당 수석보좌신부.

『유서대필사건의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확증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성급하게 사건수습을 발표만아 오히려 자신들의 행동방식을 합리화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듭니다』

검찰로부터는 「수배자의 비호자」, 불교계인 대책회의측은 「부채는 「검찰 대변인」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明洞성당 景甲實 수석보좌신부(43)는 요즘 중재자의 난처함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

『진상을 하루속히 밝히기 위해서는 어느 일방의 양보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한 景甲實신부는 31일 범국민대책회의 상임대표 韓相烈씨(41)·본인자술한 金基燁씨 유서대필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全民聯총무부장 姜基勳씨(27)를 비롯해 全民聯·全大協·全靑協간부 등 20명을 지명수배하고 사진수배전단을 일선경찰에 배포, 조속히 검거하라고 지시했다.

수배자 명단은다음과 같다.

▲韓相烈▲李秀浩(42·대책회의 집행위원장)▲李東岭(37·대책회의 대변인)▲李홍분(37·대책회의 정책기획국장)▲尹永重▲玄朱俊(36·全靑協의장직무대리)▲李순형(33·서노협의장직무대리)▲崔종진(41·국민연합사무처장)▲黃仁成(38·全民聯 기획실장)▲金興澤(36·全民聯사무처장대행)▲徐상植(43·全民聯인권위원장)▲姜基勳▲金鍾植(24·全大協의장)▲許동준(23·全大協대변인)▲李敏相(24·全大協부의장)▲宋인배(23·姜基勳총학의장)▲安연민(22·大學총학회장)▲朴봉兌(21·延世大총학생회장)▲裵洪敏(23·西江大총학생회장)▲宋승오(23·全南大총학생회장)

景甲實신부는 30일새벽 白

보는 양측의 양보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한 景甲實신부는 31일 범국민대책회의 상임대표 韓相烈씨(41)·본인자술한 金基燁씨 유서대필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全民聯총무부장 姜基勳씨(27)를 비롯해 全民聯·全大協·全靑協간부 등 20명을 지명수배하고 사진수배전단을 일선경찰에 배포, 조속히 검거하라고 지시했다.

수배자 명단은다음과 같다.

▲韓相烈▲李秀浩(42·대책회의 집행위원장)▲李東岭(37·대책회의 대변인)▲李홍분(37·대책회의 정책기획국장)▲尹永重▲玄朱俊(36·全靑協의장직무대리)▲李순형(33·서노협의장직무대리)▲崔종진(41·국민연합사무처장)▲黃仁成(38·全民聯 기획실장)▲金興澤(36·全民聯사무처장대행)▲徐상植(43·全民聯인권위원장)▲姜基勳▲金鍾植(24·全大協의장)▲許동준(23·全大協대변인)▲李敏相(24·全大協부의장)▲宋인배(23·姜基勳총학의장)▲安연민(22·大學총학회장)▲朴봉兌(21·延世大총학생회장)▲裵洪敏(23·西江大총학생회장)▲宋승오(23·全南大총학생회장)

聖堂내 폭력시위도구 빨리 치워야

양측중재 평화적 사태해결에 최선

사이에 충분한 합의만이 루어진다면 「제3의 장소」의 「연」 결화적 해결이 그분의 뜻」이라고 전했다.

景신부는 대책회의측에 대해서도 분명한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성당내에 사진장해도 없이 성당 문화관에서 농성을 계속하는 것은 분명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일이지만 성당측이 막지않았다고해서 문화관을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해지요』

87년 4·13호헌반대때는 동료신부들과 민주화를 외쳐 한때 10여일간 단식농성까지 벌였던 景신부는 『성당을 찾는 신자들이 위험감을 갖지 않도록 쇠파이프등 폭력시위도구만이라도 하루빨리 치워야할 것』이라고 대책회의측에 촉구했다.

『87년 당시에는 景지권자가 호헌조치를 통해 독재를 계속할 의도를 드러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지금은 통치권자가 결과야 어찌됐든간에 공개적으로 민주화를 약속하고 있으니 기다려 주기로 하고 정권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도록 유도해나갈 필요가 있는것 아닙니까』

성당과 대책회의간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 「민주의 성지」 명칭 明洞성당이 변했다는 항간의 여론에 대해 景신부는 『변한 것은 성당이 아니라 시대와 시국방법』이라며 『입으로 자유와 민주를 말하면서도 수단과 방법이 비민주적·독재적이라면 어느 누가 동조할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申成澤기자〉

대 신 문 〔4판〕 1991년 6월 1일(토요일) 【15】

KNCC 김씨 분신 조사나서

WCC에 필적감정 의뢰키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위원장 박형규)는 31일 '김기설씨 분신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곧바로 협조공문을 보내는 한편 1일 서강대 박홍 총장을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김씨주변 진민련 관계자 등을 만나 진상조사 활동을 벌인 뒤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WCC)에 필적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서울지검에 김기설씨의 수첩원본과 홍성은씨의 진술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 및 기타 증거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보냈다.

진상조사위는 이에 앞서 지난 30일 범국민 대책회의의 참관성씨와 최종진씨로부터 경위보고를 들었다. 진상조사위는 박형규 목사를 위원장으로 해 홍성우·박연철 변호사와 연세대 김찬국 부총장, 김동완·조화순 목사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시위전력 안밝혔다"해고 한국감정원에 패소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조중한 부장판사)는 31일 수습사원으로 채용된 뒤 입사서류에 시위로 학사경계받은 전력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조재구(서울 양천구 신정5동)씨 등 5명이 (주)한국감정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쪽이 수습사원을 채용한 뒤 연수기간중 품성, 연수성적 등을 평가해 기준 미만 점수 취득자를 해고할 경우 평가에 업무능력과 관련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이 입사때 제출한 서류에 시위전력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해서 품성평가성적을 0점 처리함으로써 다른 사원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해 해고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김계원씨 소유권소송 패소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이상경 부장판사)는 31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계원(64)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유서대필' 공개수사 재야 요구

검찰 "진실 밝히려면 수용해야"

(2면 계속)

'대필' 공방 조사위 구성

교회협 인권위 진상규명에 결정적 기여할수도

박형규 김동완 조화순목사 홍성우 박연철변호사 김찬국교수 등 6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박윤배 목사)는 지난달 30일 '김기설씨 분신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강대 박홍 총장과 한인현씨 관계인사, 경찰 등을 상대로 이틀 서로간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 국민들이 알고 있는 혐의점과 의혹을 풀기 위한 진상조사 활동에 착수했다.

진상조사위는 박형규 목사를 위원장으로 홍성우 변호사, 박연철 변호사, 김찬국 연세대 부총장, 김동완 목사, 조화순 목사 등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일에는 김씨 분신을 현 전국 보고받고 현장을 둘러본 박홍 총장을 만나보았고, 이어 7일에는 명동성당 구내에서 김기춘씨 등 전인현 관계자와 이지혜씨 등 참고인들을 만나 진상 조사활동을 벌였다. 조사단은 김찬국교수의 연락도 주선하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조사활동이 마무리되는 대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7일 현재까지의 조사활동에서만도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여러가지 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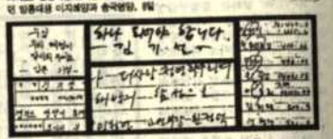
박홍 총장 면담 김찬국 목사와 조화순 목사, 박연철 변호사는 지난 1일 서강대학교로 박홍 총장을 방문, 장시간 면담을 하고 분신현장도 둘러 보았다.

이 면담에서 박홍 총장은 김기설씨 투신 이후에 제3자가 유서를 갖다놓았을 가능성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한때 김기설씨 분신자가 누군가가 유서를 사주에 갖다놓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적도 있었으나, 박홍 총장이 분신 13분 후인 9시 30분에 현장확인을 하러 올라갔을 때 김기설씨 상의 호주머니에 유서가 발견되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박 총장이 옥상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학생 몇명이 올라가기는 하였으나 경비원과 함께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조작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분신배후에 이들의 세력이 있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된 데 대해서는 한인현 씨측은 입장을 밝혔다. 박홍장 본인은 "배후세력" 운운한 적도 없고, "이들의 세력" 이라는 표현은 인간들 이름속의 신과 이에 대한 종교적 표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교회협 인권위는 '김기설씨 분신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를 구성하고 조사활동에 들어갔다. 사진은 지난 7일 명동성당에서 김기춘씨를 포함한 대학생 관계자들과 면담하는 김찬국 조화순 박형규 목사, 김찬국 교수(좌로부터).

주변인들 진상조사위원들은 이날 명동성당에서 김기춘씨 외에도, 분신직전 김기설씨와 함께 있었던 임종대씨와 이지혜양과 송국영양, 8일 수업을 강찬이 김수배씨 집수배 있으면서도 수업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이 지기 수업에 김기설씨의 행적을 가릴때서 제출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자신의 행적과 관련된 사람이 단 한사람도 수업에 배있어야 되지 않느냐면서 경찰이 어거지 주장만 하지말고 수업을 무엇이 조작되었다는 것인지 공개하여 밝히고 함께 참회하자고 말했다.



김씨의 유서와 글씨

김씨 주변인들의 말

김씨 수첩

'검찰 억지주장, 언론 왜곡보도' 지적
관련자 직접 대면, 의문점 거의 해소

[illegible]

(권혁률 기자)

인터뷰 **왜곡보도에 시달려 피신해 있는 송국영양**

5월 24일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김기설씨가 누군가에 억지로 떠밀려 원하지 않는 분신을 하게된 것같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도된 송국영양(23·방송통신대생)을 만나보았다. 송양은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이 철저히 왜곡보도된 뒤, 자신이 아무리 진실을 증언해도 검찰과 언론이 철저히 왜곡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에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중앙일보 기자와의 인터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 23일 밤 11시경에 귀가했는데, 중앙일보 기자가 저녁 8시반부터 집앞에서 기다리다가 찾아왔다. 안만나려고 했는데 문밖에서 계속 시끄러워 조사를 바꿔서 전혀 다른 내용의 말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더군다나 'X세끼' 니 '빙미다'를 지면서 몽곡했다' 는 따위는 말한 적도 없는 내용을 첨가한 것이다.

-기사가 나간 뒤 항의는 하였는지.

= 직장에서 근무하느라고 그날 저녁에야 신문을 보았는데, 즉시 항의 전화를 하니까 담당 기자가 없다고 말렸 하였다. 그후 명동성당

"검찰·언론 사실증언 철저히 왜곡"

합계 굴어 이웃에 참피해 할 수 없이 문을 열고 검찰에서 이미 자술서를 썼고 기자회견도 해서 더 할말이 없다고 하자 같은 내용이라도 10분간만 직접 이야기하자고 했다.

당시 언론과 검찰의 일방적 보도에 당황해있던 터인지라 김기설형의 분신은 결코 누구의 교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배후세력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절제하였다.

-최근 내용은 어떠하였는지.

= 새벽 2시까지 자고만치 세시간 동안 검찰신문과 비슷한 내용을 자꾸 반복해 물었다. 그래서 김씨가 분신을 결심하게 된 심경을 우리에게 토로한 내용을 그대로 말해주었다. 그런데 나중에 실린 내용은 말의 앞뒤를 잘어버리고 표현만 판 뒤에서 우연히 그 기자와 마주쳤는데, 보기조차 혐오스러워서 "그렇수가 있나" 고 소리 한번 치고 외면해 버렸다. 처음부터 왜곡보도의 지면을 갖고 올아온 것인지, 아니면 신문사 간부가 기사를 조작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소위 해있는 언론사라는 데에서 어떻게 그럴수가 있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다.

자신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제도언론은 철저히 왜곡해서 보도할 것이라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송양은 김기설씨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데 이용되지 않는 길은 차라리 언론으로부터 피해있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직장출근도 포기하고 현재 명동성당에 피신해 있다.

(권혁률 기자)

강기훈씨 본지에 기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국민모두가 조작사건의 피해자

고 김기설씨의 유서대필 용의자로 지목되어 수사당국이 찾고 있다는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던 지난달 18일 오후, 저는 고 강경대 열사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달 16일 낮 저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17일에는 내가 기설의 감압(?)에 못이겨 소개시켜 준 성은이가 연행되어 아직도 풀려나지 않았다는 소식, 그리고 그와 많은 시람들이 연행되었거나 찾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그토록 악랄에 가득 찬 유서대필 시나리오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 엄청난 소식을 접한 저는 일단 이 시간이 저에게 씌워진 굴레와 누명을 본질과 의도가 어찌되었든 벗고자 하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모신문사를 방문하여 저의 무죄를 항변하였을 때 시큰둥하게 받지 못하겠다는 눈빛으로 바라보던 신문기자의 눈초리는 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면서 앞날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연일 계속되던 신문기사와 방송보도 속에서 저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가공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적인 상식도 무시되었고, 저마다 한마디씩 더욱 강도를 높여서 용을 인간으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검찰의 일방적 단정으로 난도질 당했고, 저의 목소리는 이를 단순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단순취급되었습니다. "검찰의 공신력과 재야운동의 도덕성의 싸움" 이라는 것이 비교적 우호적인 언론들의 논조였습니다. 그들은 진실에 앞서서 수사당국이 말하는 소위 "과학" 에 현혹되어 있었습니다.

박종철씨 고문치사사건에서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는, 이철규씨를 실족에 의한 단순익사라고 규정했던 소위 그들의 과학에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비상식의 과학에 매몰되어 있었던 언론들은 연일 주간지의 선정적인 기사처럼 검찰의 발표를 그대로, 어떤 때는 검찰수사를 선도하며 써재껴 나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대다수의 국민들은 반신반의 하면서도 그럴 수도 있겠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진실을 밝히려 무던히도 애써 왔습니다. 만일 수사당국이 단순한 오해에서 저를 지목한 것이라면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검찰이 그간 상상했던 가상의 시나리오를 포기하고 진실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한가닥 남은 인간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검찰의 대답은 우리들이 제출한 모든 것, 또는 이 소식을 듣고 과거 김기설씨와 일하던 분들이 제출한 그의 필적을 조작이라며 일축하였고 심지어 제가 교도소내에서 큰 편지도 조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론조작에 의한 여론재판을 통해 힘을 얻은 저들은 저에 대한 사진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단행했습니다.

18일 이후 명동성당 농성에 함류한 저는 많은 시민들과 각 단체로부터의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공자에 물린 저들의 그간의 행태를 알하면서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니 걱정말라는 당부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유서를 대필했는지 안했는지의 사실여부를 규명하는 차원을 넘어 인간성을 회복하려는 모든 양심적인 세력과 그를 거부하고 권력유지를 위해 어떠한 비상식적이고 반인간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 세력과의 일대결전이며 이 악랄한 조작사건의 피해자는 저와 몇몇 분들이 아닌 국민 모두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이 이토록 실감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저의 현실적 고통을 해결해주지는 못한다는 사실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가족, 사랑하는 동료들과 친구들이 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고통받는 현실, 특히 성은이가 친했던 친구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제 가시기도 전에 수사당국에서 당혹을 정신적 압박과 고통이 일신의 안위에 앞서 저를 가장 가슴아프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진실하기 때문이며, 저의 진실을 믿어주시는 많은 국민들과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진실을 알리려는 많은 분들이 제 주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 어깨위에 올려진 커다란 짐에가 이땅의 민주주의를 일답기기 위한 과정에서의 고통이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제자신에게는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정원 지면을 빌어 그간 저를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에 있는 한귀절이 생각납니다.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91. 6. 11 조선

敎唆하여… 처리하겠다

노동부 연말까지 대책 마련

91. 6. 11 조선

대책하여 "思想전향 제도"

15일 출범할 「時局지원」 조직 운영키로

91. 6. 11 조선

명동성당에 경찰투입 밤샘 검찰

빠르면 내주초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7일 이수호 대책회의 상임의장, 서준식 전민련 인권위원장, 장기표 전민련 총무부장 등 수배중이거나 사전영장이 발부된 재야인사들을 검거키 위해 명동성당에 경찰 특임팀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배대상자들이 계속 자진출두를 거부하고 있으나 엄정한 법 집행을 연계까지 미룰 수만은 없다"고 말하면서 미사가 있는 날을 피해 빠르면 내주초 경찰이 투입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성당 본당에까지 공권력이 투입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야, 문익사 석방 촉구

재야단체들은 7일 문익환 목사 재수감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이는 제2의 공안정국을 파하려는 의도라며 문 목사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공안통치분쇄와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통일과 민주화에 일생을 바친 문 목사의 재수감은 세계 여론과 국민여론을 무시한 채 장기집권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는 패륜적 폭거"라며 "국민들의 민주화 열기야말로 이드신 분에 대한 예우를 고려하여 문 목사를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전민련과 범민련도 각각 성명을 발표, "문 목사 재수감은 전체 민주화운동 세력에 대한 공안세력들의 일대 폭거"라며 "문 목사야 1천4백여명에 이르는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고 보안법 등 악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도 "문 목사를 재수감한 것은 이미 노 정권이 도덕과 인륜을 논할 수 없을 만큼 타락했음을 재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도 "정부당국이 실순이 넘은 고령의 문 목사를 구속한 것은 반인륜적 처사"라고 비난하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시위주도 경희대 3명 구속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7일 지난 6일 경희대 앞수수께 당시 연행한 이 대학 총학생회 문화부장 최재호(24·무역4)씨 등 3명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태평양화학 노조 6명 구속

서울 용산경찰서는 7일 본사 사무실을 점거, 14일 동안 파업을 벌여온 태평양화학 노조위원장 이수종(34)씨 등 노조원 6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회사 측과의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동료 조합원 5백여명과 함께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태평양화학 본사 건물에서 회사 간부들의 출입을 막고 농성을 벌였다는 것이다.

보복에 대한 사법적 심판 불가피

수뇌부 지휘하에 계획 실행 결론

[illegible]

"국내 이미지…" 반발해 그대

보고 조작에 대한 비판

[illegible]

「아시 代事」 사건 내 攻防

정치자금 수수 혐의 [illegible]

12·15 이후 불법 [illegible]

호부 이용 [illegible]

金추기경 중재 가능성

姜씨신변 관련 明洞성당 과잉경비 말썽도

김수환추기경이 순결록 일 알려졌다.

씨 유서대필의혹을 밝히는 진상조사 촉구 등을 위해 서울대 총학생회 등 학생단체가 명동성당 과잉경비 말썽도 빚어지는 등 김수환추기경이 이번 사건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되고 있다.

김수환추기경은 지난 10일 오전 명동성당 사무처장 차동춘신부를 통해 강씨 유서대필 사건 관련 성명을 발표,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단식기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추기경은 이날 자신의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을 통해 나타난 것을 마지막 계기로 진상이 밝혀지고 우리 사회가 다시는 이러한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식기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추기경은 "이번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우리 사회가 다시는 이러한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식기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추기경은 "이번 사건을 지나는 모든 국민이 대화를 통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代筆공방 「도덕적 권위」로 중재

金추기경 지금나선 배경

김수환추기경이 순결록 일 알려졌다.

씨 유서대필의혹을 밝히는 진상조사 촉구 등을 위해 서울대 총학생회 등 학생단체가 명동성당 과잉경비 말썽도 빚어지는 등 김수환추기경이 이번 사건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되고 있다.

김수환추기경은 지난 10일 오전 명동성당 사무처장 차동춘신부를 통해 강씨 유서대필 사건 관련 성명을 발표,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단식기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추기경은 이날 자신의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을 지나는 모든 국민이 대화를 통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추기경은 "이번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우리 사회가 다시는 이러한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식기도하겠다"고 밝혔다.

姜씨안 전문제등 심도있게 검토

검찰측입장과 배치 진통따를듯

강씨 유서대필 사건 관련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명동성당 과잉경비 문제 등 이번 사건 전반에 대해 비판적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김수환추기경의 중재 역할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다.

김수환추기경은 지난 11일 명동성당 사무처장 차동춘신부를 통해 강씨 유서대필 의혹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사결과 발표가 있은 뒤 "이번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우리 사회가 다시는 이러한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식기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추기경은 이날 명동성당 사무처장 차동춘신부를 통해 "이번 사건을 지나는 모든 국민이 대화를 통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추기경은 "이번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우리 사회가 다시는 이러한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식기도하겠다"고 밝혔다.

명동성당 봉투봉수원회의가 강경파에 지지성명 채택, 김수환추기경의 중재역할 등 향후 사태전개에 관심을 모았다. 〈홍콩=연합〉

「공안 탄압 사죄」

노정권 진상조사단 구성

정명위 진상조사단 구성

김수환 추기경은 최근 명동성당 사무처장 차동춘 신부를 통해 강씨 유서대필 의혹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한 정부 검찰 조사결과 발표가 있은 뒤 "이번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우리 사회가 다시는 이러한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식기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추기경은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문책하는 것 등 정부가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정부 검찰 조사결과 발표가 있은 뒤 "이번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우리 사회가 다시는 이러한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식기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추기경은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문책하는 것 등 정부가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정부 검찰 조사결과 발표가 있은 뒤 "이번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우리 사회가 다시는 이러한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식기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추기경, 강씨신변 중재나서

명동성당 정문서

추기경 숭용차 수행

경찰 과잉검문 물의

추기경은 숭용차로 성당에 도착한 뒤 성당 정문에 서 있던 경찰 검문을 받았다. 추기경은 경찰 검문을 받은 뒤 10여 분 가량 성당 정문에 서 있던 경찰 검문을 받았다. 추기경은 경찰 검문을 받은 뒤

"明洞성당 잔류" 요청

姜勳씨, 金추기경에 편지

明洞성당 과잉검문 말썽

사복조 무단출입 金추기경 신분증 요구도

聖堂측 "계속될땐 대책회의 철수요구 보류"

"姜씨 검찰출두 진실밝혀야"

가톨릭 正平委 공식통보, 필요땐 교회서 변호인구성

교회, 國法 거스를수한 없어, 검찰출두연 국정한수사 공한

고심끝에 實定法존중 결정

가톨릭의 姜씨 자진출두권유 배경

계속 보호하면 法질서무시, 이유 부담큰 공권력투입 強行 미지수

姜基勳씨 자진출두 권고

明洞성당 '15일이후 公權力투입 막을 명분없어'

대책회의 '신기권보때까지 不應'

제768호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91. 6. 13 국 민

致死-분신-「악수葬禮」49일

혼돈時局 막 내렸는가

11명사망…金양장례로 일단락
死因 代筆논란·總理경질 파문

명지대생 姜慶大군 치사 사건에서부터 성균관대생 두 김희석 5·18 광주 민중항쟁 유서대필과 사회 치안정국 이제 선거정국으로 자연스럽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잇단 분투신, 대규모 가두집회, 12일 金貴井양 장례가 무사히 치러짐에 따라 시국은 지 우리 사회는 제대로 숨 돌릴 겨를조차 없는 긴장과 혼돈의 연속이었다. 불과 한 사건이 꼬리를 물었 姜군 치사사건이후 金양 金貴井양 장례까지 12일까지 49일간은 길고도 험했다. 姜군은 지난 4월26일 오후5시10분쯤 명지대 교문 앞에서 시위중 사복전경 10개 도시에서 대규모 가두 등에게 붙잡혀 쇠파이프와 집회및 시위를 벌인데 이어 목봉등으로 맞고 실신 병원으로 옮겨졌다. 5월4일 「백골단해체의 날」과 민자당중앙당의 9일에 이어 이날초까지 전국 신촌세브란스병원 영안실로 옮겨져 장례 농성에 들어갔다.

이때문에 최루탄과 화염병 공방이 끊이지 않았다.

당국은 곧바로 姜군을 폭 력, 숨지게 한 전경 5명을 살인치사혐의로 구속했다. 또 姜군 치사사건 당일인 27일 安應模내무부장관을 문책, 경질하는등 사태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55개 재야단체는 「姜慶大열사 폭력살인규탄 및 공안통치종식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를 조직,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내각 총사퇴등을 요구하며 대정 진 쉼이다.

4월29일 전남대 중앙도서관 앞에서 이학교 朴勝 봉열사 장례식 및 21시국 농성 영결식을 포함하면 11명이 숨 진 셈이다.

이 사건이 꼬리를 물게 된 것은 분신·투신·음독 등 잇단 사건이 일어나 5월1일 안동대 金봉철군(20)민속학과, 3일 경원대 千世晛군(20)전자계산과, 8일 金鎭尙씨(25·전민련사회부장), 10일 尹龍夏씨(23·근로자), 18일 李正順씨(39·주부)와 전남보성고 金鎭株군(18·고3), 22일 鄭相御씨(26·무직)이 분신해 숨져 국민을 경악케 했다.

또 지난달 6일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朴昌珠씨(32)가 옥상에서 발견됐다.

5월25일에는 가두시위하던 성균관대생 金貴井양 이 과정에서 지난 3일 한국외국어대에 마지막 강의를 하러갔던 鄭가慶국무총리서리가 대학생들에게 달걀과 밀가루세례를 받고 발로 걷어차인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학생과 재야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집회를 주도했던 대책회의와 전대협 간부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거에 혈안이갔으며 현장검증지로 몰려갔던 文炳模국무총리서리가 대학생들에게 봉변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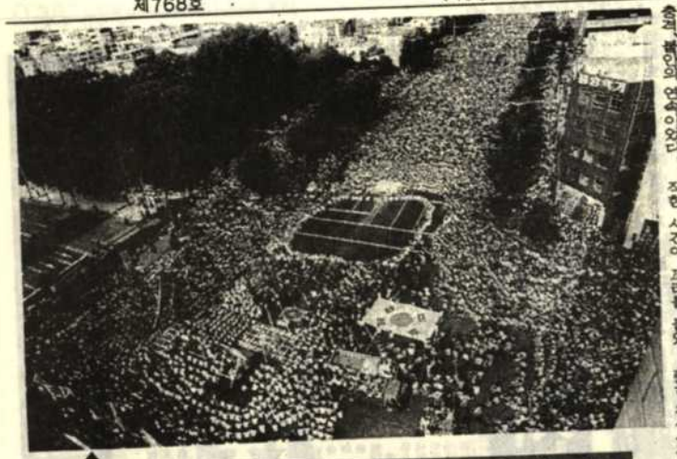
6일 재야급화다.

姜군 사건이후 시국주도권을 재야와 학생들이 잡고 있었으나 국무총리서리 폭행사건을 계기로 상황이 급변, 당국이 주도권을 쥐게 됐다.

이제부터 정부는 재야와 운동권 학생들에 대한 강경대응에 앞서 국민의 민주화 욕구를 충족시킬 조치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취해가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金鎭弘기자)

운구행렬 12일 오후 金貴井양 운구행렬이 돌로3가 파고다공원에서 시민 학생 3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노제를 지내고 있다.



제951호 〔1988.6.18제3종우편물(가)급인가〕 91. 6. 14 한 겨 레 신 문

천주교정평위 "강씨 검찰 자진출두 권유"

명동성당 긴장 고조

검문경찰 3천명…대책회의간부 단식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위원장 최창무 신부)가 김기설씨 유서대필 혐의를 받고 있는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에게 검찰에 자진출두하도록 권유하였다고 밝힌 다음날인 13일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강씨와 범국민대책회의 핵심간부들은 공권력투입 등의 대비책 마련에 부심했다.

특히 오는 15일 이후 범국민대책회의는 명동성당을 떠나더라도 강씨만은 명동성당에 남아 강씨가 "공개적이고 안정된 상황에서 자신의 진실을 밝힐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성당의 보호를 받기를 기대했던 대책회의 핵심간부들은 서울대교구 정평위의 결정을 선뜻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대책회의 움직임 = 대책회의 한상렬·한주익 공동상임대표와 이수호 집행위원장은 이날 오전 농성자들이 모두 무사히 성당을 빠져나갈 때까지 이 성당 문화관 2층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식에 들어가기 앞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성당주변의 경찰병력 철수 △대책회의 간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철회와 수배해제 △송상사대필조작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이런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성당에 공권력이 투입된다면 모든 자구적 노력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혀 성당에 무리하게 경찰병력이 투입될 경우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대책회의는 또 오후 2시 대책회의의 공식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취소했다.

취소이유는 경황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대책회의 안에서는 현재 정평위의 입장에 대한 대응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전민련 인권위원장 서준식씨는 이날 아침 정평위의 입장을 밝혔던 정강길 명동성당 수석보좌신부의 기자회견 내용이 보도되자 정 신부를 만나 정평위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정필도 정평위의 입장에 큰 관심을 보인 듯 이날 오전 정 신부에게 전화를 걸어 기자회견 내용을 확인했다.

한편 경찰은 수배중인 범국민대책회의 간부들이 성당을 빠져나간 것에 대비, 성당 주변의 병력을 전경 25개 중대 3천여명으로 증강 배치하고 성당을 드나드는 신부들과 승용차·봉고버스의 트렁크까지 일일이 검색하는 등 검문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움직임 = 사제들은 교회의 공식입장에 대해 논평하기를 유히 머리고 있다.

그러나 각 교구의 사제단 간사를 중심으로 접촉을 갖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제들은 특히 정평위의 입장발표 하루전인 11일 △경찰의 수사가 조작된 듯한 인상을 주고 있고 △성당에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물으로라도 막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성당의 공식입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제단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데 섭섭함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제단이 정평위의 입장과 상반되는 자신들의 입장을 또다시 발표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평위 입장 = 정 신부는 지난 12일 오후 8시 기자회견을 갖고 명당성당에 은신, 농성중인 강씨에 대해 15일 "공권력 투입을 막을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정 신부는 "강씨가 15일 이전에 성당을 떠나 검찰에 자진출두하도록 하는 것이 천주교의 공식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신부는 이런 천주교회의 방침은 사제와 신도들의 모임인 서울대교구 정평위에서 결정해 김수환 추기경의 추인을 받은 천주교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제951호 〔1988.6.18제3종우편물(가)급인가〕 91. 6. 14 한 겨 레 신 문

명동성당 주변에 미묘한 흐름 감돌아

천주교 강기훈씨 관련 입장표명 안팎

공권력 투입땐 상당한 진통예상
전민련 "최종입장으로 볼수없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가 지난 12일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의 검찰 자진출두를 권유하기로 한 결정은 유서대필 여부의 규명만이 아니라 정부 당국의 시국대응 방향 및 천주교의 위상에도 커다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특히 정평위의 발표는 하루 전인 11일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이 문제와 관련해 발표한 성명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천주교 내부에서도 벌써부터 비판한 파문이 일고 있다.

경감실 명동성당 수석보좌 신부가 밝힌 정평위의 결정내용은 강씨가 빠른 시일 안에 검찰에 자진출두해 법절차에 따라 진실을 밝힐 것과, 15일 이후 강씨의 신변보호를 성당측이 책임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교회는 민련보호 차원에서 제관리 운영상이 보장되는 한도로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정 신부는 이틀날인 13일 경찰무입을 묵인한다거나 강씨의 신변보장을 못한다고는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평위의 이번 결정은 범국민대책회의가 철수한 뒤에도 강씨가 성당에 계속 남아 있기를 희망하는 농성자들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5일까지 장기농성으로 벌어진 모든 문제를 일단 마무리짓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성당의 어려운 처지를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정평위의 입장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평위의 입장은 하루 전인 11일 발표된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성명과도 기본적인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사제단 성명은 수서사건 등 과거의 사례를 들어, 검찰이 내세워온 공권력과 법이 "과연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이냐"며 불쾌감과 분노를 표시하고, 강씨 문제에 관해 전민련쪽의 입장을 지지했었다. 사제단은 자체 조사와 변호사들의 회견을 종합해볼 때 "검찰쪽의 주장에 다른 의 조작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김기설씨의 여자친구 홍성은씨의 공개증언과 제3의 장소에서의 공정한 공개수사, 강씨의 신변안전 보장 등을 촉구했다. 특히 종이 문제와 관련, 경찰의 주장이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일소에 부치고 있다.

사제단 신부들은 또 추기경이 추인한 서울 정평위의 결정이 교회 공식입장으로서 무게가 실려 있긴 하나 그동안 시국사건에 소극적이었던 서울 정평위의 관단근거에 조심스런 회의를 표시하고, 만일 15일 이후 공권력이 성당에 투입될 경우 상당한 내부진통이 뒤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실제로 정평위는 전국 교구마다 위원장(신부)이 선임하는 15명 정도의 사제와 신자들로 구성돼 있으나 한계 때문에 부산·대구, 인천 정평위를 제고는 거의 활동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씨와 전민련은 정평위의 결정에 대해 일단 공식적인 반응을 유보하고 대처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범국민대책회의 간부들이 무기한 단식농성을 선언한 데서 볼 수 있듯 교회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민련이 공개적으로 정평위 결정에 반발하고 사제단도 여기에 동조할 경우 정평위의 이번 결정은 경우에 따라서는 천주교, 정부 당국 모두에 더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우는 혹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

(한승동 기자)

공권력 투입땐 상당한 진통예상
전민련 "최종입장으로 볼수없다"

천주교 최고의결기구인 주교회의 산하 15개 위원회 가운데 하나인 정평위의 이러한 결정은 사실상 교회의 공식입장으로 볼 수 있고 김수환 추기경도 정평위의 결정을 추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와 함께 정평위 조사위에 참석했던 서준식 전민련 인권위원장은 정평위쪽이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면서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평위의 발표를 최종 공식입장 표명으로 볼 수는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전민련은 경 신부가 "강씨도 공정한 수사만 보장된다면 적당한 시점에 자진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는 점을 들어 "강씨가 진실을 밝히도록 하는 것이 그를 진정으로 보호하는 길"이라고 밝힌 부분을 그대로 수긍할지는 의문이다.

사제단 신부들은 또 추기경이 추인한 서울 정평위의 결정이 교회 공식입장으로서 무게가 실려 있긴 하나 그동안 시국사건에 소극적이었던 서울 정평위의 관단근거에 조심스런 회의를 표시하고, 만일 15일 이후 공권력이 성당에 투입될 경우 상당한 내부진통이 뒤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실제로 정평위는 전국 교구마다 위원장(신부)이 선임하는 15명 정도의 사제와 신자들로 구성돼 있으나 한계 때문에 부산·대구, 인천 정평위를 제고는 거의 활동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씨와 전민련은 정평위의 결정에 대해 일단 공식적인 반응을 유보하고 대처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범국민대책회의 간부들이 무기한 단식농성을 선언한 데서 볼 수 있듯 교회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민련이 공개적으로 정평위 결정에 반발하고 사제단도 여기에 동조할 경우 정평위의 이번 결정은 경우에 따라서는 천주교, 정부 당국 모두에 더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우는 혹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

(한승동 기자)

第13215號 6/14 (第3種郵便)

"진실규명 현실적 代案없다" 판단

正平委 姜씨출두 권유 배경

"한쪽은 거짓말…계속 외면못해 결백여부와 별개 法존중 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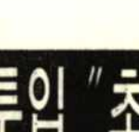
第7993호

明洞성당 경찰투입 "초읽기"

내일 時限…더 보호 곤란 성당측

추기경에 잔류요청희망 대책위

玄朱健대표는 도피하다 잔류



玄朱健 대표

추기경 面談에 마지막기대

새 活路 모색하는 全民聯

출두권유 중재안에 강한반발 최소한의 신변안전 보장요구

6.15 조선

"姜씨選擧日이전출두 안해"

전민련 관계자 明洞성당 철수시기·방법 막바지 협의

대책회의, 오늘 최종입장 밝힐듯

서울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대책회의 관계자들은 전민련 사무처장과 대책회의-검찰 간 협의가 이날 성균관대에서 재개되어 막바지 조율을 벌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성균관대 대강당에서 대책회의 상임대표 김수환 추기경 등 5인 정원 범위 내에서 농성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 측 협의 관계자와 만나 농성 철수 시기와 방법을 최종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명동성당에 농성중인 수배자들은 유서대필 혐의를 받고 있는 전민련 무부장 장재철씨의 거주와 관련, 전민련 신순범씨는 "검찰이 장씨 부인 김현희씨의 자진출두 권유를 거부하는 등 검찰의 자진출두 요구가 강경하다"며 "검찰의 수사가 선거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농성을 풀더라도 이번 대책회의 중재안이 성립되지 않으면 대책회의 중재안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부겸 서울대 교수 등 대책회의 중재단은 이날 대책회의 중재안을 마련했으나 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정원식 이 서한에서 참의 관계인 수사를 요구한 것은 "농성자들이 자진출두 하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신순범씨는 "농성자들이 자진출두 하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신순범씨는

(1988.6.18제3종우편물(가)급인가) 제952호

'유서대필'관련 교계일각 새 움직임

분신사망한 김기설씨 유서대필 협의를 받고 명동성당에서 장기 농성중인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 문제에 대해 가톨릭과 기독교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그 귀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최용록 신부)의 강씨 검찰 자진출두 권유 발표로 이 문제에 대한 종교계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농성중인 범국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애초 성당을 떠나기로 한 15일을 앞두고 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교계 일각에서 종전과 달리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이 문제에 관한 관심을 환기시킨 바 있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움직임은 특히 눈길을 끈다. 사제단의 핵심 신부들은 14일 가톨릭회관 사제단 사무실에서 회동한 뒤 김병상·문정현 신부가 직접 농성장의 강씨를 방문하고 "강씨의 결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의 검찰쪽 주장을 사실상 정면 반박하는 것으로 사제단의 이런 움직임은 결코 일과성의 즉흥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가톨릭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사제단 신부들이 밝힌 대로 오랜 시간 상당한 준비작업을 해온 결과라는 것이다.

87년 6월항쟁을 비롯해서 정세 흐름의 주요고비들에서 결정적 역할을 해온 사제단이 근래 들어 비교적 침묵을 지켜왔고 일부에서는 그런 사제단에 대해 실망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현 국면에서는 사제단의 그간의 침묵이 오히려 사제단에 커다란 도덕적 무게를 더해주고 있다.

더욱이 천주교사제단의 이같은 움직임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산하 '김기설씨 분신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박형규 목사) 구성에서 보듯 개신교쪽의 호름과도 접목돼 있다. 사제단 대표의 강씨 방문과 때를 같이해서 박 목사 등 2명의 이 기구 조사위원들이 농성장을 찾아 강씨의 최종입장을 들은 뒤 이 문제에 대한 독자대응을 시사한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움직임은 아직은 단초를 연 것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지난 시절 종교계가 시국흐름에 끼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되돌이켜 볼 때 그 함의는 결코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러한 움직임은 일미 천주교 서울 정평위가 정구영 검찰총장에게 14일 전달한 서한에도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정평위 서한은 12일 결정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공정수사를 촉구하면서도 "돌이켜보면 과거 권인숙양 성고문 사건,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등 많은 시국사건에서 검찰의 수사가 왜곡된 점이 없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한편 강씨 문제에 관해서도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과정을 보면 강기훈씨의 주장과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검찰의 일방적인 수사로 일관된 점이 없지 않다"며 조심스럽지만 사제단의 시각과 일정 부분 일치하는 견해를 덧붙이고 있다.

정평위의 서한은 농성사태 마무리를 위한 고뇌 끝의 요식 절차라는 해석도 있으나 이 문제의 파장이 의외로 넓고 깊을지도 모른다는 가톨릭 내부의 우려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측면도 있다.

교회의 고민은 지극히 단순한 데서 출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검찰의 공신력에 대한 신뢰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사망한 김기설씨의 여자친구 홍성은씨의 증언 등을 토대로 강기훈씨 유서대필을 기정사실화해왔다. 그러나 검찰주장은 정평위도 지적했듯이 많은 약점들을 안고 있다.

과거의 사례들을 들출 것도 없이 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홍씨는 검찰증언 뒤 잠적했으며 운동권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조차도 이 부분만큼은 대체로 검찰쪽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KNCC 인권위가 15일 그동안의 자체조사 결과와 함께 강기훈씨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어서 이를 계기로 한 종교계의 후속움직임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할 것이라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승동 기자〉

사제단·KNCC 적극대응 조짐

강씨 직접면담 뒤 "결백 재확인" 사제단
자체조사 토대로 오늘 입장표명 KNCC

【2】 1991년 6월 15일(토요일) (5판)

사설

공권력의 권위를 살리는 길

이제 제발로 걸어나오라. 상념에 잠겨 가라앉은 정부로서는 유서대필 용의자에 대한 사법 방문을 마냥 미룰 수 없게 돼 느긋해졌는지 보인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시점에서 검찰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강기훈씨가 자진하여 검찰의 "출석명서 통보"는 공권력으로 전락했는가 하는 검찰 위상에 대한 뼈아픈 자기반성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앞세우게 된다.

돌이켜보면 전경과 최루탄에 시위대학생이 맞아죽고, 이에 항의하는 젊은이들의 분신이 잇따르자 구체적인 증거도 내놓지 않고 "분신을 부추기는 조직적 배후"이니 "반생명의 이념의 배후"이니 하면서 수사에 나서던 검찰의 자세보다가 국민들의 눈에는 진실과 공익을 위한 공평적인 검찰권의 행사로 비치지 않았다. 분신을 조장·교사하는 지대한 중요범죄이라도 포착한 것은 아니라고 하고 포탄하던 검찰수사는 지난이 흐르면서 전민련 강기훈씨의 유서대필 혐의사건으로 오므라들었고, 그나마도 깨끗한 진실의 추적보다는 선입견에 빠져주는 증거 수집만 여념이 없는 일방적 수사라는 의혹마저 낳아주지 못했다. 이윤태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이 "강씨 필적과 유사하다"는 감정에도 강씨쪽이 요구하는 감정사항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서 "판독 능은 아예 감추어진 듯한" 검찰의 일방수사를 국민들은 지켜 보아야 했다. 우국렬 요인 원주로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성직자들이 "검찰 주장에는 다분히 조작의 혐의가 있다"는 점으로 강력한 입신을 강수에 갈팡질팡, 다욱이 검찰 주장이 크게 파손되고 있는 유성은씨의 진술에서 발설된 결혼 당일 거짓말 강한 의혹이 일고 있는 원심을 감안하면, 강씨의 자진출두는 무죄하는 원주나 서울보다 정의구현위원회의 공식입장이 성급으로, 파난해온 어린양을 자식으 대로는 들판 비명으로 비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추리는 생각한다.

국가 권력의 권위가 살릴만는 묘방은 국민들이는 누구도 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미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 쏠려 있는 정치적 사건으로 비롯된 '상념 대치'가 새로운 파문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고, 공권력의 권위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사려깊은 명민한 제시되어야 한다. 이 기서 우리는 이 사건을 언뜻 연결과 같은 제라의 법칙가 단계에 맞게 조사하게 하고, 그 검사를 도대로 검찰이 최종 결론을 내리는 원칙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의한다. 나아가서 앞으로도 제기될 이러한 민감한 문제들을 다룬 특별검사제의 도입과 같은 장기적인 대책을 마무렸이 마련하는 것이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임을 강조해두고자 한다.

(1988.6.18제3종우편물(가)급인가) 제952호

'유서대필'관련 교계일각 새 움직임

분신사망한 김기설씨 유서대필 협의를 받고 명동성당에서 장기 농성중인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 문제에 대해 가톨릭과 기독교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그 귀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최용록 신부)의 강씨 검찰 자진출두 권유 발표로 이 문제에 대한 종교계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농성중인 범국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애초 성당을 떠나기로 한 15일을 앞두고 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교계 일각에서 종전과 달리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이 문제에 관한 관심을 환기시킨 바 있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움직임은 특히 눈길을 끈다. 사제단의 핵심 신부들은 14일 가톨릭회관 사제단 사무실에서 회동한 뒤 김병상·문정현 신부가 직접 농성장의 강씨를 방문하고 "강씨의 결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의 검찰쪽 주장을 사실상 정면 반박하는 것으로 사제단의 이런 움직임은 결코 일과성의 즉흥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가톨릭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사제단 신부들이 밝힌 대로 오랜 시간 상당한 준비작업을 해온 결과라는 것이다.

87년 6월항쟁을 비롯해서 정세 흐름의 주요고비들에서 결정적 역할을 해온 사제단이 근래 들어 비교적 침묵을 지켜왔고 일부에서는 그런 사제단에 대해 실망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현 국면에서는 사제단의 그간의 침묵이 오히려 사제단에 커다란 도덕적 무게를 더해주고 있다.

더욱이 천주교사제단의 이같은 움직임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산하 '김기설씨 분신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박형규 목사) 구성에서 보듯 개신교쪽의 흐름과도 접목돼 있다. 사제단 대표의 강씨 방문과 때를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가 왜곡된 점이 없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한편 강씨 문제에 관해서도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과정을 보면 강기훈씨의 주장과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검찰의 일방적인 수사로 일관된 점이 없지 않다"며 조심스럽지만 사제단의 시각과 일정 부분 일치하는 견해를 덧붙이고 있다.

정평위의 서한은 농성사태 마무리를 위한 고뇌 끝의 요식 절차라는 해석도 있으나 이 문제의 파장이 의외로 넓고 깊을지도 모른다는 가톨릭 내부의 우려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측면도 있다.

교회의 고민은 지극히 단순한 데서 출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검찰의 공신력에 대한 신뢰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검찰

사제단·KNCC 적극대응 조짐

강씨 직접면담 뒤 "결백 재확인" 사제단
자체조사 토대로 오늘 입장표명 KNCC

CC)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교계 일각에서 종전과 달리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이 문제에 관한 관심을 환기시킨 바 있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움직임은 특히 눈길을 끈다. 사제단의 핵심 신부들은 14일 가톨릭회관 사제단 사무실에서 회동한 뒤 김병상·문정현 신부가 직접 농성장의 강씨를 방문하고 "강씨의 결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의 검찰쪽 주장을 사실상 정면 반박하는 것으로 사제단의 이런 움직임은 결코 일과성의 즉흥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가톨릭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사제단 신부들이 밝힌 대로 오랜 시간 상당한 준비작업을 해온 결과라는 것이다.

87년 6월항쟁을 비롯해서 정세 흐름의 주요고비들에서 결정적 역할을 해온 사제단이 근래 들어 비교적 침묵을 지켜왔고 일부에서는 그런 사제단에 대해 실망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현 국면에서는 사제단의 그간의 침묵이 오히려 사제단에 커다란 도덕적 무게를 더해주고 있다.

더욱이 천주교사제단의 이같은 움직임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산하 '김기설씨 분신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박형규 목사) 구성에서 보듯 개신교쪽의 흐름과도 접목돼 있다. 사제단 대표의 강씨 방문과 때를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가 왜곡된 점이 없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한편 강씨 문제에 관해서도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과정을 보면 강기훈씨의 주장과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검찰의 일방적인 수사로 일관된 점이 없지 않다"며 조심스럽지만 사제단의 시각과 일정 부분 일치하는 견해를 덧붙이고 있다.

정평위의 서한은 농성사태 마무리를 위한 고뇌 끝의 요식 절차라는 해석도 있으나 이 문제의 파장이 의외로 넓고 깊을지도 모른다는 가톨릭 내부의 우려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측면도 있다.

교회의 고민은 지극히 단순한 데서 출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검찰의 공신력에 대한 신뢰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검찰

CC)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교계 일각에서 종전과 달리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이 문제에 관한 관심을 환기시킨 바 있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움직임은 특히 눈길을 끈다. 사제단의 핵심 신부들은 14일 가톨릭회관 사제단 사무실에서 회동한 뒤 김병상·문정현 신부가 직접 농성장의 강씨를 방문하고 "강씨의 결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의 검찰쪽 주장을 사실상 정면 반박하는 것으로 사제단의 이런 움직임은 결코 일과성의 즉흥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가톨릭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사제단 신부들이 밝힌 대로 오랜 시간 상당한 준비작업을 해온 결과라는 것이다.

87년 6월항쟁을 비롯해서 정세 흐름의 주요고비들에서 결정적 역할을 해온 사제단이 근래 들어 비교적 침묵을 지켜왔고 일부에서는 그런 사제단에 대해 실망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현 국면에서는 사제단의 그간의 침묵이 오히려 사제단에 커다란 도덕적 무게를 더해주고 있다.

더욱이 천주교사제단의 이같은 움직임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산하 '김기설씨 분신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박형규 목사) 구성에서 보듯 개신교쪽의 흐름과도 접목돼 있다. 사제단 대표의 강씨 방문과 때를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가 왜곡된 점이 없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한편 강씨 문제에 관해서도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과정을 보면 강기훈씨의 주장과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검찰의 일방적인 수사로 일관된 점이 없지 않다"며 조심스럽지만 사제단의 시각과 일정 부분 일치하는 견해를 덧붙이고 있다.

정평위의 서한은 농성사태 마무리를 위한 고뇌 끝의 요식 절차라는 해석도 있으나 이 문제의 파장이 의외로 넓고 깊을지도 모른다는 가톨릭 내부의 우려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측면도 있다.

교회의 고민은 지극히 단순한 데서 출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검찰의 공신력에 대한 신뢰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검찰

제952호 (1988.6.18.④)후우전용(가)금인가) 91.6.15 한 겨 레

"강씨 20일이후 자진출두"

전민련 광역선거일 전엔 정치적 악용 우려

성당쪽, 검찰총장 방문 공정수사 촉구

전민련은 14일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가 김기설씨 유서대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강기훈(27)씨에게 15일 이전에 검찰에 자진출두할 것을 권유한 것과 관련, "자진출두하더라도 광역선거가 끝나는 20일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혀 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전민련 서준식 인권위원장은 이날 오전 명동성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천주교는 뱃부터 찢기는 자가 결백을 주장하면 사제가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보호해주는 것이 관례였다"면서 "김 추기경과 직접 연담해 공권력에 의해 조작된 강씨의 결백과 진실을 전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또 "강씨가 자진출두하는 것이 원칙이나 광역의회선거일인 20일 이전에는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커 응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홍성은씨가 검찰의 보호 아래 있는 이상 강씨가 검찰의 조사에 응하되 공개적이고 안정된 장소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전민련 관계자는 "강씨 문제는 막강한 공권력 앞에 침해당하는 나약한 개인의 양심문제이므로 대책회의가 능상을 갖췄는 것자는 "법도로 강씨를 보호하는 데 천주교쪽이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씨도 이날 오후 3시 명동성당 문화관 2층으로 찾아온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김병상·문정현 신부를 만나 "화두속의 진실을 밝히고 싶지만 지금 같은 상업한 분위기에서는 공정한 수사가 이뤄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제단 신부들은 강씨의 이런 입장을 듣고 "강씨의 결백을 확신한다"며 "진실이 밝혀지도록 공정한 수사가 가능해질 때까지는 강씨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경감실 명동성당 수석보좌신부는 이날 오후 5시30분께 대검을 방문, 정구영 검찰총장을 만나 강씨가 검찰에 자진출두할 경우 공정한 수사를 해 줄 것을 촉구하는 정평위 명의의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정평위는 이 서한에서 "권인숙·박종철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수사 태도에 문제가 없지 않았다"면서 "이번 강씨 사건도 언론의 보도를 보면 강씨에게 입증할 기회를 주거나 강씨 주장이 고려되지 않아 검찰의 일방적인 수사가 진행된 점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이 서한은 또 "강씨도 공정수사가 보장된다면 자진출두할 의사를 표시했다"면서 "그런 만큼 변호사 참석 아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공개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평위가 강씨의 자진출두에 대한 조건으로 변호사 입회를 요구한 데 대해 서울지검 장신욱 강력부장은 "강씨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 수시로 변호사의 입회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강씨가 15일 이전까지 검찰에 출두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경찰이 15일 이후 명동성당에 사복체포조를 투입해 강씨와 수배중인 전민련 관계자들을 강제로 검거할 것인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명동성당쪽에서 경찰투입을 양해한다는 입장표명을 분명히 하기 전에는 공권력투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성당쪽의 양해없이 공권력 투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검찰차원을 넘어서는 일"이라며 "정평위쪽의 자진출두 설득방침이 곧 공권력투입을 양해한다는 것으로 보기 힘들어 현재로서는 성당주변의 경계를 강화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14일 오후 경감실 명동성당 수석보좌신부가 서소문 대검찰청사로 정구영 총장을 방문, 면담을 마치고 총장실을 나서고 있다. 〈변재성 기자〉

"강씨출두 권유한 정평위 '공안'종식 국민여망 외면"

정의구현 전국연합 성명

가톨릭 평신도단체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천정련·대표 한동희)은 14일 서울정평위가 강기훈씨에게 검찰에 자진출두하라고 권유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공권력 투입이 임박해 있는 시점에서 성당이 겪는 물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강씨에게 검찰출두를 권유한 것은 공안통치의 종식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정련은 또 "검찰은 강씨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공개적인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국 일 보 1991年6月15日 (土曜日) (陰曆 5月48 丙辰)

「姜씨신변」 막바지 절충

오늘 철수時限 공권력투입 "당분간自制"

姜씨 자진출두뜻 밝혀 공정 搜査 보장하겠다

검찰 正平委

◇明洞성당 협상사절

中央日報 1991년6월15일 土曜日 (16)

「공안정국」 「공안사범」

「이념 대결」 「색깔 씌우기」

전사 등 대거 구속 시위 봉쇄 총력

자진 출두 권유에 '보호제수' 주장

全民聯 경찰투입 여론 변화 기대

姜씨 "선거끝나면 자진출두"

明洞성당선 경찰투입 용인않기로

6/16 경향 第14082號 (제3종우편물인가) 664号

"대책회의 撤收안해 유감"

金추기경 鄭총리 방문…충돌없이 해결촉구

「敎會法 존중」뜻 담겨

兩者 불이익없게 중재

경우 따라선 당국과 갈등 빚을수도

明洞성당 대치 장기화조짐

대책회의 "못떠난다"·姜씨 "선거前 출두안해"

金추기경 "時限넘겼지만 경찰 투입은 반대"

"강씨 유서대필 안했다는 심증"

KNCC 조사위 회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 산하 '김기설씨 분신사건 경위 조사위원회'(위원장 박형규 목사)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씨의 유서 대필 여부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유서 대필자로 지목된 장기춘(27)씨가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는 심증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이어 "만약 강씨가 무고하게 자살방조 혐의를 받고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라면 이는 엄청난 인권침해"라면서 "검찰은 강씨에 대한 영장 집행을 보류하고,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뒤에 형사소추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위원회는 △김씨의 여자친구 홍아무개(25)씨가 불법연행되어 장시간 구금상태에서 진술을 강요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검찰의 범죄감정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실장 1명만의 것으로 보통 2명 이상이 감정하는 관례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들어 강씨를 유서 대필자로 지목한 검찰의 태도가 자의적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다.

일곱명 숨져 "시신 자진출두"

택시 노조원 焚身

일곱명 숨져 "시신 자진출두"

金추기경 어제 鄭총리 면담

6/16 중앙

金주기경 뿌신부통해 밝혀

'대책회의 철수시한 넘겨도 성당 公權力투입 안돼'

제7995호 6/16 중앙

全民聯입장 사실상 수용

金주기경 공권력거부 배경

종교계·在野압력이 크게 작용

檢·警선 姜씨검거방안에 골몰

117日 (月曜日) 한국 (陰曆 5月68 戊午)

第13218號 6/17 한국

明洞성당, 「국민회의」에 퇴거요청

국민회의 "경찰봉쇄속 못떠나"

뿌수석보좌신부 밝혀 "姜씨는 자진출두때까지 보호"

봉쇄明洞성당주변 긴장속 珍景도

사전令狀6명등 30여명눕성

서로 '밥풀때기', '바퀴벌레', 조롱

'이왕이면 내게 잡혀달라', 부탁도

전경3천여명 史上초유 장기포위

中央日報 1991년6월17일 月曜日 (20)

경찰입장-司祭團요구 중재한셈

대책회의 철수거부로 또다른 긴장
경찰투입 廣域선거 걸려 신중자세

국민회의 조속 철수 요구

姜씨는 출두때까지 보호

明洞성당 「국민회의와 같이 있겠다」

明洞사태 攻防의 본질
—名分얻은 「회복회의」의 촉진책 거부

6/18 조선

姜씨, 「司祭館보호」 거부

자진출두의사 재확인

◇聖堂은신 姜基動씨 明洞성당 문화관에 은신중인 姜基動씨가 17일상오 자신의 입장을 전하려 鄭甲寅신부에게 가고있다。 【李基龍기자】

6/18 한국

"20일이후 자진출두

姜씨, 국민회의와 함께행동.

제954호 (1988.6.18제3종우편물(가)급인가) 91. 6. 18 한 겨 레

대필시비 열쇠쥔채 한달째 잠적

홍씨 어디있나

가족 "소재 밝힐수 없다" 곤혹

전민련쪽 '사실상 검찰보호' 추정

김기설씨 유서대필시비의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김씨의 여자친구 홍아무개(25·전 외정부 ㄱ여상 강사)씨는 어디에 있는가.

홍씨는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27)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필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검찰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조사 이후 한달이 지난 17일 현재 행방이 묘연해 갖가지 추측과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때문에 전민련뿐만 아니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유서대필시비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홍씨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공개적인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명동성당 경갑실 신부는 홍씨 문제와 관련, "홍씨의 잠적은 검찰쪽 의도와 연관돼 있는 것 같다"며 "검찰이 홍씨를 숨기고 있다면 이는 검찰이 전민련과 벌이고 있는 일종의 논쟁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씨의 중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씨가 검찰에서 김씨 분신을 뒤인 지난달 10일 "강씨가 종로5가 한 카페에서 내 수첩에 '김기설'이라는 이름과 전민련 전화번호 2개를 써넣었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이런 진술을 근거로 강씨가 유서대필을 숨기기 위해 홍씨에게 '검찰에 불려가면 김씨가 직접 써준 것이라고 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홍씨는 또 지난달 21일 전민련이 검찰에 김씨의 수첩을 제출한 직후 검찰에 또다시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 "이 수첩은 김씨로부터 전달받았을 당시와 달리 내용이나 형태에서 상이한 점이 많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그러나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홍씨의 행방은 철저히 감추어져 있다.

홍씨의 아버지 환표(52)씨는 처음에는 "딸이 검찰조사를 받고 돌아왔을 때 '부모 몰래 운동권 사람들과 어울려 다닐 수 있느냐'고 야단을 쳤더니 다음날 새벽 집을 나가버려 소식이 없다"고 말했으나 최근에는 홍씨의 행방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홍씨의 동생은 "누나문제가 장황해지는가 했더니 다시 시끄러워지기 시작해 가족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면서 "소재는 밝힐 수 없다"고 말해 가족들이 홍씨의 소재를 알고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씨가 운동권에 불리한 진술을 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홍씨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보호요청을 해 홍씨는 현재 가족들만이 아는 곳에 있다"면서 "은신장소를 옮길 때에는 언제라도 검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하도록 했으며 가족들이 요청하는 한 검찰은 홍씨의 신변을 보호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민련은 "홍씨가 가족만의 보호로 언론사의 추적을 따돌리고 '완벽하게' 잠적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홍씨는 사실상 검찰의 '보호' 아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민회의, 성당농성 계속 시사

명동성당, 강씨의 국민회의 철수 요구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중인 국민회의 한상렬 상임공동대표 등은 성당쪽이 강기훈씨는 사제관에서 보호하되 국민회의쪽은 보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20일까지는 성당에서 농성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17일 오후 경갑실 수석보좌신부와 만나 강씨의 신변보호문제와 국민회의 간부의 문화관 사용 등에 관해 경 신부로부터 성당쪽의 입장을 전해들고 의견을 나눴다.

한 대표는 "성당쪽과 나눈 의견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다"며 단식중인 자신과 이수호 집행위원장 등 "농성자들의 향후 일정은 현재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성자들이 자진출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아 경찰병력이 성당 주변을 봉쇄하고 있는 한 농성이 계속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강씨도 이날 오전 명동성당 사제관에서 경 신부와 만나 "국민회의 간부들은 내 곤경을 누구보다 먼저 이해하고 도움을 준 분들이므로 나만의 안전을 위해 사제관으로 피신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에 어긋난다"며 "명동성당에 머무는 목적은 숨어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으므로 문화관에 남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 신부는 이에 대해 "강씨의 입장을 개인적으로는 이해하나 강씨만 보호할 수 있다는 게 성당쪽의 공식 입장이므로 강씨가 성당쪽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경 신부는 지난 1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강씨가 한 개인의 양심과 결백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해왔기 때문에 성당쪽은 강씨를 적극 보호해 주기로 결정했다"며 "강씨를 사제관으로 옮겨서 보호할 계획이며 원한다면 서준식씨도 강씨의 보호자로 함께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 1991年6月18日 (火曜日) (2)

社 說

明洞聖堂 떠날때 됐다

—「대책회의」 더 머물 名分·理由없어

명동성당 농성자들이 드디어 성결의 귀향 결정을 했다. 지난 그 동안 성결의 귀향과 관련하여 성당과 「대책회의」를 중심 당사자들 사이에 교환된 성명이 있었으나 단식농성자들의 귀가는 지연되었다. 이번 결정은 이러한 지연을 보상하고 성결의 귀향을 촉구하는 의미를 지닌다. 성결이 성당을 떠나 귀가하는 것은 그 동안 이 사회에 던져진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권력의 투입 중단 등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이다. 그 조건은 대체로 국민회의 한상렬 공동대표 등 성당 농성자들이 제시한 것이다. 성결이 성당을 떠나 귀가하는 것은 그 동안 이 사회에 던져진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권력의 투입 중단 등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이다. 그 조건은 대체로 국민회의 한상렬 공동대표 등 성당 농성자들이 제시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단식농성 나흘째 접어든 지난달 13일 성결이 성당에 들어간 지 한달 만에 이루어졌다. 성결이 성당에 들어간 것은 강기훈씨 유서대필 의혹 사건 이후 전민련 등 재야 단체들이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공권력의 투입 중단 등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그 동안 성결은 이 사건의 진상 규명과 공권력의 투입 중단 등을 요구하면서 단식농성을 계속하였다. 성결이 성당에 들어간 것

제955호 (1988.6.18) 후주정동(가)구민가 한 겨 레 신 문

홍씨 은신처 경찰 삼엄경비

성남 가정집 본사기자 들이닥치자 강력제지

검·경 긴급논의 제3장소로 또 옮겨

전민련 "유서 대필수사 불공정 입증"

문건작성한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 유서대필 시비와, 전달 증 발견장소 등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김씨의 여자친구 홍아무개(23·전 의정부 ○여상 중사)씨는 경기도 성남의 한 가정집에 은거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출석한 "보호"를 받고 있었다.

이런 사실은 홍씨의 소재를 추적해오던 〈한겨레신문〉 취재진이 18일 오후 홍씨가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성남의 가정집에 들어가 사진에 담혀졌으며, 경찰도 이를 시인했다.

그러나 〈한겨레신문〉 취재진이 홍씨를 만나려는 순간 취재진은 이 집 주변에서 갑자기 무궁화호 성남경찰서 대공과 형사에게 붙잡혀 연행됐고 그 사이 홍씨는 "제3의 장소로 이동했다.

〈한겨레신문〉 취재진이 홍씨의 은신장소로 추정되는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ㅈ아무개(51)씨 집을 찾은 것은 18일 오후 1시40분께였다.

기동반 〈한겨레신문〉은 김기설씨 유서대필 시비의 열쇠를 쥐고 있는 홍씨의 소재를 찾기 위해 홍씨 주변 인물들을 광범위하게 접촉했으며 그 결과 홍씨가 은거중인 성남의 가정집을 알아낸 수 있었다.

그러나 〈한겨레신문〉 취재진이 표씨 집 문을 막 들어서는 순간 그녀들이 나타난 건장한 체구의 남자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그는 성남경찰서 대공과 형사 박아무개씨로 확인됐다.

박 형사는 신분확인을 요구하다 기절날에서 "여러가지 문제로 조사받 게 됐다"면서 취재진은 1㎞m쯤 떨어진 성남경찰서 지원과청으로 연행됐다.

연행된 취재진은 과출소에서 〈한겨레신문〉 기자라고 신분을 밝혔으나 박 형사는 "주변에서 강간사건이 발생했으니 대공해야 한다"면서 신분증을 가져고 본서로 갔다가 버렸다.

그 사이 취재진은 과출소 경찰관의 눈을 피해 표씨 집을 다시 찾아가던 중 뒤쫓아온 경찰관에게 붙잡혀 과출소로 연행됐다.

성원은 〈한겨레신문〉 취재진을 붙잡고 있는 동안 집안에 이 사실을 알리고 대책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진은 연행된 지 1시간10여분 만인 오후 2시50분께 풀려나 홍씨가 은거중인 표씨 집으로 달려갔으나 홍씨는 보이지 않았다.

표씨 집은 3층 양옥으로 5가구가 살고 있다.

표씨와 5가구 주민들은 한결같이 홍씨를 알지 못한다고 말해 홍씨와 이들과의 관계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주변 사람들은 "2-3주 전부터 사복경찰관으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 3-4명이 낮에나 표씨 집 앞에 고급 승용차를 세워놓고 장시간 서성거리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장신옥 수사과장은 "홍씨가 검찰조사를 받고 난 뒤 처음에는 성남의 친지 집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취재는 그곳은 처나 시골의 친지 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가족에게 은신장소를 옮길 때에는 연락하도 검찰에 인연보호요청을 하도록 했으며 가족들이 요청하는 한 검찰은 홍씨의 신변을 보호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11시15분께에는 이 사건을 취재하던 〈한겨레신문〉 김미경(28) 기자와 〈동아일보〉 윤창원(27) 기자가 다시 과출소에 연행돼 취재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한편 전민련 시흥지(44) 전간위원장은 홍씨가 김한수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씨는 표씨가 김한수 홍씨의 신병을 알아내고 입맛나는 것이 화인된 때 몰도를 급히 보냈다"며 "이는 분명한 불공정수사의 증거이며 홍씨가 어딘에서 죽거나 누구에게나 자의 생각을 자유로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지 않으면 이 사건 수사는 보다 방임세력의 커다란 시련에 부딪힌 것"이라고 말했다.

홍씨 은신처 김기설씨의 여자친구 홍아무개씨가 은거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의 가정집. 홍씨는 이 집을 찾은 〈한겨레신문〉 취재진이 경찰에 연행된 사이 거처를 또다시 옮긴 것으로 보인다. (장철규 기자)

명동성당 경찰의 푸념

명동성당은 김씨가 남기한 새 문익경비를 하고 있는 경비경찰관들이 불평소리가 퍼져 들려오다.

김기설씨 유서대필 혐의를 받고 이곳에서 농성중인 전민련 총무부장 장기홍(27)씨와 사진 성명서 발표해 수배중인 여인회의 간계자 등 모두 10여명의 시국관련 혐의자들을 붙잡기 위해 지난 8일부터 명동에 닷새 전경 25개 중대 3천여명과 시경 특수대원 4백여명 등 모두 3천5백여명이 성당 앞쪽 전입로의 봉쇄를 벌고 있는 경찰들조차 이 일대를 지키고 있는 것이 경찰소리가 퍼져 들려오다.

경찰은 "성당을 찾는 신도들이 혹시 저버 반심하다는 듯한 눈길을 보낼 때는 경찰보서의 자부심과 사기가 한순간에 구겨져 짓밟히는 심정"이라고 푸념하고 있다.

홍씨 특수대에 들어왔다는 한 특사경

대원은 18일 오후 "연행자만은 전달하도록 해 달라는 시경 특수대에 배치에 기별으로, 성당측으로부터 "연행자나 파리 다시 다고 손가락질만을 해는 내가 해 경찰이 없는지 후회하고"이라며 큰 분을 가졌다.

시경 특수대는 지난 80년 7월 12일 연행자만은 확인하라는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말미암아 "성당을 찾는 신도들이 혹시 저버 반심하다는 듯한 눈길을 보낼 때는 경찰보서의 자부심과 사기가 한순간에 구겨져 짓밟히는 심정"이라고 푸념하고 있다.

시경 특수대는 지난 80년 7월 12일 연행자만은 확인하라는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말미암아 "성당을 찾는 신도들이 혹시 저버 반심하다는 듯한 눈길을 보낼 때는 경찰보서의 자부심과 사기가 한순간에 구겨져 짓밟히는 심정"이라고 푸념하고 있다.

김기설씨 유서대필 혐의를 받고 이곳에서 농성중인 전민련 총무부장 장기홍(27)씨와 사진 성명서 발표해 수배중인 여인회의 간계자 등 모두 10여명의 시국관련 혐의자들을 붙잡기 위해 지난 8일부터 명동에 닷새 전경 25개 중대 3천여명과 시경 특수대원 4백여명 등 모두 3천5백여명이 성당 앞쪽 전입로의 봉쇄를 벌고 있는 경찰들조차 이 일대를 지키고 있는 것이 경찰소리가 퍼져 들려오다.

경찰은 "성당을 찾는 신도들이 혹시 저버 반심하다는 듯한 눈길을 보낼 때는 경찰보서의 자부심과 사기가 한순간에 구겨져 짓밟히는 심정"이라고 푸념하고 있다.

한달간 베일속… 洪양 왜 공개않나

검찰의 속사정 알아보면

在野접촉 증거인멸 사전차단

檢察유도신문·번복에도 대비

"유서攻防열쇠 言論통한 증언필요·여론

홍씨 검찰수사 촉구

"홍씨 보호 놓고 갈등"

한 겨 레

홍씨 '보호' 정당성 의문

'91. 6. 20. 木

전문가 지적 한달째 격리 본인의사 모호

진술 증거보전 법취지 어긋나

김기설씨 분신사건과 관련, 김씨 유서 대필자로 지목돼 사전영장이 발부된 강기훈(27)씨의 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증인으로 검찰이 내세우고 있는 홍아무개(25·전 의정부 ㄱ여장 강사)씨가 한달째 검찰과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은신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홍씨에 대한 '보호'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는 19일 홍씨 가족이 신변보호 요청을 해왔고 검찰로서도 홍씨를 만나려 하는 사람들에 대해 파악해 둘 필요가 있어 홍씨의 연고지와 거처를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홍씨 스스로도 유서대필 혐의를 받고 있는 강씨가 소속돼 있는 전민련이나 언론기관 등 외부와 만나기를 기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야단체 및 일부학계와 법조계에서는 보호요청이 홍씨 자신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하며 만약 자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이 강씨 개인뿐 아니라 운동권 전체의 도덕성과 직결되는 중대사안인 만큼 스스로 펫밧이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또 검찰로서도 홍씨 의사와 무관하게 가족을 다그쳐 '강제보호'하고 있다면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하며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 하더라도 홍씨의 진술이 증거보전까지 돼 있는 만큼 한달째 외부와의 접견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홍씨의 진술에 대한 증거보전 절차에 대해서도 재야법조계는 홍씨가 외국으로 나가거나 도피하는 등 재판과정에서 증언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단지 진술 번복을 막기 위해 증거보전을 했다면 형사소송법의 증거보전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안병기 변호사는 "홍씨가 성인인 만큼 가족보다 홍씨 자신의 의사가 중요하며 둘 사이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도 최소한 보호요청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또 "형사소송법상에 공판기일 전의 증거보전은 증인이 출국 등의 이유로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 힘들 경우에만 실시토록 돼 있다"면서 "검찰이 홍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그 근거를 밝혀야 하며 그렇지 않고 진술번복이 우려돼 증거보전을 했다면 이는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공소 유지만을 쉽게 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증거보전권의 남용"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법대 남상호경 교수(형법)는 "만약 홍씨가 보호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가족이 요청했다 하더라도 검찰의 보호는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한다"면서 "방어권 행사라는 면에서 피의자인 강씨가 증인 홍씨를 만날 수도 있는 만큼 보호요청이 홍씨 자신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 및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 교수는 또 "검찰이 홍씨의 요청에 따라 증인 보호라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증거보전까지 마친 상태에서 과연 그토록 철저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특히 홍씨에게 위증을 교사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기자와의 접촉까지 홍씨 의사와 무관하게 고의적으로 막았다면 이는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협의 김홍수 회장과 조준희 변호사도 이날 오전 정구영 검찰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홍씨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보호는 일방적이고 의도적인 수사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민련, 정평위 노력 촉구

전민련은 19일 검찰과 경찰의 홍아무개씨 '보호'와 관련,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 대해 공정수사 실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전민련은 이 편지에서 "정평위의 공정수사 촉구에도 불구하고 승의여전 학생 등에 대한 강압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홍씨를 검찰이 '보호'하고 있음이 밝혀진 이상 이 사실은 공정수사 실현에 큰 장애가 된다"고 주장했다.

【2】 1991년 6월 21일(금요일)

중앙일보

사설

홍씨를 내놓아 '공개증언'하게 하라

'보호'인가 '접촉 차단'인가

분신자살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 유서대필 시비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씨의 여자친구 홍아무개씨를 검찰과 경찰이 한달째 비밀리에 '보호'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 강신욱 검사는 "홍씨가 지난달 17일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홍씨와 부모가 '전민련 등 재야인사들이 자꾸 찾아와 불안하다'며 신변보호 요청을 해왔고, 검찰로서도 홍씨를 만나려는 사람들에 대해 파악해 둘 필요가 있어" 홍씨의 거처를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러한 해명에 대해 우리는 몇가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말하는 '보호 요청'이 홍씨 자신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 해도 지난달의 검찰 조사에서 밝힌 홍씨의 진술이 증거보전까지 돼 있는 마당에 한달째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되지 않는다. 더욱이 일부에서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검찰이 홍씨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압력을 넣어 '강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중대한 인권 침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증인 보호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법피협의자도 아닌 참고인을 고의로 외부와 차단시키는 것은 검찰의 '예정된 목적'에 맞추기 위한 '강제성을 띤 보호'라는 의혹을 짙게 풍긴다. 이것은 《한겨레신문》 기자들이 홍씨의 거처를 알아내 취재하다가 경찰로부터 저지당한 정황(《한겨레신문》 19일자)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홍씨는 김씨가 숨진 지난달 8일, 자유로운 입장에 있을 때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살하기 전날 만난 김씨가 '유서를 써야 하는 등 신변정리를 위해 집에 가봐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고 밝혔다. 그뒤 17일부터 19일까지 받은 검찰조사에서 "홍씨는 처음에는 김씨가 준 메모지를 김씨의 자필이라 제시했고, 유서의 필적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가 '강씨의 필적이 아니냐'는 검찰의 재차 추궁에 '사실은 강씨의 글씨'라고 번복했다"며 "이 진술에 대해 법원에 사전 증거보전절차를 마쳤다"고 지난달 25일 검찰이 발표했다. 이러한 전후 사정으로 미루어 증거보전 절차상의 문제점은 접제치고라도 검찰이 재야운동권의 도덕성과 관련되는 중대한 사안의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단지 '진술 번복'을 막아 검찰의 공소유지를 쉽게 할 의도에서 이같은 불공정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전민련 등 재야운동권은 강경대씨 타살사건 이후 젊은이들의 항의분신이 잇따르는 가운데 노 정권의 폭압정치를 규탄하는 전국적인 항의시위가 격렬해지면서 위기에 몰린 정권이 재야운동권의 도덕성에 먹칠을 함으로써 정국을 반전시키기 위해 '분신 배후세력'의 존재가 있는 것인양 짜맞추려는 조작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는 이런 재야운동권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강기훈씨의 유서대필 확증을 잡지 못한 검찰이 강씨의 자살방조 혐의의 공소유지를 위해 홍씨를 격리시키고 김씨 필적을 제시한 승의여전 학생 등에 대한 강압수사를 계속하는 한 검찰이 일방적이고 의도적으로 수사한다는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할어진 행사라는 측면에서 피의자인 강씨가 증인 홍씨를 만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검찰은 하루속히 홍씨를 대중앞에 내놓아 자유로운 가운데 공개 증언을 하게 할 것을 촉구한다.

명동성당 구내 경찰상주 허용

강씨 출두일자 오늘 발표 사목회도 국민회의 철수 요구

'91. 6. 22. 土. 중앙일보

김기설씨 유서대필 혐의로 사전영장이 발부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27)씨는 21일 검찰에 자진출두할 정확한 날짜를 22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강씨는 이날 어머니 권태필(57)씨, 서준식 전민련 인권위원장과 함께 명동성당 문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유서를 대필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진실이기 때문에 무죄로 석방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22일 정확한 출두일자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강씨는 또 "운동권 사람들이 자살까지 배후조종할 수 있다는 엄청난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검찰에 출두하기로 결심했다"고 심정을 토로하고 "검찰 주장에 맞설 증거들을 법정에 제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씨와 '공안통치 분쇄와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국민회의' 간부들이 농성중인 명동성당의 경감실 수석보좌신부가 지난 20일 경찰의 성당내 '근무'를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성당 평신도들도 농성자들의 철수를 요구할 움직임을 보여 성당과 국민회의 농성자들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정 신부는 이날 오후 10시30분께 성당 정문에서 국민회의의 '규찰대'들이 사복형사들을 내보내자 "허락도 없이 성당에서 농성중인 사람들이 누구보고 나가라 하느냐"면서 "성당의 주인인 내가 허락할 테니 경찰들은 성당 구내에 들어와서 농성자들의 동태를 파악하는 근무를 계속하라"고 말했다. 정 신부는 "성당내에서의 강제연행만은 자제해달라는 것이 성당측의 공식입장"이라며 "국가기관원이 근무를 위해 성당에 들어오는 것까지 막을 명분은 없다"고 덧붙였다. 정 신부는 또 "국민회의측이 하고 있는 것은 '은신'이 아니라 '점거'이므로 성당으로서도 보호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박정훈-67)도 이날 오후 성당에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지금까지 김수환 추기경 등의 자제 요청으로 묵과해 왔으나 농성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면 평신도들이 나서서 농성자 철수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명동성당 사목회도 21일 오후 6시40분 상임위를 열고 "국민회의는 22일 낮 12시까지 성당에서 철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성당에서 책임질 수 없다"고 결의한 뒤 이를 국민회의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는 21일 오전 논평을 통해 "정신부가 밤에도 경찰병력의 문화관 앞 상주를 허용하는 발언을 한 것은 비사제적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정의구현전국연합 김영근(35) 사무국장도 "성당은 교회법상으로도 '은신'해온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회의의 농성을 '은신'이 아니라 '점거'로 보는 것은 국민회의를 몰아내려는 논리이며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자세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투시경

지난 82년 4월 천주교 원주교구의 최기식 신부는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의 '범인' 김현장·문부식·김은숙씨 등을 성당 안 교육원에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범인은닉·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1년4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최 신부는 당시 법정에서 김씨 등을 교회법과 사제의 양심에 따라 숨겨주었으며 "교회법과 실정법이 서로 어긋날 때는 교회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혀 실정법과 교회법과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천주교 교회법 1179·1190조는 "교회에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범법자이거나 국법이 허락지 않더라도 도와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천주교 교리는 이런 교회법의 규정이 비록 살인범일지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기 전에는 보호받도록 한 성서의 '말씀'(민수기 35장·여호수아 20장)에 기초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현재 명동성당에서는 이런 교회법이 경감실 수석보좌신부의 최근 태도와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감실 수석보좌신부는 21일 성당에서 농성중인 국민회의 간부들과 전민련, 강기훈씨 등이 "'은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당문화관을 '점거'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들이 빨리 성당을 떠나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교계 일각에서는 경 신부가 "교회법의 규정을 피해가며 농성자들을 빨리 내보내기 위해 발언을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강씨는 지난 9일 김수환 추기경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거대 공권력으로부터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성당으로 '피신'한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국민회의 한상렬 상임공동대표 등도 성당에 남아 있는 이유는 농성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부당하게 자신들을 수배하고 구속하려는 경찰의 봉쇄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91. 6. 22. 토. 한겨레

명동성당서 실종된 교회법

그러나 경 신부는 "강씨와 서준식씨는 사제관에서 보호할 수 있으나 국민회의 간부는 국민 대다수가 범법자로 보고 있으므로" 보호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 신부의 입장에 대해 교계 주변에서는 "국가 공권력의 압박과 사제의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성당쪽의 곤경을 보여주는 게 아니겠느냐"며 경 신부의 '무거운 짐'에 동정을 표시하면서도 "5공시절의 철권통치 아래서도 최기식 신부와 천주교는 교회로 피신한 '범법자'를 끝까지 보호했는데, 지금의 성당은 교회를 은신처로 믿고 찾아온 이들을 '점거자'라 비난하며 내몰기에 바빠 너무 대조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수 기자〉

십자가밑 9일째 단식 명동성당에서 35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민회의'의 한상렬·이수호 대표가 단식농성 9일째인 21일 오전 성당쪽이 농성자들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는 성당 안에 경찰한이 상주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91. 6. 22. 토. 한겨레 〈김선규 기자〉

전민련 반박 검찰입증 초점

새 국면 들어선 '필적공방'

김기설씨 유서대필 혐의로 사선행방이 알부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27)씨가 오는 24일 검찰에 자진출두하겠다고 22일 밝힘에 따라 이 사건을 둘러싼 검찰과 강씨 사이의 공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제까지는 강씨가 검찰소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측 주장을 뒤엎지 못하는 한 대체로 의혹에서 벗어나기 힘든 수세적 입장에 서왔다.

그러나 강씨가 검찰에 출두하면 검찰이 강씨와 전민련측의 주장을 반박하여 반박해내야만 유서대필 주장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입증책임이 검찰쪽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서울지검 강씨의 편에 서서 그를 도와온 전민련 인권위원장 서준식씨는 이와 관련, "유서를 대신 쓰지 않은 사람이 안했다는 말 외에 먼저 나서서 결백을 입증할 방법이 있겠느냐"면서 "그러나 이번 사건은 증거대신 이념문제 의문사사건이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에 사건과 달리 검찰 주장에 맞설 물적 증거가 있는 만큼 반드시 강씨의 결백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강씨가 검찰소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을 뒤엎지 못하는 한 대체로 의혹에서 벗어나기 힘든 수세적 입장에 서왔다.

그러나 강씨가 검찰에 출두하면 검찰이 강씨와 전민련측의 주장을 반박하여 반박해내야만 유서대필 주장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입증책임이 검찰쪽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서울지검 강씨의 편에 서서 그를 도와온 전민련 인권위원장 서준식씨는 이와 관련, "유서를 대신 쓰지 않은 사람이 안했다는 말 외에 먼저 나서서 결백을 입증할 방법이 있겠느냐"면서 "그러나 이번 사건은 증거대신 이념문제 의문사사건이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에 사건과 달리 검찰 주장에 맞설 물적 증거가 있는 만큼 반드시 강씨의 결백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4일 오전 9시30분 검찰에 자진출두하겠다고 밝힌 강기훈씨.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홍씨의 진술중 조작사실을 증명할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밝혔으나 진술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 홍씨 진술이 어 부분에서도 허위진술인지 알 길이 없다.

홍씨 진술 홍씨 진술 가운데 강씨의 대필혐의를 뒷받침하는 부분은 강씨가 김씨 분신 직후 명지대와 함께 만나 검찰수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으며 자신의 수첩에 김씨의 이름과 전민련 전화번호 등을 적어주기까지 했다는 부분이다.

검찰은 이 진술이 강씨가 김씨 필적을 모방

姜씨 오늘 성당나올때 체포

검찰 농성자 강제連行 가능성도

'91. 6. 24. 月 한겨레

빠르면 오늘중 「사태」 마무리

전민련 사회부장 송효묵씨의 유서대필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민련 총무부장 姜基勳씨가 24일 검찰에 출두키로 함에따라 전민련 농성이 장기화 되는 것은 물론 국민회의 관계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강제집행할 움직임이어서 빠르면 24일 안으로 매듭짓을 사태가 마무리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姜씨가 검찰출두를 위해 전민련을 나오기 직전 농성자에 투신자살 방지를 당부하고 농성자에 투신자살 방지를 당부하고 농성자에 투신자살 방지를 당부하고

"姜基勳씨 성당입구서 검거"

검찰 "자진출두云云은 있을수없어"

徐俊植씨 "29일까지 檢察소환 응하겠다"

'91. 6. 24. 日 朝

유서대필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공안부는 23일 明洞성당에 은신중인 全民協부장 姜基勳씨(37)가 예정대로 24일낮오 성당을 나서면 즉시 검찰청사로 압송,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아침 검찰과 죽씨귀가를 놓의 죽씨가 성당 제의실에 은신중인 것을 파악, 성당측에 죽씨귀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변호사 신분이 아닌 죽씨가 성당이 제공하는 승용차편으로 변호사들과 함께 검찰에 출두하도록하겠다는 성당측 제의를 거부하고 성당을 나서는 즉시 사전구속영장 집행 예정이며 이미 지난 5일 및 8일 두차례 검찰에 출두한 죽씨를 검찰은 그동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왔으나 죽씨가 자진출두 운운하는것은 있을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죽씨가 유서대필 및 보증서 작성 등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감안, 죽씨를 현재 범죄혐의가 충분한 것으로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죽씨가 자진출두 운운하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검 공안부는 이날 한호 가졸리 성안병원 의사에게 11일께 단지장인 韓·추씨를 검진토록 했다.

한편 서울 西部경찰서는 徐俊植씨에 대해 출석,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朝鮮日報 社會文化版 1991년6월24일 月曜日(陰 五月十三日) ①

유서代筆 본격수사

성당나온 姜씨 "검거"

강압수사땐 묵비권행사 농성자들 오늘 강제入院

姜씨 성당

오전 검찰에 출두하기위해 明洞성당을 나서고 있는 姜基勳 머니 權太平씨(56)가 침통한 표정으로 죽씨의 팔을 붙잡고 있다. <吳東明기자>

중앙 제8002호 6/24 (第3種郵便物認可)

焚身배후 발혀질지 궁금

姜基勳씨 구속이후의 수사방향

분신자살한 송진용씨의 부장 송환씨가 유서의 작성로 지목된 송진용씨 무부장 姜씨(27) 가 사건구명관계자 1기를 연민재 검찰의 구속수사를 받게된 데 따라 송씨의 분신자살을 둘러싼 궁금증이 어디까지 풀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필적감정과 유서 여자친구 뜨미양(26)·유서의 필적이라는 메모지를 갖고 기자회견을 한 원로6인 등참석자 간부 3명을 대한 참고인조사를 마친데 이어 수사관계를 보태로 유서의 형의사실을 명백히 밝힌다는 자세다.

검찰은 특히 유서의 내용 어부 규명에 머무 씨의 형의사실을 밝힌만큼 뜨지 않고 앞씨의 사건의 하는 문민정개 검 인물 구속영장에 적용된 자살 방조사건을 남은 시일수 발표한의 속 송씨가 전 신자상을 결정하는데 있씨가 어디까지 영향을 줬는지를 가리겠다고 밝힌다.

검찰 관계자는 『송진용 씨가 가장 큰요인 과함수사건 구속의 필적감정 결과까지 부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이라고 자 때 앞씨가 수사과정에서 신한한 파장이다.

유서작성사실을 입게 시 앞씨의 유죄를 입증하는 인하지는 않을것 이라며 결국 검찰은 법적으로 『필적감정서는 지금까지의 정황 증거이고 감정서의 유죄를 입증하는 수사결과라고도 앞씨를 위한 송진용씨의 도덕성이 구속기소해 유죄판결을 받 결론 「필적감정」에서 앞 씨의 자신의 진짜 필 씨와 앞을 마시며 본신을 아 법수 있지만 앞의 승패 건부 재이세력을 게 세보인 뜨미양은 아직 앞 뜨미양의 유서의 내용 나 사실관 두려워 신나는 오 라는 송진용 송환씨·송 협씨의 본신자살 관련 방조 함께 술을 마신 것 으로 알려진 뜨미양씨등 중요참고인 14명에 대한 신병확보 수사를 모 이고 있다.

이들 가운데 특히 검 찰이 주목하는 참고인은 뜨미양이다. 앞씨의 형의사실을 폭로한 앞씨의 여자친구 뜨미양은 앞씨의 구속을 계기로 다시 속속 필요할 경우 앞씨의 대질조사한다는 방 침이다.

그러나 앞씨는 시종 법정을 부인할 것이 분명 하므로 검찰이 구속만기 (20일)인 7월13일까지 구체적 증거확보로 사건진전을 명백히 밝히지 못할경우 앞씨에대한 관계법이 검찰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앞씨의 경우 앞씨 본인 직후 기자들에게 『자신은 5월8일 오전4시까지 술 을 마시며 본신을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검찰의 몫이다』고 말했다.

한편 뜨미양의 부장이 사 건진전 앞의 승패 건부 재이세력을 게 세보인 뜨미양은 아직 앞 뜨미양의 유서작성 배경 뜨미양은

한 국 일 보 1991年6月25日 (火曜日) (陰曆 5月14日 丙寅)

姜基勳씨 자진출두… 검거

「유서代筆」여부 철야搜査

수첩변조·필적조작 추궁

默秘행사…洪양 대질키로

全民聯등 15명도 수사대상에

성당단식 2명 병원에

徐俊植씨등 3명은 농성계속

◇全民聯총무부장 姜基勳씨(27)가 24일 상오 수갑이채워진 채 서울마포경찰서 서울지검청사로 압송되고있다. [하재헌기자]

전민련 총무부장 姜基勳씨등이 38일간 농성을 계속해온명동성당이 24일 姜씨의 검찰출두를 고비로 공권력투입 사태없이 해결됐다. 24. 6 서. 하. 경향

姜씨구속·지도부 入院…38일만에

평신도개입 돌파구… 평화적 결말

여론악화로 더이상 잔류명분 잃어

「遺書」엄정히 진실 밝혀야

「代筆발표」완벽입증 여부 관심

91. 6. 25. 한국

검찰 姜基勳씨 구속수사 안팎

한양대 농대 명예교수 강기훈씨가 구속된 이튿날인 25일 검찰은 강씨가 유서대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 대해 강씨의 필적과 유서 필적 등 물증을 토대로 강씨를 유서대필 혐의로 구속,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강씨 구속 이후 유서대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 왔으며 강씨가 유서를 대신 써주었다는 진술을 받아내는 데 성공, 강씨 구속 이후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유서대필 혐의로 강씨를 구속한 데 이어 명지대 학생 김철수씨 등 3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유서대필 혐의 수사를 계속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강씨 구속 이후 유서대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 왔으며 강씨가 유서를 대신 써주었다는 진술을 받아내는 데 성공, 강씨 구속 이후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유서대필 혐의로 강씨를 구속한 데 이어 명지대 학생 김철수씨 등 3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유서대필 혐의 수사를 계속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중순 강씨 구속 이후 유서대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 왔으며 강씨가 유서를 대신 써주었다는 진술을 받아내는 데 성공, 강씨 구속 이후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유서대필 혐의로 강씨를 구속한 데 이어 명지대 학생 김철수씨 등 3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유서대필 혐의 수사를 계속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중순 강씨 구속 이후 유서대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 왔으며 강씨가 유서를 대신 써주었다는 진술을 받아내는 데 성공, 강씨 구속 이후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유서대필 혐의로 강씨를 구속한 데 이어 명지대 학생 김철수씨 등 3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유서대필 혐의 수사를 계속했다.

姜씨 "묵비권" 공언… 자백얻어낼지 미지수

수사진전없을땐 명예손상 부담

한편 검찰은 지난달 중순 강씨 구속 이후 유서대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 왔으며 강씨가 유서를 대신 써주었다는 진술을 받아내는 데 성공, 강씨 구속 이후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유서대필 혐의로 강씨를 구속한 데 이어 명지대 학생 김철수씨 등 3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유서대필 혐의 수사를 계속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중순 강씨 구속 이후 유서대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 왔으며 강씨가 유서를 대신 써주었다는 진술을 받아내는 데 성공, 강씨 구속 이후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유서대필 혐의로 강씨를 구속한 데 이어 명지대 학생 김철수씨 등 3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유서대필 혐의 수사를 계속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중순 강씨 구속 이후 유서대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 왔으며 강씨가 유서를 대신 써주었다는 진술을 받아내는 데 성공, 강씨 구속 이후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유서대필 혐의로 강씨를 구속한 데 이어 명지대 학생 김철수씨 등 3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유서대필 혐의 수사를 계속했다.

서 울 신 문 西紀 1991年 6月 25日 火曜日 (檀紀 4224年 5月 14日 陰曆)

姜씨「代筆」여부 밤샘調査

檢察 어제 明洞성당 입구서 拘束

金씨 분신前後 행적 집중 추궁

묵비권행사…自述書 거부

농성2명 病院압송

韓相烈·李秀浩씨 주변 경찰 4백명 배치

「明洞사태」37일만에 일단락

공정수사로 밝혀야 할 '유서대필' 혐의

김기설씨 유서대필 혐의로 사전영장이 발부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가 24일 오전 자진 출두를 위해 농성중이던 명동성당에서 나와 경찰에 검거됨으로써 이 사건을 둘러싼 검찰과 강씨 사이의 공방이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갔다.

강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강씨에 대해 유서대필, 여부, 수험번호 여부, 분신전 김기설씨의 행적, 김씨의 여자친구 홍아무개씨와의 접촉 과정, 명동성당 농성중 증거인멸 여부 등을 집중 신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가 검찰에 자진출두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에 출두하는 것은 검찰에서 조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검찰의 조작기도에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검찰의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에 보장된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아 신문 첫날에 결정적인 사태 전진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검찰과 재야의 도덕성과 명예가 걸려 있는 이 사건은 강씨가 구속된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공방과정에서 나타난 의문점들을 명확히 밝혀야 할 부담을 검찰이 떠맡게 되었다. 유서대필 혐의 문제만 해도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증거로 내세우지만, 재야측은 이 연구소가 경찰 산하기관인 데다가 감정결과 또한 일부 사설감정기관의 그것과 다르다는 점을 들어 그 신빙성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기설씨의 공개된 필적 가운데 김씨가 실남 '태사랑 청년회' 창립대회 방명록에 쓴 글 등 새겨지는 욕안으로 봐도 유서 필적과 같으며, 강씨가 누이에게 보낸 옥중편지 필적이 유서와 전혀 달라보이는데도 검찰이 감정은커녕 전민련쪽에 원본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설득력 있는 해명이 필요할 것 같다.

문제가 되고 있는 김씨의 수험과 업무일지는 유서와 필적이 같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가 나와 있는 반면 검찰에서 이들 문건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검찰의 수사가 전개부터 무너지는 대목이다. 검찰의 주장대로 제출된 수험이 강씨의 수험으로 전화번호 부분을 찢어내고 김씨의 것을 새로 써넣어 끼워넣은 것이라면, 내용중 김씨가 아니면 기재할 수 없는 예모가 존곳이나 발견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들과 관련해서 검찰은 김씨의 여자친구 홍아무개씨의 진술 가운데 조작사실을 증명할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홍씨의 진술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홍씨의 증언을 법원에 증거보전까지 마친 상태라면서도 홍씨의 회부검증을 한달 넘게 '지연'하고 있어 불공정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당연히 강씨와 홍씨와의 대질신문이 있을지만, 의심의 여지를 없앤다는 뜻에서도 홍씨의 '공개증언'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법정에서 한 오라기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을 기대하면서, 검찰은 이제라도 피의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공정한 수사를 전개하도록 거듭 당부하는 바이다.

검찰 '유서대필' 수사방향 큰관심

김기설씨 유서대필 용의자로 지목돼온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27)씨가 24일 검찰에 출두함에 따라 앞으로 검찰의 수사방향과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필적감정과 김씨 여자친구 홍아무개(25)씨 등의 진술을 통해 강씨의 대필혐의를 뒷받침할 근거들을 상당히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유서를 써준 동기나 일시·장소 등 구체적인 범행행위에 대해서는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던 데모지의 전민련 제출 과정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16~17명의 조사대상자를 선정, 신병확보에 나섰다. 이 가운데 김씨와 강씨의 주변인물들인 임단계·이지혜씨 등 3~4명은 이미 한차례 검찰의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어서 이들이 검찰에 유리한 새로운 사실을 밝힐 것인지는 의문이다.

또 나머지 소환대상자들 가운데 대다수도 그동안 언론의 취재, 한국기독교협의회(한교협) 인권위 산하 진상조사단의 조사 등을 통해 자신이 관계된 부분에 대해 여러차례 진술해 검찰의 추가사실 확보에 별 보탬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물적 증거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그동안 시너통 구입 경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으나 이렇다 할 단서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강씨의 '자백'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참고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중요하게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김씨의 분신전 행적 △수험의 보관과정 △김씨 분신 뒤에 강씨 주도로 이뤄졌다는 '대책회의' △용의자인 학생들이 김씨의 필적이라며 제시한 진술을 번복하지 않는한 검찰은 참고인 조사에서도 결정적인 진술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인들의 소환가능성과 관련, 전민련 인권위원장 서준식씨는 "강씨가 자진출두한 마당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참고인들이 자진출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으나 검찰은 이들이 이미 잠적한채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밝혀 다른입장을 보였다.

결국 검찰은 강씨로부터 '자백'을 받아 내는 것이 이 사건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필적 감정결과와 홍씨 등을 비롯한 참고인들의 진술을 최대한 활용한 방침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강씨 집에서 압수한 필적 가운데 유서, 업무일지 등과 동일해 보이는 글씨를 확대, 돌을 대조시켜놓은 사진 1백여장을 만들어 놓았으며 조사가 벽에 부닥칠 경우 홍씨와의 대질신문도 가질 예정이다. 〈김범 기자〉

강씨 진술·새증거 제시가 열쇠

참고인 조사 활용…16~17명 신병확보 나서

하고 있어 △강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거나 △참고인들로부터 범행 경위에 대한 유력한 진술을 얻거나 △새로운 물적 증거를 찾아야 할 입장에 서 있다.

이 가운데 검찰은 특히 강씨로부터 직접 범행에 대한 시인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강씨는 검찰의 유서대필혐의 수사 발표가 있은 뒤부터 출두 직전까지 일관되게 결백하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검찰이 강압수사를 할 경우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해 검찰이 '자백'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민련과 한교협조사단은 이미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강씨가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까지 했다. 숭의여전 학생들의 경우 검찰은 이들이 제시한 필적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소환조사를 벌였으나 뚜렷한 단서를 잡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이 지금까지의 진술을 번복하지 않는한 검찰은 참고인 조사에서도 결정적인 진술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강씨 묵비권 행사

어제 자진출두 "법정서 진실 밝히겠다"

검찰, 홍씨와 대질신문 방침

분신자살한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대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27)씨가 24일 오전 검찰에 자진 출두함에 따라 검찰은 강씨를 상대로 유서대필 여부에 대해 합동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강씨는 묵비권을 행사하여 수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강신욱 서울지검 강력부장은 "강씨가 계속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질문내용을 중심으로 조서를 받아 기소가 가능하다"면서 "그럴 경우 재판에서 검찰쪽에 결코 불리하게 될 것으로는 생각지 않으나 현재로서는 계속 강씨가 입을 열도록 설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강씨가 명동성당을 걸어나오는 순간 강씨 연행해 서울 서소동 서울지검 청사로 데려와 청사 안 구치감에서 수갑철사를 풀은 뒤 11층 조사실로 옮겨 오후 1시부터 본격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강씨를 대상으로 △유서대필 여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면조된 것으로 통보받은 수험의 조작 혐의 △김씨 분신사실 전 강씨의 행적 △김씨 분신 직후 수사에 대비한 대책회의 개최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강씨의 자필진술서를 받아 유서 필적과 일치하는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강씨가 대필을 맡아지 부인할 경우 김씨의 여자친구 홍아무개(25)씨와 대질신문도 벌일 예정이다.

검찰은 전민련 인권위원장 서준식씨 등 이 사건과 관련된 15명 등에 대해서도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 강신욱 부장검사는 이날 수사진행상황을 설명하면서 "강씨에게 분신자살한 김기설씨와의 관계와 5월초부터 김씨가 자신한테까지의 행적 등에 대해 자술서를 써달라고 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일간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13일까지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강씨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입회를 허용치 않기로 했다.

강 부장검사는 "수사기간에 변호인을 입회시킨 예가 없으며 입회시킬 경우 허위 진술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씨 변호인단인 박연철 변호사는 "검찰이 변호인의 입회를 허용치 않는다면 변호인 접견 등을 통해 강씨에 대한 강압수사를 견제할 것"이라며 "변호인단에서 조만간 구속적부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강씨의 변호인단은 유원석, 최석태, 박원순 변호사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앞서 강씨는 검찰에 출두하기 전인 이날 오전 농성장소인 명동성당 문화관 2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자진출두하는 것은 "검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며 "검찰이 나를 희생양으로 삼아 민주화운동의 도덕성에 먹칠을 하려는 억지수사에 대하여 수사기간 내내 헌법에 보장돼 있는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강씨는 오전 9시50분에 명동성당 경갑실 수석보좌신부 등과 작별인사를 나눈 뒤 성당 입구로 걸어나가 대기중이던 시경특수대 요원들에 의해 경찰호송차에 태워져 검찰청으로 호송됐다.

24일 오전 검찰에 자진 출두하기 위해 명동성당 정문을 나서는 강기훈(27)씨가 박수를 치며 격려하고 있는 명동일대 시민들을 향해 승리의 손가락표시를 하고 있다. 〈변재영 기자〉

단식 한상렬·이수호씨 입원

명동성당에서 12일째 단식중이던 국민회의 한상렬 상임공동대표와 이수호 집행위원장은 건강이 악화돼 24일 오후 3시30분께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했다. 이로써 명동성당에는 30여명이 남아 농성중이나 수배자는 전민련 인권위원장 서준식씨 등 3명뿐이다.

한씨 등은 이날 명동성당에서 요청한 의료진의 검진을 받은 뒤 "우려할 만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고 이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초진을 담당한 장윤식(38) 내과전문의는 "겉으로 보기에 별다른 이상은 보이지 않고 있으나 정확한 진단을 위해 혈액·소변을 채취, 검사하고 있으며 심전도검사와 엑스선 촬영도 한 예정이라며 "앞으로 하루 정도 경과를 지켜 본 뒤 내일 오후께 입원치료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감실 신부는 한씨 등을 검진한 의료진의 요청에 따라 생명보호 차원에서 한씨 등에게 입원을 권했고 이들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전영장이 발부된 이들의 신병처리와 관련, "이들이 회복되는 대로 관할서면로 구속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준식씨 사전영장

서울시경은 지난 23일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전민련 인권위원장 서준식(43)씨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1988.4.18제3종우편물(가)급인가) 제960호

검찰 '유서대필' 수사방향 큰관심

김기설씨 유서대필 용의자로 지목돼온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27)씨가 24일 검찰에 출두함에 따라 앞으로 검찰의 수사방향과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필적감정과 김씨 여자친구 홍미부개(25)씨 등의 진술을 통해 강씨의 대필혐의를 뒷받침할 근거들을 상당히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유서엄 예문 등기나 원시·장소 등 구체적인 범행행위에 대해서는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던 데도이의 전민련 제출 과정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16~17명의 조사대상자를 선정, 신병확보에 나섰다. 이 가운데 김씨와 강씨의 주변인물들인 임근재·이지혜·이방이씨 등 3~4명은 이미 한차례 검찰이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어서 이들이 진술에 유리한 새로운 사실을 밝힐 것인지는 의문이다.

또 나머지 소환대상자들 가운데 대다수도 그동안 언론의 취재, 한국교회협의회(NCC) 인권위 산하 진상조사단의 조사 등을 통해 자신이 간계된 부분에 대해 여러차례 진술해 검찰의 추가사실 확보에 별 보탬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전민련과 NCC조사단은 이미 이들의 진술을 보태로 "강씨가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까지 했다. 숭의여전 학생들의 경우 검찰은 이들이 제시한 필적이 조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소환조사를 벌였으나 무혐한 단서를 잡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이 지금까지의 진술을 번복하지 않는한 검찰은 참고인 조사에서 결정적인 진술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인들의 소환가능성과 관련, 전민련 인권위원장 서준식씨는 "강씨가 자진출두한 마당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참고인들이 자진출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으나 "검찰은 이들이"이미 강제한새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밝혀 빠른입장을 보였다.

검국 검찰은 강씨로부터 '자백'을 받아 내는 것이 이 사건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필적감정과 유서 등을 비롯한 참고인들의 진술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강씨 집에서 입수한 필적가운데 유서, 업무일지 등과 동일해 보이는 글씨를 확대, 음음 대조시켜놓은 사진 1백여장을 만들어 놓았으며 조사가 백에 부다질 경우 후씨와의 대질신문도 가질 예정이다.

(일보 기자)

강씨 진술·새증거제시가 열쇠

참고인 조사 활용…16~17명 신병확보 나서

하고 있어 스강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거나 스참고인들로부터 범행 정황에 대한 유리한 진술을 얻거나 스새로운 물적 증거를 찾아야 할 입장에 서 있다.

이 가운데 검찰은 특히 강씨로부터 직접 범행에 대한 시인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강씨는 검찰이 유서대필혐의 수사 발표가 있은 뒤 꾸준히 출두 직전까지 일관되게 결백하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검찰이 강압수사를 펼 경우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해 검찰이 '자백'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스김씨의 분신전 행적 스수첩의 보관사실 스김씨 분신 뒤에 강씨 주도로 이뤄졌다는 '대책회의' 스송씨여전 학생들이 김씨의 필적이라며 제시한 필적감정 등 새로운 물적 증거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그동안 시녀동 구입 경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으나 이렇다 할 단서를 잡지 못한 상태여서 강씨의 '자백'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참고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중요하게 비오를 것으로 보인다.

참고인들의 소환가능성과 관련, 전민련 인권위원장 서준식씨는 "강씨가 자진출두한 마당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참고인들이

강기훈씨 자진출두 이모저모

6.25

"말 한게느낄때 노래불러"

○…강기훈(27)씨는 24일 오전 '자진출두에 즈음하여'라는 기자회견 내용을 읽어나가던 중 "진실하기에 떳떳하면서도 한편으론 하소연할 길이 없는 억울함과 무기운 마음이 교차됨을 숨길 수 없습니다"라는 대목에서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히다가 잠내 고개를 파묻고 흐느끼는 태도를 다시 보였다.

이에 자리를 같이한 한상열 국민회의 상임대표는 "강씨는 자신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이 슬퍼서 운 것만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기대한 관력에 의해 지절리지는 음모와 모략으로 진실과 양심이 파묻혀버리거나 말을까 하는 우려때문"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한 상임대표는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말의 한계를 느낄 때 우리는 노래를 부르게 된다"라며 〈남광 속의 두마리 새〉라는 노래를 비장한 목소리로 온몸에 힘을 주어 불렀다.

이수호씨 등과 작별인사

○…기자회견을 마친 강씨는 함께 동석했던 국민회의 이수호 집행위원장 등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작별인사를 했다.

강씨는 또 장상 앞에서 경감실 신부화도 만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며 작별인사를 나눴다.

그러는 동안 서울전 소속 대학생 30여명은 〈우리 승리하리라〉 〈임을 위한 행진곡〉 〈동지가〉 등의 노래를 부르며 강씨를 배웅했다.

강씨가 장상 정문을 나와 일구 쪽으로 길이 내려가자 시설물수대 소속 사복형사 30여명이 일제히 달려들어 최재진등을 밀어낸 뒤 강씨를 대기중이던 호송차에 실었다.

강씨 어머니 "진실 믿는다"

○…기자회견 내내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던 강씨의 어머니 전태림(56)씨는 아들이 검찰수사

"진실 꼭 밝혀질 것"여유

○…생중생당은 비나 20분만에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한 강기훈씨는 구치감에 들어 가기 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심"이라고 말했다.

수갑을 찬 채 5명의 수사관에 이끌려 구치감에 들어선 강씨는 비교적 여유있는 모습이었다.

한인 어머니 전태림씨는 아들 강씨가 구치감에 수감된 직후 박연철 변호사, 강씨의 여자친구 이아무개씨 등과 함께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강력부 신상규 검사실에 들러 아들이 감이임을 되새크와 운동복 하의를 전달했다.

구속절차 지검 구치감서

○…강신욱 서울지검 강력부장은 강씨가 검찰청에 도착하기 전인 오전 9시30분에 "수사과정의 변호인 입회여부를 생각해 봤으나 진술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으며 27살의 민피자를 상대로 전례에 없던 대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입회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부장검사는 또 "강씨의 구속절차는 서울구치소가 아닌 서울지검 구치감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청장에 유치장소가 특정돼 있지 않아 법률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맡은 7명의 강력부 검사들도 워낙일인 지난 23일 모두 검찰청사에 나와 수사에 대비했으며 24일에도 본부의 부장검사실을 드나들며 서로 만나 수사대책을 논의하는 등 이 사건이 갖는 무게를 실감케 했다.

자술서 쓰지않자 검찰긴장

○…검찰은 강기훈씨가 처음부터 입에 입을 열지 않고 자술서도 쓰지 않자 다소 긴장된 분위기이다.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강신욱 부장검사는 "강기훈씨 입을 열기위해선 인내가 필요할 것 같다"며 당분간 방법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강 부장검사는 "강씨가 끝내 입을 열지 않더라도 공소유지에 필요한 진술서는 작성할수 있다"며 그럴 경우 검찰이 더 유리해질 것이라고 했다.

"결백심중 굳어 변호맡아"

○…박연철 변호사는 검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NCC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맡다가 강씨가 결백하다는 심증이 굳어져 지난 강씨의 변호를 맡게 됐다"면서 "검찰과 법원이 공정하게 수사와 재판을 진행한다면 강씨의 결백이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 천주교 정평위의 한사람 자리으로 김수환 추기경의 뜻에 따라 검찰청에 왔다는 강수연 변호사는 "천주교학에서도 변호사들과 신부들을 중심으로 이 사건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강씨의 변호인단과 긴밀히 협조, 진실이 밝혀지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회견도중 '억울함'대목서 끝내 울음

처음부터 입다물어 "밤샘조사 계속"

관에 의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아들의 진실함을 믿는다"며 끝까지 의연함을 잃지 않았다.

전씨는 "정말로 유서를 대필했는지 한마디 물어보지 않고 기훈이도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30년 가까이 키워오면서 지지른 기훈이를 나무 잘 할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적으로 믿었다"고 말했다.

전씨는 또 "서강대 박홍 총장이 운동권 사람들은 예정검찰을 에 검찰다고 말했으나 나는 이럼 믿지 않는다"며 "우리 기훈이는 좋으한 환경에서 자라나지는 못했어도 4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가문과 40여년 동안 교직에 몸담고 있는 아버지 덕에서 정직하고 겸소하게 자랐다"고 말했다.

보 1991년(檀紀4324年)6월25일 火요일 제9면 【2】

姜씨 계속 묵비권

검찰 철야조사 代筆-수첩변조 여부 함구

1991. 6. 25 한 제9면

遺書수사, 公正이 생명

社說

朝鮮日報 1991년6월25일 火曜日(陰 五月十四日 丙寅) ①

姜씨 이틀째 입다물어

필적감정 자술서 작성도 거부

수사사항 아닌것만 응답 시작

洪양과 대질신문도 검토

투명창 뒤인회의 집행위원장이 24일오후 발인상태에서 병원에 옮겨지고 있다. <異鄕記者>

明洞성당 농성 사흘상 마무리

社說

搜査는 搜査다

——신기루犯처리·代案 是非를 보고

묵비권 姜씨에게 불리할수도

검찰 대응방안과 수사방향

심문 응하며 불리할때만 입 다물어야

良心내세워 판결 불복땐 是非 여지만

'91. 6. 4. 수 경향

진술거부 有無罪판결과 무관

姜씨 수사 「묵비권」진통… 검찰대응과 전망

"감정결과·情況등 종합… 유죄 立証 자신"

法차원떠나 動機·배후세력 조사엔 부담

'91. 6. 4. 수 경향

姜씨 말문열어…"代筆안해"

이틀째 조사 「말맞추기」회동 2명도 소환

한 겨 레

강씨 유서대필 부인

'91. 6. 4. 수. 한겨레

병력 간단히 자술 오늘새벽 서울구치소 수감

검찰, 참고인 17명 신병확보에 박차

강기석씨 분신자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신욱)는 30일 강씨 유서대필혐의로 구속된 전민련 총무부장 장기훈(27)씨가 유서대필을 부인하는 일부 발언 외에는 제작 진술 거부함에 따라 신문에 응하도록 설득하는 한편 참고인들을 소환조사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경향신문 MBC)

강씨는 강씨가 이날 새벽무렵 일상적인 내용에 대해 입을 열기시작, 저녁무렵는 수사요원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답변을 시작했으나 말씨마저 불쾌할 만 자제한 자신의 현재시점대한 수사가 계속되면 자칫 모 제에서 진술을 뒤집기 나오게 될 것을 염려, 대부 분의 진술을 거부, 한권 이라도 팔리면 많이 수사가 끝보지를 원치 않아"라고 말 대답을 이틀이나 계속해 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자술서를 쓰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고 수사관계자는 말했다.

강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강씨 어머니 전태옥(37)씨와 함께 연희동 자택을 나와 서울구치소에 도착, 오후 1시 20분께 서울지검 강력부 수사관들에 의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으며 강씨를 구치소에서 대리 조사하고 다시 보내는 형식을 밟기로 했다.

강씨는 전민련 이날 강씨가 속성한 자술서가 전대 협회의 다르게 제주 지도자로 조사되었다는 관단에 따라, 협력은 현재로도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보고, 다이상 강씨 입장에 대한 강압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강씨가 진술을 시작하더라도 유서대필을 계속 부인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보고 강씨에 대한 직접조사와 함께 참고인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강씨를 연희동 단국대 후문 이정이(28·여)씨를 이날 오전 강씨가 입원 검사받고 연행에 동동상담에 있는 부인의 강씨 병의 동에 관해 3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또 지난 24일 오후에도 강씨의 단국대 후배인 이정이(28·여)씨를 비밀리에 소환, 강씨 분신 뒤 강씨의 여자친구 홍사기씨(28)에게 강씨 강이 2억 가량 빌린 보일에서의 대화내용 등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이정이는 검찰조사에서 "강씨등과 함께 동거를 만난 것은 홍씨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검찰수사에 대비한 대책회의를 가지지 않았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저녁도 원래 이 사건과 관련, 소환대상에 올라있는 17명 가량의 참고인들이 대다수 참석해 이들을 불는 대 주력하고 있으나 이미 이들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소환조사가 진술된 만큼 더 이상 소환할을 발부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강씨의 묵비권 행사 자체가 연보인들과의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고 강씨가 진술을 시작할 때까지 연보인 등 관련 참고인들 신병확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씨 면회객 강제연행

20일 정오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검 청사 1층 민원실 입구 안팎에서 강기석씨 유서대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강기훈(27)씨를 연희동의 본 강씨의 대학후배 이정이(25·여·숙명학원 강사)씨가 이 사건을 수사중인 강력부 수사관 2명에 의해 강제로 10분 정사당로 연행돼 3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다.

이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강씨의 어머니 전태옥(37)씨와 함께 연희동 자택을 나와 서울지검 강력부 사건 접수실에 도착, 오후 1시 20분께 강씨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으며 강씨를 구치소에서 대리 조사하고 다시 보내는 형식을 밟기로 했다.

검찰은 한편 이날 강씨가 작성한 자술서가 전대 협회의 다르게 제주 지도자로 조됐다는 관단에 따라, 협력은 현재로도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보고, 다이상 강씨 입장에 대한 강압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씨가 진술을 시작하더라도 유서대필을 계속 부인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보고 강씨에 대한 직접조사와 함께 참고인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강씨를 연희동 단국대 후문 이정이(25·여)씨를 이날 오전 강씨가 입원 검사받고 연행에 동동상담에 있는 부인의 강씨 병의 동에 관해 3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또 지난 24일 오후에도 강씨의 단국대 후배인 이정이(25·여)씨를 비밀리에 소환, 강씨 분신 뒤 강씨의 여자친구 홍사기씨(28)에게 강씨 강이 2억 가량 빌린 보일에서의 대화내용 등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이정이는 검찰조사에서 "강씨등과 함께 동거를 만난 것은 홍씨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검찰수사에 대비한 대책회의를 가지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저녁도 원래 이 사건과 관련, 소환대상에 올라있는 17명 가량의 참고인들이 대다수 참석해 이들을 불는 대 주력하고 있으나 이미 이들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소환조사가 진술된 만큼 더 이상 소환할을 발부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강씨의 묵비권 행사 자체가 연보인들과의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고 강씨가 진술을 시작할 때까지 연보인 등 관련 참고인들 신병확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씨 진술거부로 초조한 검찰

전민련 총무부장 장기훈(27)씨는 검찰에서 이틀 연속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가, 강씨의 묵비권 행사는 결국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강씨가 검찰에 처해 구속되 뒤 이틀째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김기석씨 분신자살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초조함이 난관에 부딪쳐 있다.

특히, 강씨가 유서대필혐의만 있을 뿐 연쇄 이미지 이정기 씨 유서대필을 받는 이들 명단에서 포함고 있는 검찰로서는 궁지에 몰리는 형국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유서대필을 유서작성에서 밝혀내 한 당 변을 통해 유서는 대신 조지 말 말았고 필체사실을 부인했으며 전민련이 제출한 수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강씨가 이날 저녁 자신의 행적과 관련해 계주 간단한 내용의 자술서를 썼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강씨에 대해 가능한 대로 진술을 받아 주려고로나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 한 뒤 30일 새벽 2시께 강씨를 서울구치소에 수감했으며 앞으로 강씨를 구치소에서 대리 조사하고 다시 보내는 형식을 밟기로 했다.

검찰은 한편 이날 강씨가 작성한 자술서가 전대 협회의 다르게 제주 지도자로 조됐다는 관단에 따라, 협력은 현재로도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보고, 다이상 강씨 입장에 대한 강압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씨가 진술을 시작하더라도 유서대필을 계속 부인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보고 강씨에 대한 직접조사와 함께 참고인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강씨를 연희동 단국대 후문 이정이(25·여)씨를 이날 오전 강씨가 입원 검사받고 연행에 동동상담에 있는 부인의 강씨 병의 동에 관해 3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또 지난 24일 오후에도 강씨의 단국대 후배인 이정이(25·여)씨를 비밀리에 소환, 강씨 분신 뒤 강씨의 여자친구 홍사기씨(28)에게 강씨 강이 2억 가량 빌린 보일에서의 대화내용 등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이정이는 검찰조사에서 "강씨등과 함께 동거를 만난 것은 홍씨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검찰수사에 대비한 대책회의를 가지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저녁도 원래 이 사건과 관련, 소환대상에 올라있는 17명 가량의 참고인들이 대다수 참석해 이들을 불는 대 주력하고 있으나 이미 이들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소환조사가 진술된 만큼 더 이상 소환할을 발부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강씨의 묵비권 행사 자체가 연보인들과의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고 강씨가 진술을 시작할 때까지 연보인 등 관련 참고인들 신병확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필적감정만으론 공소유지 의문

강씨 "밀실수사 최선의 방어책" 진술거부

'자백'설득에 역점…홍씨 대질신문이 고비

이 이 사건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해 분기 때문에 발발당 명분 제한 기관원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명제 변호사는 "강씨가 변호인의 조언을 따르지 않고 방어사를 하는 등 강씨에 대해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수사하는 만큼 묵비권 행사는 최선의 방어책"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검찰은 강씨의 묵비권 행사가 그의 조력자 있어라는 생각이 없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 강씨가 구속기간이 끝나는 7월12일까지 이번 검사를 대비해 검찰은 관련인들 수사에 박차를 두고 있다.

최근 강씨를 면회한 강씨의 어

'91. 6. 26. 수 한겨레

姜基勳씨, 訊問에 일부 응해

"代筆안했다"… 主要부분엔 묵비권

수사이틀째, 행적등 상당분량 自述書도 써

'91. 6. 26. 수. 경향

代筆 완강히 부인

姜씨 신문에 조금씩 대답

'91. 6. 26. 수. 한겨레

주요대목엔 계속 묵비권

韓相烈·李秀浩씨도 令狀집행 조사

韓相烈·李秀浩씨 어제 구속수감

'91. 6. 26. 수. 한겨레

情況조서·간접증거로 판단

묵비권 형사事件 유형과 司法절차

姜씨 「代筆」 부인

행적등 자술-주요사항 한구

'91. 6. 26. 수. 중앙

確信犯 체제거부 항의수단 이용

조직원 도피위해 진술 늦추기도

현대당

默秘權

'91. 6. 26. 수. 한겨레

姜씨 혐의사실 부인

진술 시작-핵심부분거부

'91. 6. 26. 수. 중앙

진술강요시 不法

'91.6.17. 한겨레

전민련 서준식씨 부인 편지

전민련 인권위원장 서준식씨의 아내다. 남편은 1971년 '재일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형기 7년을 복역하고 전향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안전법을 소급 적용받아 다시 10년을 추앙이란 죄, 1988년 5월에 출소했다.

남편은 출소 뒤 자신의 유년당한 17년의 삶과 젊음을 안타까워하는 이들에게 "전향해야 할 사상을 가진 적이 없기에 전향서를 쓰지 않았을 뿐이며, 온갖 폭력과 고문을 이겨내고 양심을 지키고 나온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억울한 옥살이 17년뒤 또 수배 언제나 어린 딸 품에 안아볼지

나는 최저임 수배에 없는 학생으로 인해 인생의 황금기라 할 만한 시절을 감옥에서 보내고 나온 남편에게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남편에게 진시일을 위한 법치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한다.

남편은 지난 5월8일 오전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 한 젊은이의 폭력경찰에 대한 죽음의 항거 소식을 접했다.

속이 좋지 않아 죽을 앓고 있던 남편은 시장하는 후배의 문신 소식에 놀라 그대로 수저를 놓은 채 황급히 그의 주선 집으로 달려갔다. 장례식만 끝나면 돌아오겠다던 남편은 고 김기설씨의 장례식은 지른 지 한달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유서대필 사건'이란 조작극을 누구보다 열심히 주도하고 전달경찰을 위해 애쓴 이는 남편을 옥아주려는 의도인이 분명하다. 고민의 유서에서 말하는 선배, 복강보다 소중한 사랑'으로 표현된 내 남편이 '자살 배후조종 혐의'로, 고민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해준, 강기훈씨는 '유서대필, 협의'로, 무엇보다 '폭력살인정권을 규탄하는 죽음의 항거가 '운동권의 교사된 자살행위'로 비하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남편처럼 구속영장은 아랑곳 하지 않고 사실상의 구금과 다름없는 수배조치는 배제되어야 한다.

16개월밖 밖에가 장우순선소리로 "이해"를 찾아내도 정작 그 소리를 그토록 듣고 싶어할 남편은 이제만 더 오랫동안 우리 곁에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김 지 영 (서울 은평구 응암4동 무성아파트 103동 907호)

(4판) 동아 신미년 5월 16일(목요) [13]

'91.5.17. 한겨레

검찰 '유서 필적' 참고인 월 조사하나

김기설씨 분신자살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김씨 유서대필 혐의를 받고 있는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27)씨로부터 구속 3일이 지나도록 대질 혐의에 대한 '자백'은커녕 수사에 단서가 될 만한 구체적 진술을 전혀 얻어내지 못함에 따라 참고인 수사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참고인들은 김씨분신 전 명치와 관련한 몇명밖고는 모두가 수법조작에서, '대필혐의' 등 김씨 분신 뒤에 벌어진 상황과 관련되 있으며 강씨의 '유서대필' 경위와 관련된 직접적인 단서는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정에서 전민련뿐이 아닌 공씨를 참고 나라 김씨의 것이라고 주장할지 알 수 없는 형편"이라며 "유서대필설 배포 한가지만이라도 조작된 것임을 밝혀낸다면 나머지 자료의 증거능력도 함께 배척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혀 유서대필에 대한 수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비쳤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조사에서 "유서대필설모두의 이들이 제출한 필적이 강씨다기 전 전민련에서 하루 동안 보관됐으며 이 사실을 검찰에서 진술하지 않도록 누군가가 종용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유서

'숭의여전생 메모 조작' 수사 주력

전민련제시 자료 증거능력 없애려

참고인은 한명도 없는 상태다.

소환대상에 올라있는 참고인과 조사내용을 관련사안별로 정리해본다.

○'대필혐의' = 강씨와 단국대 동창생들인 김진수 양수연 이영미 이철씨 등이 소환대상자이다. 검찰은 이들이 강씨와 함께 김씨 분신 뒤인 5월10, 12, 13일 세차례에 걸쳐 수사에 대비 입을 맞췄다고 보고 현재까지 이정, 이영미씨를 소환조사했으나 크게 도움이 될 만한 진술은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첩조작 여부 = 소환자는 김씨 분신 전에 수첩을 보았던 이보형씨 등 숭의여전생 3명과 분신 뒤 수첩이 전민련에 보관됐다가 검찰에 제출되기까지의 과정에 관계된 이정씨, 전민련 선전국 부장 원순용씨, 편집실 부장 최재민씨, 전민련 간부 오세중씨 등이다.

이 가운데 숭의여전생 3명은 강씨가 검찰에 출두하기 전에, 이정씨는 출두한 뒤 자각 한차례씩 검찰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 4명에게 검찰에 제출된 수첩을 제시한 결과 몇 명으로부터 "일부 다른 것도 있으나 전체적 기억이 나서 많은 다"는 진술을 받았을 뿐 결정적인 단서는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원순용 최재민씨 등도 이미 제이단계의 자체조사에서 수첩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제출된 수첩의 사본과 비교할 때 별 상이점이 없다고 진술해 놓은 상태에서 검찰 소환조사에서도 특별한 진술이 나오기는 힘들 전망이다.

○관건은 필적 = 전민련에서 제시한 '김씨 필적' = 전민련은 그동안 상당하사 방청년회 명령록 글씨, 숭의여전생에도 등 '김씨 필적' 3종을 공개하면서 이 필적들이 김씨가 직접 쓴 것임을 증명할 사람이 여러명 있다고 밝혔고 검찰도 이를 의지, 숭의여전생 3명을 이번 한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일정에서 전민련뿐이 아닌 공씨를 참고 나라 김씨의 것이라고 주장할지 알 수 없는 형편"이라며 "숭의여전생 배포한가지만이라도 조작된 것임을 밝혀낸다면 나머지 자료의 증거능력도 함께 배척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혀 숭의여전생에 대한 수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비쳤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조사에서 "숭의여전생들모두의 이들이 제출한 필적이 강씨다기 전 전민련에서 하루 동안 보관됐으며 이 사실을 검찰에서 진술하지 않도록 누군가가 종용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숭의

"세차례 모임 수사대비 아니다"

강기훈씨, 핵심부분 계속 진술거부

'91.6.17.토. 한겨레

속보=김기설씨 분신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강신욱 부장검사)는 26일 김씨 유서대필 혐의로 구속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27)씨가 전날 계속부터 부분적으로 진술을 시작함에 따라 이틀간에 걸쳐 1차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다.(2면기사 13면)

검찰은 그러나 강씨가 부분적인 답변을 거절에 하고 있으나 묵비권을 한번씩 철회하지 않고 있어 수사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유서를 대신 쓰지 않았으며 수첩 등에 관해서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했지만 핵심 부분에 대한 관련한 신문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진술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말을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강씨가 김씨 분신 뒤 종로의 한 카페에서 김씨의 여자친구 홍아무개씨와 만난 데 이어 종로의 호프집에서 홍씨, 김진수씨, 이영미씨와 만났고, 그때에도 인근의 한 카페에서 홍씨가 검찰조사를 받는 동안 김진수·이영미·이철씨 등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으나 검찰수사에 대비한 모임은 아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어 강씨는 "김씨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서를 모두 공개하지 않고 감정결과를 조작했다"고 말했다며 강씨 강씨에서 김씨이 양수한 화학노트와 80-90년 전민련수첩은 자신의 것임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강씨의 대학친구인 임철수(28)씨를 검찰청사로 소환해 김씨 분신사실 뒤의 강씨 행적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진술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임씨에 대해서도 양수 수사를 벌였다.

변호인단 검찰불허 비난 검찰 "빠른 시일안 허용"

김기설씨 유서대필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있는 강기훈(27)씨의 변호인인 유현석, 홍성우 변호사 등 17명의 변호인단은 26일 김씨가 강씨의 변호인접견을 허용치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인권에 보장된 권리인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변호인접견을 불허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25일 강철선, 이중재 변호사를 서울지검청사로 보내 강씨와의 접견을 시도했으나 남부검사를 만나지 못한 채 강신욱 강력부장실에 접견신청서를 내고 돌아온 데 이어 26일 오후 5시에 박연철 변호사를 다시 보내 "김보름 기린 씨 조속한 시일 안에 접견이 이뤄지도록 배주겠다"는 답변을 받고 돌아왔다.

洪양 수차례접촉 시인

姜씨 혐의사실은 계속 묵비권

서울지검강력부(홍성태부장검사)는 26일 유서대필 혐의로 구속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27)씨를 불러 김씨 분신사실 전후 수차례 만난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김씨 분신 전날 김씨와 만나 김씨의 여자친구 홍아무개씨 등 3명을 조사, 이들로부터 김씨의 지난달 20일 이후 자살을 암시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을 얻어내고 이들 3명을 다시 불러 김씨 분신 전날 김씨와 만난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김씨 분신 전날 김씨와 만나 김씨의 여자친구 홍아무개씨 등 3명을 만나 김씨 분신 전날 김씨와 만난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姜씨 묵비권철회 어제 변호인접견

「유서代筆」사건 검찰, 주변수사 주력

姜씨 계속묵비권에 진전없어

검찰, 주변수사 주력

'91.6.18.금. 한겨레

서울지검강력부(홍성태부장검사)는 27일 유서대필 혐의로 조사중인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27)가 계속 묵비권을 행사, 수사진전이 지연되자 주변수사에 주력하기로 했다.

검찰은 "강씨가 김씨 분신 전날 김씨와 만나 김씨의 여자친구 홍아무개씨 등 3명을 조사, 이들로부터 김씨의 지난달 20일 이후 자살을 암시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을 얻어내고 이들 3명을 다시 불러 김씨 분신 전날 김씨와 만난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김씨 분신 전날 김씨와 만나 김씨의 여자친구 홍아무개씨 등 3명을 만나 김씨 분신 전날 김씨와 만난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수사 시작되자 세차례모임 是認

姜씨, 洪양수접촉 加筆여부는 불명

洪양 수차례접촉 시인

姜씨 협의사실은 계속 묵비권

姜씨 묵비권철회 어제 변호인접견

「유서代筆」사건

姜씨 계속묵비권에 진전없어

검찰, 주변수사 주력

"대필혐의 벗을 필적20건 보관"

'9. 6. 경. 소. 동아

강기훈씨 어제 첫 변호인 접견

유서대필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27)씨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20여건의 필적 자료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강씨는 27일 오후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처음 접견한 변호인단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날 접견을 마친 변호인단에 따르면 강씨는 오후 6시20분부터 40여분간 서울지검 강력부 신상규 검사 방에서 김황국·장기욱 변호사 등 6명의 변호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분신자살한 김기설씨 필적 등 20여건의 반박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중 1~2건은 유서대필 혐의를 결정적으로 뒤엎어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강씨는 "혼자서 보관해온 이 문건을 검찰수사가 끝난 뒤 법정에서 공개할 생각이었으나 지금 둬버린 형사를 사실상 협박한 만큼 검찰조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다"며 "자료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씨는 현재 이 필적자료가 어디에 있는지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씨는 "진술에 자진출두한 뒤 이틀 동안 잠을 거의 자지 못했고 5월 행적과 관련이 없수 수세에 보관중인 문건 무엇에 대해 자술서를 두번 작성했다"고 밝혔다.

강씨를 접견한 변호인들은 강씨가 얼굴이 조금 야위긴 했으나 비교적 건강하고 여유있어 보였다고 전했다.

변호인들은 이날 접견이 끝난 뒤 검찰측에 다이상 밤샘조사를 하지 말 것과 1주일에 두번 이상 강씨를 접견시켜 줄 것을 요청했고 검찰측은 강씨 수사에 변호인단이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접견에는 17명의 변호인단 중 김황국·장기욱·조영황·박재승·박연월·배승현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서울지검 강력부(강신욱 부장검사)는 이날 강씨가 혐의사실에 대한 부인과 묵비권 행사를 계속함에 따라 지난 2~3년간 강씨가 관여해온 것으로 추정되는 제사 운동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강씨의 당시 필적과 행적에 대한 수사를 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사법적 처벌을 받았던 한 운동단체의 의사들을 강씨 집에서 압수하고 이 단체에 관여한 혐의로 복역중인 노아무개(28)씨를 소환해 의사록의 필적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또 이날 새벽 한때 이 단체에 관여했던 스대 출신 아무개씨를 불러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노씨는 검찰조사에서 "의사록과 관련된 이 단체의 회의에 강씨는 참가하지 않았으며 단체와 강씨의 관련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런 수사는 강씨의 진술이나 이제까지 알려진 참고인들 가운데에서 '유서대필 경위'와 관련한 단서를 찾아내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강씨가 지난 2~3년간 관계해온 운동단체와 제사 활동가들을 통해 유서대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간접증거들을 모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강씨 보관 김씨필적 검찰, 자료제출 요구

'9. 6. 경. 동. 동아

속보=강기설씨 분신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강신욱 부장검사)는 28일 김씨 유서대필 혐의로 수사중인 강기훈(27)씨가 변호인 접견에서 검찰수사 결과를 뒤집을 김씨의 필적 10여점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변호인단과 전민련쪽에 필적들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검찰 참고인두명 소환

'9. 6. 경. 동. 동아

분신자살한 강기훈씨 유서대필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27)씨에 대한 수사를 돕기 위해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검 강력부분 아니라 형사 공안부의 간부들도 수사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이 사건이 갖는 비중을 실감케 했다.

지검의 한 간부는 "강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내 검찰이 주스 손 진단이 아님을 입증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자신간을 보였으나 다른 한 간부는 "광소유지자 국민들을 납득시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라며 "국민들의 의혹까지 해소하지 못할 경우 검찰이 입게 될 타격은 상상을 넘어서는 것도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난동순경 신병 따돌리기…과보호 비난일어

강씨 담당검사 기자 질문에 '묵비권' 행사

'9. 6. 경. 소. 동아에서

선택적 대답에 검찰 짜증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강신욱 부장검사)는 강씨가 '묵비권 행사'라는 비장의 카드로 검찰 수사에 정면 대응하자 크게 당황하고 있다.

강 부장검사는 매일 수사진전 상황을 묻는 기자들에 대해 "나도 수사진전을 위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며 27일부터는 그간 하루 세차례하던 수사결과 브리핑마저 한차례로 줄였다.

강 부장검사는 또 수사상의 주요대목에서 강씨가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해 수사에 진전이 없자 "나도 강씨처럼 애로부터 강씨 고집은 알아준다"며 푸념했다. 강기훈씨는 강 부장검사와 같은 심정인 데다 전민련 총무부장 직책이어서 검찰 주변에서는 'DK특강의 두 강 부장 전투'라며 흥미진진해 하고 있다.

"진성페미론 처벌 불가능"

○…대검은 새도시 불량 페미론 공다으로 입방을 받고 있는 사중인 경기도 회정부 경찰서는 27일 김준영(27) 순경을 시내 모처에서 은밀히 조사하면서 "의정부서에는 신병이 넘어오지도 않았다"고 반정을 부려 김 순경을 과보호하는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

이날 오전 현장에 들른 이인섭 도경국장과 이동춘 의정부서장은 김 순경의 소재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정부서 관내엔 없다" "아마 서울시경에서 조사하고 있을 것"이라며 발뺌했으나 의정부 지청에서 오전 6시20분께 신병이 서울시경에서 의정부시로 넘어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거짓말이 탄로났다.

총기 관리 사후대책 '철벽'

○…치안본부는 김준영 순경 총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27일 전국 경찰에 '부무기강 쇄신, 및 총기관리 철저에 대한 강조지시'를 긴급 시달하는 등 사후대책에 바빴에 부심하고 있으나 대책자체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도 못 미치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이다.

치안본부는 평소 불평이 심하고 정세비관하는 자, 주벽이 심한 자, 변태성격자 등에게는 총기를 지급하지 말고 이미 지급한 총기는 회수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런 방침은 이미 지난해 1월 내려졌던 것의 반복으로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상태이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서 간부들조차 "누구에게는 총기를 지급하고 누구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경찰수뇌부의 '탁상공론'을 꼬집으며 "변태성격자 운운하는 것은 경찰이 사기만 떨어뜨리는 처사"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기존 정부입장 되풀이

○…동력의회 선거 이후 첫 관계부처합동 산업재해대책위원회가 지난 28일 노동부에서 열려 하반기 노사관계 안정기조정착을 위한 중점추진계획을 확정지었으나 대부분의 내용이 입장 인상 한자리수 억제, 법외 노동

농성 마감한 명동성당

교회역할 둘러싼 갈등 커져

주교회의·사제단 '현실참여 정도'에 입장 차이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가 검찰에 출두하고 한상렬 국민회의 공동의장이 수배 피해하면 장이 경찰에 수감된 데 이어 명동성당에서 나와 수배자 신분이던 전민련 인권위원장 서경석 등이 25일 명동에 농민대회 때처럼 결국에 출두함으로써 마무리됐다.

그러나 명동성당 사태는 유서대필 혐의를 받고 있는 강기훈씨 등 국민회의 관계자들의 농성을 둘러싸고 민관계에서는 이들의 퇴거를 공공연하게 요구하고 성당에 경찰 상주를 하용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교회는 어려운 때일수록 용기있고 교회에 은신한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이들을 보호하고 나서는 등 천주교의 진보세력과 보수세력 사이의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점에서 일반의 관심을 모았다. "명동성당 사태, 교회의 공익인정은 문제에 대한 교회의 공익인정은 성당한 논란을 빚었지만 명동성당 수석보좌신부인 정진석 신부 등 주교회의 보좌세력 관계자들이 농성자들에 대해 "성직자의 양심은 현재 사용대교구 주교구 교회인 명동성당의 입장은 현재 사용대교구 운영권을 위임받은 사용대교구 김수환 추기경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환 추기경은 80년대 8월 사용대교구 인사

'9. 6. 경. 동. 동아

그러나 천주교의 보수세력 관동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고 오래 역사에 뿌리도 가지고 있다.

사용대교구 주교구 교회인 명동성당의 입장은 현재 사용대교구 운영권을 위임받은 사용대교구 김수환 추기경에게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환 추기경은 80년대 8월 사용대교구 인사

'9. 6. 경. 동. 동아

명동성당 사태는 유서대필 혐의를 받고 있는 강기훈씨 등 국민회의 관계자들의 농성을 둘러싸고 민관계에서는 이들의 퇴거를 공공연하게 요구하고 성당에 경찰 상주를 하용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교회는 어려운 때일수록 용기있고 교회에 은신한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이들을 보호하고 나서는 등 천주교의 진보세력과 보수세력 사이의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점에서 일반의 관심을 모았다. "명동성당 사태, 교회의 공익인정은 문제에 대한 교회의 공익인정은 성당한 논란을 빚었지만 명동성당 수석보좌신부인 정진석 신부 등 주교회의 보좌세력 관계자들이 농성자들에 대해 "성직자의 양심은 현재 사용대교구 주교구 교회인 명동성당의 입장은 현재 사용대교구 운영권을 위임받은 사용대교구 김수환 추기경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환 추기경은 80년대 8월 사용대교구 인사

'9. 6. 경. 동. 동아

명동성당 사태는 유서대필 혐의를 받고 있는 강기훈씨 등 국민회의 관계자들의 농성을 둘러싸고 민관계에서는 이들의 퇴거를 공공연하게 요구하고 성당에 경찰 상주를 하용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교회는 어려운 때일수록 용기있고 교회에 은신한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이들을 보호하고 나서는 등 천주교의 진보세력과 보수세력 사이의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점에서 일반의 관심을 모았다. "명동성당 사태, 교회의 공익인정은 문제에 대한 교회의 공익인정은 성당한 논란을 빚었지만 명동성당 수석보좌신부인 정진석 신부 등 주교회의 보좌세력 관계자들이 농성자들에 대해 "성직자의 양심은 현재 사용대교구 주교구 교회인 명동성당의 입장은 현재 사용대교구 운영권을 위임받은 사용대교구 김수환 추기경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환 추기경은 80년대 8월 사용대교구 인사

'9. 6. 경. 동. 동아

명동성당 사태는 유서대필 혐의를 받고 있는 강기훈씨 등 국민회의 관계자들의 농성을 둘러싸고 민관계에서는 이들의 퇴거를 공공연하게 요구하고 성당에 경찰 상주를 하용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교회는 어려운 때일수록 용기있고 교회에 은신한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이들을 보호하고 나서는 등 천주교의 진보세력과 보수세력 사이의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점에서 일반의 관심을 모았다. "명동성당 사태, 교회의 공익인정은 문제에 대한 교회의 공익인정은 성당한 논란을 빚었지만 명동성당 수석보좌신부인 정진석 신부 등 주교회의 보좌세력 관계자들이 농성자들에 대해 "성직자의 양심은 현재 사용대교구 주교구 교회인 명동성당의 입장은 현재 사용대교구 운영권을 위임받은 사용대교구 김수환 추기경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환 추기경은 80년대 8월 사용대교구 인사

'9. 6. 경. 동. 동아

명동성당 사태는 유서대필 혐의를 받고 있는 강기훈씨 등 국민회의 관계자들의 농성을 둘러싸고 민관계에서는 이들의 퇴거를 공공연하게 요구하고 성당에 경찰 상주를 하용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교회는 어려운 때일수록 용기있고 교회에 은신한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이들을 보호하고 나서는 등 천주교의 진보세력과 보수세력 사이의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점에서 일반의 관심을 모았다. "명동성당 사태, 교회의 공익인정은 문제에 대한 교회의 공익인정은 성당한 논란을 빚었지만 명동성당 수석보좌신부인 정진석 신부 등 주교회의 보좌세력 관계자들이 농성자들에 대해 "성직자의 양심은 현재 사용대교구 주교구 교회인 명동성당의 입장은 현재 사용대교구 운영권을 위임받은 사용대교구 김수환 추기경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환 추기경은 80년대 8월 사용대교구 인사

'9. 6. 경. 동. 동아

명동성당 사태는 유서대필 혐의를 받고 있는 강기훈씨 등 국민회의 관계자들의 농성을 둘러싸고 민관계에서는 이들의 퇴거를 공공연하게 요구하고 성당에 경찰 상주를 하용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교회는 어려운 때일수록 용기있고 교회에 은신한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이들을 보호하고 나서는 등 천주교의 진보세력과 보수세력 사이의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점에서 일반의 관심을 모았다. "명동성당 사태, 교회의 공익인정은 문제에 대한 교회의 공익인정은 성당한 논란을 빚었지만 명동성당 수석보좌신부인 정진석 신부 등 주교회의 보좌세력 관계자들이 농성자들에 대해 "성직자의 양심은 현재 사용대교구 주교구 교회인 명동성당의 입장은 현재 사용대교구 운영권을 위임받은 사용대교구 김수환 추기경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환 추기경은 80년대 8월 사용대교구 인사

'9. 6. 경. 동. 동아

명동성당 사태는 유서대필 혐의를 받고 있는 강기훈씨 등 국민회의 관계자들의 농성을 둘러싸고 민관계에서는 이들의 퇴거를 공공연하게 요구하고 성당에 경찰 상주를 하용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교회는 어려운 때일수록 용기있고 교회에 은신한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이들을 보호하고 나서는 등 천주교의 진보세력과 보수세력 사이의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점에서 일반의 관심을 모았다. "명동성당 사태, 교회의 공익인정은 문제에 대한 교회의 공익인정은 성당한 논란을 빚었지만 명동성당 수석보좌신부인 정진석 신부 등 주교회의 보좌세력 관계자들이 농성자들에 대해 "성직자의 양심은 현재 사용대교구 주교구 교회인 명동성당의 입장은 현재 사용대교구 운영권을 위임받은 사용대교구 김수환 추기경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환 추기경은 80년대 8월 사용대교구 인사

'9. 6. 경. 동. 동아

사진 영장이 발부된 채 명동성당에서 43일동안 농성을 벌여온 전민련 인권위원장 서준식씨가 29일 오후 2시45분께 경찰에 자진출두하고 있다. 1981. 6. 30. 한겨레 〈변재성 기자〉

서준식씨등 4명 자진 출두

명동성당 농성 끝나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이던 전민련 서준식(43) 인권위원장 등 사전영장이 발부된 재야단체 간부 4명이 29일 오후 서울 중부경찰서에 자진출두한 뒤 서부경찰서 등에 수감됐다. 이로써 명동성당 농성사태는 43일 만에 마무리됐다. 〈관련기사 14면〉

서준식씨는 이날 자진출두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김기설씨 유서대필 혐의를 받고 있는 강기훈씨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보관중인 자료를 검찰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검찰이 지금까지 전민련에서 제공한 김씨의 수첩과 업무일지를 조작이라고 주장해왔으므로 더 이상 자료를 제공할 필요를 못 느낀다"며 "모든 자료는 법정에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서씨는 또 "강기훈씨가 검찰에 출두하기 전날인 23일 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강씨 사건의 진상규명활동에 발을 묶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에 구속된 뒤에도 최대한 강씨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578号 (第3種郵便物(7)認定可) 第21678号

囹圄17년…석방 3년만에 再구속

6.30. 경향

어제 경찰에 검거된 徐俊植씨

◇徐俊植씨

「민족통일청년단사건」과 함께 명동성당에서 농성으로 투쟁해 17년간 수감생활을 했던 徐俊植씨(43)가 3년만인 29일 다시 구속됐다. 徐씨는 최근 수여, 일간 「국민회의」 관계자를 주도해 유럽의 로 김재규에 의해 이미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徐씨는 또 전민련 사회부장 송월옥씨의 자살과관련, 검찰의 조사대상에 올라 있기도 하다.

재일교포2세인 徐씨는 지난86년 모국에서 발견돼 공부하기위해 (분)독학 장기영(鄭鎭) 생활을 했을 외 이듬해인 88년 서울 다. 이듬해 모국유학생 간으로 활동하다 이날 자진출 대법원에 의해 확정됐다. 徐씨 형사사건으로 7년 구속된 는 그동안 3년여인 71 그는 7년을 선고 받았 장리신 현조직인 전민련인 보도진과 만나면서 도움을 보통 8일간의 북한체류로 결 안전법이 폐지되면서 자신 의 생애중 88년5월28일 출 옥했다.

徐씨는 시험신고를 받았던 徐勝 전민련에서 활동하으로써 한일을 강조지 못했다. 徐씨는 『출옥후 어렵게 가운 90년 3·1절사도 20년 나고 결국 유서대필혐의자 맞에 붙려보았다』 徐俊植씨는 출옥후에도 「서울올림 으로 투쟁할 받으면서 육습보다 더 아픈 이 형! 이라는 구절이 있기도 했다.

徐씨는 이날 수시로 아오면 말을 부동피워 산 보통 8일간의 북한체류로 결 안전법이 폐지되면서 자신 의 생애중 88년5월28일 출 옥했다.

「철수」 임박하자 「어렵게 가꾼 가정」 걱정

명동성당 농성때 주위에 斷食法 소개도

〈변재성 기자〉

「국민회의」、明洞성당서 철수

徐俊植씨등 사전令狀 4명 모두 연행

6.30. 경향

42일만에

명동성당에서 농성해온 徐俊植 전민련 인권위원장(43) 李東龍 「국민회의」 부의장(38) 崔鍾吉 「국민회의」 학술위원(42) 李泰孝 서노협의 조직부대행(36)등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4명이 29일 자진출두형식으로 성당을 나와 검찰에 검거됐다. 이로써 명지대생 강경헌 사건이후 지난달18일 부터계속된 전민련 인권위원장 은신생활이 완전히 끝났다.

徐씨등은 이날 오후 2시 45분쯤 성당안에서 朴炳圭 목사 韓勝憲변호사 金仁淑 중앙대교수등 3명과 함께 순형중앙차를 타고 중부경찰서로 출두하는 형식을 취했으며 「검찰은 성당안에서 사복경찰관 1명을 이동시켜 연행했다.

검찰은 중부 경찰서에서 이들4명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절차를 마친후 서울송파 서부·동대문경찰서 등 3개 경찰서유치장에 나누어 수감했다.

徐씨등은 출두하자 농성중인 문화관건물 2층에서 기자들을 만나 『상반기 투쟁을 이날로 마무리 짓고 결론에 올라, 법정에서 민주화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徐씨등은 찬목사등을 통해 수배되지않은 성당의 나머지 농성자들의 신변보장을 요구했으며, 검찰은 이에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않았으나 徐씨등이 출두한뒤 농성자들이 성당을 빠져나가는 것을 목인했다. 〈관련기사18면〉

파고다 국민대회 무산

千여명 建大옮겨 집회

「국민회의」는 29일 오후

참고인 대부분 잠적… 규명 난관

姜씨「代筆수사」 7일째

徐俊植씨 밤샘조사

서울지검 강력부는 30일 전민련 홍보부장 徐俊植씨의 유서대필사건과 관련, 전민련 인권위원장 徐俊植씨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혹독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徐씨를 상대로▲송광옥씨 분신직후 전민련 업무일지를 姜씨가 쓰던것이라는 확인서와 함께 검찰에 제출한 정영▲전민련 이 여사 徐씨것이며 제출했던 수첩의 보관경위 및 이수철이 송씨것이 분명하다며 관련증거물을 뒤지었던 이유등에대해조사 했다.

검찰, 徐俊植씨 조사

[서울지검 강력부] 송광옥씨 분신사건과 관련 유서대필 혐의로 현재 검찰에 구속 조사중인 강기훈씨가 중대한 인권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강씨가 구속되기 전인 지난 5월 30일 구성돼 6월12일까지 2주에 걸친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다.

조사위원회는 분신현장 답사, 서강대 박홍총장 면담, 김기설씨 행적과 관련한 목격자들의 증언 청취, 범국민대책회의측의 보고, 검찰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취합했다. 조사위원회는 또 검찰측에도 보관중인 증거자료 열람 및 설명을 요청하고, 김기설씨의 유서사본과 강기훈씨의 자필을 해외전문감정기관에 필적감정을 의뢰했다.

그러나 조사위원회는 검찰의 강압적 구속집행이 임박했던 지난달 15일 검찰면담과 해외필적감정 결과를 접수하지 못한채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원회의 중간조사 결과 중 파연 강기훈씨가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했는가의 여부와 관련된 의문의 상당부분을 풀어줄 5월4일에서 8일사이 양씨의 행적조사 결론을 요약 발췌한다. 또 검찰의 강씨 유서대필 혐의 결론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의견도 함께 싣는다.

김기설씨의 행적

5월4일 밤부터 김씨가 분신한 8일 오전8시7분사이의 김씨 행적중 가장 알 수 없는 부분은 8일 오전5시30분경부터 8시7분사이이다. 그 이외의 시간은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해 행적 대부분이 입증될 수 있다.

김씨는 자신의 분신계획을 전민련동료들에게 밝히지 않고 5일밤 방송통신대 써클 소리새벽 회원 송국영, 이지혜에게 최초로 연급했다. 이틀뒤인 7일밤 김씨는 여자친구 홍성은에게 확고한 결의를 가지고 자신의 분신계획을 통고했다. 그러나 그외의 전민련간부와 사전협의한 기미는 없고 5월5일부터 8일사이에는 김씨와 강기훈씨가 서로 만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또 5일부터 7일사이에 어머니의 묘소에 다녀온 것으로 짐작된다. 이 부분은 김씨의 행적중 알려지지 않은 시간에 이루어 졌을 것이다.

김씨가 언제 어디서 유서를 작성했는지는 유서의 필체가 속필로 급히 작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김씨가 분신당일 이전에 작성했다면 유서는 정자체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더 많다. 또 분신현장의 정황증거로 볼때 현장 도착전에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강기훈씨의 행적

강기훈씨의 행적은 매우 간명하게 확인되는데 5월5일부터 8일사이에 김기설씨를 만나지 못했다.

검찰은 유서대필을 은폐하기 위해 전민련간부들이 김씨 분신이후에 모임을 가졌다고 발표했으나 강기훈씨가 자리를 같이한 이 모임은 김씨 친구들의 모임으로 유서대필을 음모하는 모임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강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필했다면 김씨는 강씨에게 자신의 분신계획을 밝혔을 것이며 따라서 분신시간과 장소를 강씨가 미리 알았고 분신에 필요한 준비물을 챙기는 것을 도와줬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그와같은 일이 일어 났을는지에 관해서는 강씨의 진술이나 김씨의 행적을 대비해 볼때 추측될만한 근거를 발견하기 힘들다.

검찰의 유서대필 결론에 대한 의견

검찰은 김씨의 친구인 홍성은씨로부터 유서대필의 유력한 증거가 되는 진술을 받고 증거보전절차까지 마쳤다고 하나 홍씨가 한밤중에 불법연행돼 철야 수갑을 받는 등인위협과 회유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검찰은 홍씨의 진술이 진실이 탄로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김씨의 군복무시절 필적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것과 유서가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없고, 전민련이 제출한 김씨의 수첩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그 실물을 기자들에게 확인시켜 준 바는 없다.

전민련측에서 김씨의 필적을 수집 제시했으나 검찰은 이 필적의 진정성과 동일성에 관해 감정해 보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대단히 편협하고 불공정한 자세이다.

"분신전 강씨 만난적 없다"

기독교인권위 '유서대필' 조사 중간발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산하 '김기설씨 분신사건경위조사위원회(위원장 박형규목사)'는 지난달 15일 김기설씨분신 및 강기훈씨의 유서대필혐의와 관련한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중간조사결과에서 조사위원회는 "여러가지 정황증거로 볼때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는 심증을 갖게 됐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검찰이 강기훈씨에 대해 자살방조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극도의 인권침해행위"라고 결론을 내렸다.

조사위원회는 김기설씨 분신사건과 관련 유서대필 혐의로 현재 검찰에 구속 조사중인 강기훈씨가 중대한 인권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강씨가 구속되기 전인 지난 5월30일 구성돼 6월12일까지 2주에 걸친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다.

조사위원회는 분신현장 답사, 서강대 박홍총장 면담, 김기설씨 행적과 관련한 목격자들의 증언 청취, 범국민대책회의측의 보고, 검찰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취합했다. 조사위원회는 또 검찰측에도 보관중인 증거자료 열람 및 설명을 요청하고, 김기설씨의 유서사본과 강기훈씨의 자필을 해외전문감정기관에 필적감정을 의뢰했다.

그러나 조사위원회는 검찰의 강압적 구속집행이 임박했던 지난달 15일 검찰면담과 해외필적감정 결과를 접수하지 못한채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원회의 중간조사 결과 중 파연 강기훈씨가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했는가의 여부와 관련된 의문의 상당부분을 풀어줄 5월4일에서 8일사이 양씨의 행적조사 결론을 요약 발췌한다. 또 검찰의 강씨 유서대필 혐의 결론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의견도 함께 싣는다.

두사람 행적달라 대필가능성 없어

'공동' 관례깨고 단독감정맡겨 의혹

김기설씨의 행적

5월4일 밤부터 김씨가 분신한 8일 오전8시7분사이의 김씨 행적중 가장 알 수 없는 부분은 8일 오전5시30분경부터 8시7분사이이다. 그 이외의 시간은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해 행적 대부분이 입증될 수 있다.

김씨는 자신의 분신계획을 전민련동료들에게 밝히지 않고 5일밤 방송통신대 써클 소리새벽 회원 송국영, 이지혜에게 최초로 연급했다. 이틀뒤인 7일밤 김씨는 여자친구 홍성은에게 확고한 결의를 가지고 자신의 분신계획을 통고했다. 그러나 그외의 전민련간부와 사전협의한 기미는 없고 5월5일부터 8일사이에는 김씨와 강기훈씨가 서로 만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또 5일부터 7일사이에 어머니의 묘소에 다녀온 것으로 짐작된다. 이 부분은 김씨의 행적중 알려지지 않은 시간에 이루어 졌을 것이다.

김씨가 언제 어디서 유서를 작성했는지는 유서의 필체가 속필로 급히 작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김씨가 분신당일 이전에 작성했다면 유서는 정자체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더 많다. 또 분신현장의 정황증거로 볼때 현장 도착전에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강기훈씨의 행적

강기훈씨의 행적은 매우 간명하게 확인되는데 5월5일부터 8일사이에 김기설씨를 만나지 못했다.

검찰의 유서대필 결론에 대한 의견

검찰은 김씨의 친구인 홍성은씨로부터 유서대필의 유력한 증거가 되는 진술을 받고 증거보전절차까지 마쳤다고 하나 홍씨가 한밤중에 불법연행돼 철야 수갑을 받는 등인위협과 회유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검찰은 홍씨의 진술이 진실이 탄로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김씨의 군복무시절 필적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것과 유서가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없고, 전민련이 제출한 김씨의 수첩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그 실물을 기자들에게 확인시켜 준 바는 없다.

전민련측에서 김씨의 필적을 수집 제시했으나 검찰은 이 필적의 진정성과 동일성에 관해 감정해 보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대단히 편협하고 불공정한 자세이다.

原點맴도는 「筆跡」수사

美씨 출두 1주일째

협의 부인하고 참고인들도 잠적
"情況증거확보, 큰소리만 되풀이

지난달 24일 검찰출두직전 기자회견을 하는 류홍희씨. 주속한기를 닦고 있다. 민주당에서 3일쯤 1차 참고인 조사

유서代筆說 검토

「민주 민중 연합」 결성 在野5단체 수사착수

강기훈씨 비방 내용 검찰 내부문건 물의

서울지검 '대필진범' 단정 회람뒤 서명받아

'91. 7. 2. 한. 한겨레

분신사망한 김기설씨의 유서대필 혐의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27)씨를 구속수사중인 서울지검이 유서대필에 관한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강씨를 진범으로 단정하는 내부문건을 만들어 이를 모든 관련검사한테 회람시키고 있음이 1일 밝혀졌다.

서울지검은 지난달 중순에 전 총무부장 회의에서 전체기 검사장이 한 강씨 관련 혐의내용을 내놓아 회람을 돌린 데 이어 전체 검사와 직원들에 회람한 뒤 서명날인하도록 했다.

전 검사장은 이 '회람을 혐의문'에서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필한 확실한 범인이며 △명동성당에서 농성하는 동안 각종 증거자료를 조작했고 △거짓말을 해 천주교신부와 순진한 가톨릭교인들을 속이고 있는 '교활한 인물'이라고 비난하고 "유서대필 혐의를 벗기 위해 이들을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두 4쪽으로 돼 있는 이 혐의문에서 전 검사장은 "이 사회에는 천사와 악마가 공존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국가최고 권력 집행기관의 자격으로 이런 '악마'를 응징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 검찰직원들이 강씨를 유서대필 진범으로 확신한 상태에서 동요없이 수사에 임하라고 당부했다.

전 검사장은 이어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강기훈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필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다"며 "강씨는 사건 직후 각종 자료를 조작했을 뿐더러 '대책회의'까지 열어 증거를 인멸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런 검찰의 내부 회람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강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고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검찰책임자라도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필했다고 단정하고 이를 부하직원에 알리는 행위는 온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서준식씨 조사

속보=김기설씨 분신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강신욱 부장검사)는 지난 30일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27)씨의 유서대필 혐의와 관련, 전민련 인권위원장 서준식(43)씨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서씨는 김씨가 유서를 한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는 동료투쟁기 전에 언론사 등에 밝혔던 말을 그대로 되풀이해 특별한 진술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영미씨 대공분실 연행

김기설씨 유서대필 공방과 관련, 검찰의 집요한 조사를 받았던 이영미(25·속성학원 강사)씨가 1일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강서구 염창동 속성학원에서 경찰에 연행돼 서대문구 홍제동 치안본부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씨 집에서 압수한 분건과 관련, 이씨에 대한 조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대필 진범 강씨 검찰 단정 회람

'유서대필' 수사 검찰 고민

김기설씨 유서대필 혐의로 사전영장이 청구됐던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27)씨가 출두한 지 일주일째를 맞는 1일 현재 서울지검 강력부는 예상과 달리 수사에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하자 매우 침체된 분위기다.

강씨와 서준식씨 등 일부 참고인의 수사를 맡은 2명의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강력부 검사들도 매일 자정이 넘도록 청사에 남아 함께 수사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나 소환대상에 올라 있는 참고인들을 찾으려 보낸 수사관들로부터 연락오기를 기다리는 것외에 뚜렷이 할 일을 찾지 못하고 초조해하는 모습이다.

몇몇 검사쪽에서는 제이에서 이 사건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프랑스 제3공화국 당시의 드레퓌스 사건을 다룬 책이 돌아다니는 모습도 눈에 띈다.

검찰은 강씨 출두 이전에 확보한 필적감정 결과외에 지금까지 유서대필 경위나 수첩조작 여부, 분신전 집회 행적 등에 대해 이렇다할 수사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필적감정의 공신력을 확신하고 있지만 전민련쪽이 법정에서 제출하겠다는 '반대필적'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강씨의 혐의에 대한 보증은 현재로선 확실하지 않은 형편이다.

검찰은 유서를 대필한 것이 확실하다는 심증과 함께 지금까지 나타난 증거만으로도 공소유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아직 기소하기까지 13일이나 남았으니 지켜봐달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제이쪽은 아니라 제조법조계에서도 이대로라면 기소 여부를 제고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우려의 입장표명을 가능한 한 자제하고 있는 검찰과 달리 법원쪽은 증거조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검찰의 공신력을 유지하는 길이 아니겠느냐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다.

물론 이런 입장이 앞으로의 수사진전을 고려하지 않은 것임은 틀림없다.

강신욱 강력부장검사는 "강씨가 계속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참고인들도 이 상태로 계속 버티는 것밖에 없다"고 말해 기소는 물가피할 전망이다.

기소 전 수사만기 2주일을 앞두고 법조계는 검찰이 계란을 통해 공신력을 확고히하는 결과를 얻을지 아니면 송두리째 뒤흔드는 결과를 낳을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기소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강력부를 긴장감 속에 지켜보고 있다.

〈임범 기자〉

특사경

김기설씨 유서대필 혐의로 사전영장이 청구됐던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27)씨가 출두한 지 일주일째를 맞는 1일 현재 서울지검 강력부는 예상과 달리 수사에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하자 매우 침체된 분위기다.

강씨와 서준식씨 등 일부 참고인의 수사를 맡은 2명의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강력부 검사들도 매일 자정이 넘도록 청사에 남아 함께 수사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나 소환대상에 올라 있는 참고인들을 찾으려 보낸 수사관들로부터 연락오기를 기다리는 것외에 뚜렷이 할 일을 찾지 못하고 초조해하는 모습이다.

몇몇 검사쪽에서는 제이에서 이 사건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프랑스 제3공화국 당시의 드레퓌스 사건을 다룬 책이 돌아다니는 모습도 눈에 띈다.

강기훈씨 여자친구 편법연행

검찰 47일전 자택수색…보안법 적용

'91. 7. 3. 수. 한겨레

치안본부는 강기훈씨 유서대필 관련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이영미(25·여·숙명여대 강사·서울 강서구 염창동)씨를 지난 1일 연행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벌인 뒤 2일 오후 풀어줬다.

치안본부 관계자는 "지난 5월 16일 강기훈씨의 여자친구인 이씨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몇권의 문제서적과 정세분석문건이 나와 수사중이나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치안본부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지검 공안부는 이씨의 연행에 대해 강기훈씨가 이미 이적단체로 사법처리된 혁명적노동자계급투쟁동맹(혁노맹)에 관여해온 것으로 보여 이씨도 조사했으나 혐의사실이 나타나지 않아 풀려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달 16일 서울지검 강력부가 김기설씨 분신사건 수사를 위해 이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입수한 운동관련문건 몇종을 강력부로부터 넘겨받았다"면서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씨뿐 아니라 김씨 분신사건의 참고인으로 소환대상에 올라 있는 "한국대 출신 김진수(27)씨 등도 강씨와 가까운 사이인 만큼 혁노맹과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안 차원에서도 용의선에 올려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민련쪽에서는 "이씨 집을 압수수색한 지 47일이 지나 다시 연행·수사한 것은 김기설씨 분신사건과 관련한 '보복수사'와 성격이 같다"고 주장하고 "강력부가 입수한 문건을 공안부로 넘겨 국가보안법 위반 차원에서 문제삼는 것 역시 편법적인 수사방식"이라고 반발했다.

강씨변호인 출두요구 검찰

참고인 13명 내부수배

김기설씨 분신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장신욱 부장검사)는 2일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27)씨의 유서대필 혐의와 관련, 소환대상에 오른 강씨의 단국대 동창생 김진수(27)씨, 재야단체 간부 임근재(28)씨 등 13명이 계속 출두를 거부함에 따라 이들을 전국 검찰에 내부수배하는 한편 병단을 경찰에 동보했다.

검찰은 또 이날 오후 4시께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에서 이해학 목사를 면회하고 나오던 이 목사의 딸 보은(23)씨를 연행, 서울지검 강력부 송명석 검사실에서 김씨의 분신전 행적 등에 대해 밤샘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보경(20·여)씨 등 숭의여전생들의 진술과 관련, 이석태 변호사에게 참고인으로 출두해 조사에 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 숭의여전생들은 지난달 14일의 김철조 사에서 "검찰출두 전에 이 변호사로부터 김씨 필적이라고 공개했던 메모지가 공개되기 전에 전민련에서 하룻동안 보관된 사실을 진술하지 말도록 종용받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씨 변호인쪽은 "당시 이 변호사는 숭의여전생들에게 검찰이 묻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일부러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피의자와 관련한 적절한 법적 조언을 했을 뿐"이라며 "강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소환요구는 적법하고 정당한 "변호권 행사에 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한편 강씨 변호인단의 유현석·김창국 변호사는 이날 오후 5시께부터 20여분간 서초동 서울지검 청사 10층 신상규 검사실에서 강씨를 두번째 접견했다.

강씨는 접견에서 그동안 세차례 피의자 신분조사를 받았으며 혁노맹 회의록 등의 입수경위와 관련해 치안본부 수사관이 서울지검으로 와 자신으로부터 진술서 한장을 받아갔다고 말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2】 1991년 7월 5일(금요일) 한겨레 〔4판〕

사설

검찰수사 무리하고 있다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강기훈씨의 유서대필 혐의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날이 갈수록 무리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한 검찰수사가 만에 하나 틀이 될 수 없는 '폭탄'으로 이어질 경우 그것은 공권력에 대한 치유하기 어려운 불신을 낳게 되리라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번 5월사태의 절정에서 분신을 배후에서 부추기는 '반생명의 어둠의 세력'이 있음을 공언하고, 그것을 대물 유서대필과 연결시켜 두달 가까이 온 국민의 시선을 붙들어 매어온 검찰의 '가설'은 애초부터 그 공방만으로도 제아무동권의 도덕성을 먹칠하려는 정치적 기도라는 의혹을 샀어주지 못했다. 그 가설의 무리함은 대필 유의자로 지목된 강씨를 구속한 지 열흘이 넘도록 그 논리적 맥락을 입증할 단 한가지 사실도 밝혀내지 못한 데서 잘 드러나 있다고 하겠다.

그동안 검찰이 대필 증거로 내세워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만 하더라도, 전혀없는 감정실장 한 사람만의 감정에 대한 의혹조차 해명되어 있지 않고, 법원에 증거보전신청까지 해놓았다는 홍아무개씨의 증언 역시 사실상 감금상태에서 이뤄진 데다 가족의 요청을 구실로 한달이 넘도록 홍씨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무리한 수사'에 대한 우려를 오히려 일반 침해주고 있는 형편이다. 강씨를 면회온 여자친구를 강제로 끌고가 자술서를 받아내고, 한달반 전에 압수수색한 책자를 '이적 표현물'로 몰아 보안법 위반혐의로 다시 연행조사하는 따위의 검찰 자세 또한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이 수사부진의 이유로 내세우는 참고인들의 잠적이 이러한 강압수사에 대한 절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임은 검찰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다.

특히 담당변호사에 대한 출두요구는 검찰의 빗나간 자세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하겠다. 수사기관과 대등한 지위와 자격을 갖고 피고인을 도와 검찰과 함께 진실을 밝혀야 할 변호사를 조사대상으로 삼으려는 발상은 피고인과 그 조력자를 위축시키려는 치졸한 수법으로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검찰의 무리수가 스스로를 가장 우수한 인력집단으로 자부하는 검사와 직원들에게 강씨를 진범으로 단정하는 검사장의 훈시 문건을 돌려보게 하는 웃지 못할 발생을 빚기에까지 이른 것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검찰이 지금이라도 제대로 공개적인 수사를 펴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형사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 본래의 정상적인 자세를 되찾는 것만이 검찰의 명예를 덜 다치게 하는 길임을 일깨우고자 한다. 검찰이 초조해진 나머지 더 이상의 무리한 대응을 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말기를 진심으로 당부해 마지 않는다.

'91. 7. 4 한겨레

"강씨 잠안재우고 40시간 조사"

변호인단, 가혹수사 중단 촉구

김기설씨 유서대필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27)씨의 변호인인 유현석·고영구·홍성우 변호사 등 17명의 변호인단은 강씨가 몇 차례의 변호인 접견에서 "검찰에 구속된 뒤 매일 오전 불려가 자정이 넘도록 수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 29일에는 오전부터 다음날 자정까지 40시간을 계속 조사받았으며 잠이 모자라 졸면 세워놓고 조사를 한다"고 말했다고 5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강씨가 지난 2일 서초동 서울지검 청사 10층 강력부 검사실에서 담당 검사 입회 아래 가진 변호인 접견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이와 함께 강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 성명을 내고 "검찰의 수사방식은 피의자가 극도의 수면부족으로 인해 심신이 쇠폐돼 망어된 행사를 포기토록 하는 가장 혹독한 형태의 가혹 행위"라며 이런 수사방식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또 "검찰이 강씨의 변호인 중 한명을 조력행위를 문제삼아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조사에 불응하면 접견을 불허하겠다고까지 말하는 것은 제한될 수 없는 헌법상의 권리인 변호인 조력권과 접견권을 제한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전민련 간부 2명 또 연행

김기설씨 분신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장신욱 부장검사)는 5일 오전 9시께 전민련이 김씨 것이라며 제출한 수첩의 보관경위와 관련, 전민련 조직국 부장 김현수(30)씨를 동작구 노량진동 집에서 연행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 4일 밤 11시께 전민련 사회국 부장 이동진(32)씨를 경기도 시흥시 집에서 연행, 명동성당에서의 강씨 행적등에 관해 조사를 벌였다.

'91. 7. 5 한겨레

너럭바위

검찰 수사상황에 신경

○…김기설씨 유서대필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27)씨에 대한 기소예정일이 오는 13일로 다가옴에 따라 이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게 될 서울형사지법 합의부의 부장판사들은 벌써부터 자기부에 배당될지 몰라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난 5월26일 강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부터 사법부도 이 사건과 무관할 수 없음을 예감했던 판사들은 검찰의 수사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대필 여부, 공소유지 가능성 여부 등에 관해 수시로 서로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합의부의 한 부장판사는 "돌이 뇌물의유사건·수서사건 등 굵직 아픈 사건이 많았지만 이번 사건과는 비교도 안될 것"이라며 "정치적 비중도 그렇지만 유서를 대신 써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례가 없어 이 사건은 정치적·법률적으로 최대의 난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기훈씨 '대필수사' 제자리걸음 2주일째

강기훈씨 분신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유서대필 용의자로 지목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27)씨에 대한 구속 수사 2주일째를 맞았으나 수사가 최악의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강씨가 검찰에 출두한 뒤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강씨를 아침부터 자정 가조차 전혀 성명에 내지 못한 채 오는 10~12일 사이에 기소할 방침을 굳혔다.

따라서 공소유지를 가능케 하리라고 판단하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필적감정결과에 '유서대필'의 증거로서 중대혐의를 부여하려면 수집, 압수 등 전민련측에서 김씨 필로부터 수집이 5월8일 전민련에 넘어와 9일 연세대 안에 있던 대책위 총무부실의 사물함에 넣어졌고 이날에 있는 동안 최부인들이 사물함을 열어보지 못하도록 당장 감시토록 명령자 명부를 작성하기까지 세 강씨가 수집을 조작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진술을 들었다.

또 임무일지자 전민련사도 전민련 사회국에서 일해온 이동건씨로부터 첫 제이지에 적힌 3월 나머지 부분이 김씨가 작성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돼 그동안 강씨가 임무일지를 썼다고 보아온 검찰에게는 치명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특히 수집본 아니라 임무일지도 필적이 유씨와 같다는 국과수 감정결과가 나와 있는만큼 검찰은 강씨가 언제 어떻게 이들 문건을 조작해 냈을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 유서가 김씨 필적이 아니라는 수사의 대전제부

9.9 한겨레

아침부터 자정까지 신문…15명 소환조사도 헛일

강씨조작부분 입증못할땐 큰난관

남아까지 신문하고 15명에 달하는 참고인들을 소환조사했으나 출두 전의 상황에서 한발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강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내는 데 최우선의 역점을 두고 가족면회도 일체 불허하고 변호인 접견까지 2회로 제한하면서 신문했으나 '자백'은 커녕 '유서대필'의 장소·일시·동기조차 전혀 실명해 내지 못한 채 오는 10~12일 사이에 기소할 방침을 굳혔다.

따라서 공소유지를 가능케 하리라고 판단하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필적감정결과에 '유서대필'의 증거로서 중대혐의를 부여하려면 수집, 압수 등 전민련측에서 김씨 필로부터 수집이 5월8일 전민련에 넘어와 9일 연세대 안에 있던 대책위 총무부실의 사물함에 넣어졌고 이날에 있는 동안 최부인들이 사물함을 열어보지 못하도록 당장 감시토록 명령자 명부를 작성하기까지 세 강씨가 수집을 조작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진술을 들었다.

또 임무일지자 전민련사도 전민련 사회국에서 일해온 이동건씨로부터 첫 제이지에 적힌 3월 나머지 부분이 김씨가 작성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돼 그동안 강씨가 임무일지를 썼다고 보아온 검찰에게는 치명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특히 수집본 아니라 임무일지도 필적이 유씨와 같다는 국과수 감정결과가 나와 있는만큼 검찰은 강씨가 언제 어떻게 이들 문건을 조작해 냈을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 유서가 김씨 필적이 아니라는 수사의 대전제부터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검찰은 이보람씨 등 학생 3명과 이동건씨를 조사했으나 강씨 여전생들이 예보지를 정동성당에 가져가기 전에 이미 민주화 요구에 놓은 사실이 확인돼 현재 전민련이 보관중인 예보지 원본과 사본 필적이 같을 경우에도 검찰은 큰 난관에 부닥치게 될 수밖에 없다.(일밤 기자)

검찰, 임무영씨 새 용의자로

9.13 한겨레

유서대필 수사 강기훈씨도 수사 계속

전민련 전 사회부장 김기설씨 분신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강신욱 부장검사)는 김씨 '유서대필'의 새로운 용의자로 전민련 사회부장 임무영(27)씨를 지목, 수사를 펴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임씨에 대해 유서대필 혐의를 굳힐 경우 이제까지 삼은 혐의로 구속수사해온 강기훈(27)씨에 대한 수사방표가 모두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을 우려, 강씨에 대한 혐의도 포기하지 않은 채 계속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은 김씨 유서대필 혐의로 검찰이 구속해 수사를 받고 있는 강기훈씨가 이날 담당변호인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검찰이 유서대필자로 임무영씨를 지목하고 있다"고 말함에 따라 확인됐다.

이날 서초동 서울지검 청사에서 강씨를 접견한 김창국·조용환·이종걸 변호사는 강씨가 "유서의 글씨가 누구의 것인지 검찰도 알고 있다"고 말한 뒤 "검찰이 임씨를 용의자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강씨는 검찰이 제시한 김씨의 이력서와 군복무시절 친구에게 보낸 편지의 글씨를 보고 나서 유서가 김씨 필적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강씨는 또 지난 7일 임씨와 대질신문하는 자리에서 검찰이 임씨를 상대로 전민련이 김씨가 쓴 것이라며 제출한 업무일지를 임씨가 썼는지 추궁했으며 임씨는 이를 부인했다고 말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강씨가 "유서는 김씨 글씨가 아닌 것 같다"는 진술을 했다며 강씨의 진술내용을 시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유서대필에 제3의 용의자는 없다"고 말해 임씨에게 대필혐의를 두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인하기를 거부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제까지의 조사 결과 강씨가 임씨 필적을 위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문건을 조작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진술을 들었다.

또 임무일지와 전민련사도 전민련 사회국에서 일해온 이동건씨로부터 첫 제이지에 적힌 3월 나머지 부분이 김씨가 작성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돼 그동안 강씨가 임무일지를 썼다고 보아온 검찰에게는 치명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특히 수집본 아니라 임무일지도 필적이 유씨와 같다는 국과수 감정결과가 나와 있는만큼 검찰은 강씨가 언제 어떻게 이들 문건을 조작해 냈을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 유서가 김씨 필적이 아니라는 수사의 대전제부터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검찰은 이보람씨 등 학생 3명과 이동건씨를 조사했으나 강씨 여전생들이 예보지를 정동성당에 가져가기 전에 이미 민주화 요구에 놓은 사실이 확인돼 현재 전민련이 보관중인 예보지 원본과 사본 필적이 같을 경우에도 검찰은 큰 난관에 부닥치게 될 수밖에 없다.(일밤 기자)

9.9. 한겨레

'유서'참고인 전격 영장

"강기훈씨 13일이전 기소"

김기설씨 유서 대필혐의로 강기훈(27)씨를 구속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 강신욱 부장검사는 8일 "강씨가 계속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필적감정 등 증거가 충분하므로 구속 만기일인 오는 13일 이전에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14면)

강 부장검사는 지난 5월15일 강씨 집에서 압수한 강씨 소유의 80~90년 전민련 수집 필적이 유서 필적과 같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기설씨가 분신 직전 같이 있었던 전민련 사회국 부장 임무영(28)씨를 지난 6일 임씨를 방황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나 변다른 진술을 얻어내지 못하고 신병을 공안부로 넘겨 서초경찰서에 지금 임씨에 대해 집시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검찰은 강씨가 "유서가 김씨 필적이 아닌 것 같고 수집도 변조된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했으나 이 말은 자신의 '유서대필'이나 '수집조작'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말일 뿐 누군가가 유서를 대신했다는 뜻의 말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시국구속자 가족10명 농성

박용길(69·문익환 목사 부인)·변재정(57·강기훈씨 어머니)씨 등 시국 관련 구속자 가족 10여명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충신동 전민련 사무실에서 양심수 석방과 수배자에 대한 수배 해제 등을 요구하며 오늘 13일까지 시한부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농성에 들어가면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소장심수의 속각 석방 스물아홉째를 조작용도 중단 스물다섯째의 아버지 등 민가협·유가협 회원 5명에 대한 구속영장 철회 등을 촉구했다.

서사연 한갑 규탄 집회

서울대 대학원생 1백명

서울대 대학원생 1백여명은 8일 오후 1시께 교내 도서관 앞 광장에서 당국의 서울사회과학연구소(서사연) 연구원 구속과 관련, 한의원장을 갖고 "경찰과 군 기무사의 이번 조치는 과학적 성기가운 없이 제멋대로 학술활동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학문연구를 탄압하는 반지성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집회를 주최한 이 학교 대학원자치회협의회(의장 정태홍·25·정치)는 또 "교수들에 드리는 호소문"을 채택, "학문의 자율성은 교수와 학생이 함께 지켜야 할 신성한 권리"라며 교수들도 이번 사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서사연 등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유서대필' 새 용의자 수사

전민련 사회부장 검찰 "조사결과 협의회박"

9.10 한겨레

속보=전민련 전 사회부장 김기설씨 분신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강신욱 부장검사)는 '유서대필'의 또다른 용의자로 전민련 사회부장 임무영(27)씨를 지목, 수사를 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기사 14면)

검찰은 9일 "강기훈씨가 '유서 필체와 비슷해 보이는 일부 문건의 글씨가 임씨 것 같다고 진술해 지난 6일, 임씨를 연행, 유서대필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임씨를 조사한 결과 유서대필을 확정할 물증이나 행적이 나오지 않아 현재로서는 임씨를 유서대필 용의자로 보고 입건는 않다"며 오는 12일께 예정대로 장씨를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임씨의 집에서 임씨의 수첩이 나왔기 때문에 임씨가 대필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임씨에 대한 유서대필 혐의 수사를 부인하고 있으나 지난 8일 오후 연행된 임씨의 신병을 9일 서울 서초경찰서로 넘기 집시법 및 화염병으로 구속한 데 따라 검찰이 임씨를 또다른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씨는 8일 서울지검 청사에서 김창국·조용환·이종걸 변호사와 접견해 "유서는 김기설씨 것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다"며 "검찰은 그 글씨체가 누구의 것인지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임씨가 수사과정에서 전민련이 김씨가 쓴 것이라며 제출한 업무일지 가운데 일부분에 대해 자신의 글씨인 것 같으나 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임무일지에 대해서는 유서와 필적이 같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감정결과가 나와 있어 임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검찰 수사의 기초가 되는 국과수 감정의 공신력이 크게 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광고접수 (02)672-1031-3

9.9. 한겨레

'유서대필' 임무영씨 지목조사 파문

김기설씨 유서대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민련 전 총무부장 강기훈(27)씨가 자신의 필적으로 검찰이 간주하는 일부 문건을 전민련 사회국 부장 임무영(28)씨가 쓴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9일 알려져 강씨 진술의 경위 및 임씨에 대한 검찰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4~5일께 강씨에게 김씨 집에서 입수한 (정세운 씨) 91년 신년호 표지에 쓰여진 '국민연합 김기설님' 드림' 이라는 문구를 제시하자 강씨가 '국민연합'이라는 글씨가 임씨 씨가 썼는지 여부를 신문했다.

임씨는 검찰이 제시한 일부문건 대해서는 자신의 글씨인 것 같으나 한 기억은 나지 않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쓰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씨 분신 전후에 임씨 행적을 조사한 결과 특별한 의문점이 없으며 임씨 집에서 임씨의 91년도 전민련 수첩이 발견돼 임씨가 수첩을 조작했을 가능성도 적어 신병을 공안부로 넘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변호인단의 의 설명은 다르다.

변호인단의 한 관계자는 "검찰은 그동안 강씨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에 임씨에 임씨를 새로운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다하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이를 시인할 수 없는 입장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강씨의 진술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기 힘든 형편이다.

다만 공안부쪽에서는 임씨에 대한 구속결정에 공안부의 자체 판단보다 강력부쪽의 요청이 크게 작용했음을 시인했다.

강씨의 진술과 현재까지의 임씨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은 대필의 혐의점을 찾기는 커녕 그 동안 강씨가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해온 업무일지가 임씨도 임무 작성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커다란 난관에 부닥치고 만 결과를 낳았다.

임씨가 업무일지의 한부분을 작성했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여러사람의 글씨를 가지고 유서와 확인하는 감정을 내린 셈이 돼 공신력이 떨어지게 되고 검찰로서도 업무일지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커이지 유서필적이 김씨의 것이 아니라는 수사의 대전제부터 혼선을 빚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밤 기자)

수사 대전제부터 혼선빚을수도

업무일지 임씨 작성판명땐 공신력 먹칠

국과수 여러사람 글씨 동일감정 내린셈

필적인 것 같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이 글씨가 유인으로 보아 유서의 필적과 똑같다는 점을 중시, 임씨가 김씨에게 빼다준 주변서 이 쓴 글씨로 보고 강씨 유서대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간주해 왔다.

검찰은 이에 따라 강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유서도 임씨가 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지난 6일 임씨를 연행해 유서대필 혐의를 추궁했으나 임씨는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

또 전민련이 김씨가 쓴 것이라며 제출한 업무일지 중 부인해 장의 일부분도 임씨의 글씨인 것으로 보고 업무일지를 임씨가 썼는지 여부를 신문했다.

임씨는 검찰이 제시한 일부문건 대해서는 자신의 글씨인 것 같으나 한 기억은 나지 않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쓰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씨 분신 전후에 임씨 행적을 조사한 결과 특별한 의문점이 없으며 임씨 집에서 임씨의 91년도 전민련 수첩이 발견돼 임씨가 수첩을 조작했을 가능성도 적어 신병을 공안부로 넘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변호인단의 의 설명은 다르다.

변호인단의 한 관계자는 "검찰은 그동안 강씨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에 임씨에 임씨를 새로운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다하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이를 시인할 수 없는 입장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강씨의 진술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기 힘든 형편이다.

다만 공안부쪽에서는 임씨에 대한 구속결정에 공안부의 자체 판단보다 강력부쪽의 요청이 크게 작용했음을 시인했다.

강씨의 진술과 현재까지의 임씨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은 대필의 혐의점을 찾기는 커녕 그동안 강씨가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해온 업무일지가 임씨도 임무 작성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커다란 난관에 부닥치고 만 결과를 낳았다.

임씨가 업무일지의 한부분을 작성했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여러사람의 글씨를 가지고 유서와 확인하는 감정을 내린 셈이 돼 공신력이 떨어지게 되고 검찰로서도 업무일지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커이지 유서필적이 김씨의 것이 아니라는 수사의 대전제부터 혼선을 빚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밤 기자)

9.7 한겨레

"임무영씨 대필혐의 못찾아"

검찰, 일지 채감정 많기로

속보=김기설씨 분신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강신욱 부장검사)는 9일 "전민련 사회국 부장 임무영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입건을 조사했으나 확보한 혐의점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유서대필 혐의로 수사중인 강기훈씨가 '유서필체와 비슷해 보이는 일부 문건의 필체가 임씨의 것 같다고 진술해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임씨를 조사했으나 문건 전후의 임씨 행적 등에 비춰볼 때 특별한 점이 나타나지 않아 현재로서는 용의자로 보지 않고 있다"면서 예정대로 강씨를 오는 12일께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필요할 경우 앞으로도 임씨에 대해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해 임씨에 대한 계속적인 수사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검찰은 임씨의 대필혐의 여부 단언해 수집조작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는 지난 5일1회에는"필적가 광주에 있었으므로 수집을 보지 못했으며 임씨의 91년도 전민련수첩이 자신의 집에서 발견돼 수집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적어 유서대필자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임씨가 수사과정에서 전민련이 김씨가 쓴 것이라며 제출한 업무일지 가운데 일부분에 대해 자신의 글씨인 것 같으나 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임무일지에 대해서는 유서와 필적이 같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감정결과가 나와 있어 임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검찰 수사의 바탕이 돼온 국과수 감정의 공신력이 크게 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러나 "임씨의 다른 필적과 업무일지-유서와의 필적 감정은 수사에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없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中央日報 1991년7월11일 木曜日

法廷으로 가는 「유서대필」 攻防

내일 기소되는 姜基勳씨

결정적 증거없이 수사 일단락
검찰 現상태로 公訴유지 가능

송광룡씨 자살방조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송광룡씨가 12일 「기소와 유서대필 공방이 법정으로 넘어지게 됐다」는 표정으로 자신은 자살방조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이다.

"유서·강씨필적 다르다"

KNCC 아시아기독교협 감정결과 밝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산하 「김기설씨 분신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박형규 목사)는 10일 오후 서울 중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김기설씨 유서대필 수사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아시아기독교교협의회에 김기설씨의 유서 사본과 강기훈씨 자필 문서의 필적 감정을 의뢰한 결과 두 필적이 서로 다른 것으로 판명됐다는 통보를 지난주에 받았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오는 15일 열리는 기독교교협의회 인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뒤 필적감정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진상조사위는 강기훈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방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법의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없이 강씨를 기소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유린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위는 또 "우리는 강씨가 유서 대필자가 아니라는 확고한 증거를 갖고 있으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진실을 공개하고 강씨에 대한 기소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고한다"면서 "검찰이 이러한 촉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필적감정 결과를 공개하는 방법 등으로 원천권의 부도덕성에 강력히 맞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그러나 "아시아기독교교협이 이번 감정결과를 법정에서 이긴 감정결과를 법정에서 이긴 감정결과를 법정에서 이긴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7.11. 한겨레)

일보 7.13 조선 西紀 1991年 7

「필적감정」 신빙성판정 관심

法廷에 서는 「유서 대필」 공방

송광룡씨의 「유서대필」 공방 사건은 송광룡씨에 대한 검찰의 19일간에 걸친 구속수사에도 불구, 사건의 진상을 시원스레 밝혀지지 못한 채 수사가 일단락 됐음 다. 따라서 유서를 누군가 대신 썼는지 여부와 썼다면 그사람이 송광룡씨인가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에 넘겨지게 됐다.

검찰은 송광룡씨의 유서 사본과 강씨 평소 필적과 다르며, 송씨 의 자술서와 대학시절 쓴 수기 등 의 자술서 등 필적 감정을 의뢰한 결과 두 필적이 서로 다른 것으로 판명됐다는 통보를 지난주에 받았다.

검찰은 송씨의 유서 대필 혐의로 ▲유서문장이 송씨의 어조와 평소 필적과 다르며, 송씨 과 자신의 발언을 유서에 의 자술서 대학시절 쓴 기수기 등 필적감정 결과 다르다는 화학노트와 유서가 함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송광룡씨가 유서를 대필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송씨가 유서를 대필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송씨가 유서를 쓰던 언제 어디 서 써왔는가 하는 이 사건 의 기본적 요소들을 밝혀 내지 못했다. 검찰은 단지 「송씨가 언제 어디서 유서를 써왔는지는 모 의 필적감정의 신빙성이 판명되면 수사결 과는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으로 말했다.

검찰은 또 송씨가 유서 를 써왔는가 하는 「동기」와 「구체적인 경우」도 밝혀지지 못했다.

검찰은 수사결 과를 발표하면서 「송씨가 언제 어디서 유서를 써왔는지는 모 의 필적감정의 신빙성이 판명되면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으로 말했다.

검찰은 또 송씨가 유서를 써왔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것이 필적감정의 결과 밝혀지면 유서를 대신 써준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동기」와 「구체적인 경우」도 밝혀지지 못했다.

검찰은 수사결 과를 발표하면서 「송씨가 언제 어디서 유서를 써왔는지는 모 의 필적감정의 신빙성이 판명되면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으로 말했다.

검찰은 또 송씨가 유서 를 써왔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것이 필적감정의 결과 밝혀지면 유서를 대신 써준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기-구체적 경위등 기소 기본적 요소 미비
상황 변화없는한 直告 관계없이 논란남을듯

검찰은 송씨가 유서를 대필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유서문장이 송씨의 어조와 평소 필적과 다르며, 송씨 과 자신의 발언을 유서에 의 자술서 대학시절 쓴 기수기 등 필적감정 결과 다르다는 화학노트와 유서가 함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송광룡씨가 유서를 대필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송씨의 유서 대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송씨가 유서를 쓰던 언제 어디 서 써왔는가 하는 이 사건 의 기본적 요소들을 밝혀 내지 못했다. 검찰은 단지 「송씨가 언제 어디서 유서를 써왔는지는 모 의 필적감정의 신빙성이 판명되면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으로 말했다.

검찰은 또 송씨가 유서 를 써왔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것이 필적감정의 결과 밝혀지면 유서를 대신 써준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동기」와 「구체적인 경우」도 밝혀지지 못했다.

검찰은 수사결 과를 발표하면서 「송씨가 언제 어디서 유서를 써왔는지는 모 의 필적감정의 신빙성이 판명되면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으로 말했다.

검찰은 또 송씨가 유서 를 써왔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것이 필적감정의 결과 밝혀지면 유서를 대신 써준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살방조」 起訴 검찰

姜씨 유서2장을 작성하며 사흘 잠복시켜 모든 문제를 유서대필로 몰아간다고 알았다

「지난 4월30일~5월8일 의 일주일간」 서울 이하 시한은 밝힘으로 송씨의 구속수사 19일만에 송씨에 게 자살방조죄를 적용법원에 구속기소했다.

송광룡부장검사는 이날 종합 수사결과발표자료를 씨는 사람한 송씨가 분신 자살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알고 송씨명의의 유서2장을 작성하며 사흘 잠복시켜 모든 문제를 유서대필로 몰아간다고 알 려부는 12일 전민련 송후 부장 송광룡씨(27)에 대한

1991年 7月13日 土曜日 [21] 世界日報

「아주 작게, 천천히 말하라」

보훈처 초청 강연회서 강조

보훈처 초청 강연회서 강조

보훈처 초청 강연회서 강조

##

제976호 (1988년10월8일수요일(가)공인가) 한 겨 레 신 문

'진실' 규명 법정공방 파란 예고

'자살 방조' 혐의 강기훈씨 기소 이후

지난 5월20일 전민련 전 사회부장 김기설씨가 분신자살한 이후 이를 수사해온 검찰이 김씨의 유서대필 주범으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를 지목해 12일 강씨를 자살방조죄로 구속기소함으로써 사건발생 두달 남짓만에 이 사건은 사법부의 1차관단에 넘겨지게 됐다.

검찰은 강씨가 분신한 지 10일 만인 5월18일 "김씨 자살에 배후가 있으며 이는 유서가 강씨에 의해 대필된 사실로 입증된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어 26일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강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6월 26일 자진출두한 강씨외에 참고인 10여명을 대상으로 강씨의 유죄입증을 위해 총력수사를 벌여왔다.

이 사건은 검찰의 '유서대필' 발표 이후 지금까지 50일 동안 전체 검찰의 공신력과 제아온동안에의 양심이 걸린 도덕성의 바윗으로 비화, 양측은 수사발표와 이에 대한 반박을 통해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일자 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등의 표현으로 범죄 날짜와 장소·목적 등을 적시하지 못한 채 공소장을 작성, 발표해 반박한 내용에 의한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사를 맡은 서울지검 강력부 강신욱 부장검사는 "무죄를 받기 위해 기소하는 검사는 없다"고 말했으나 "수사가 미진한 것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실토, 검찰 스스로도 이번 기소에 자신이 없음을 보여줬다.

법률적 판단에서도 검찰은 김기설씨가 몸에 불을 붙이고 투신하여 사망에 이르게 해 그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사실로, 김기설씨의 자살결심과 결행을 유서대필로 도왔다는 것을 들고 있으나 법조계에서는 자살방조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매우 엄격해 죄가 성립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서대필이 자살방조죄를 성립시킨다는 근거로 형법 제252조(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등) 의 1~2항을 들고 있으나 이 조항도 자살의 교사와 방조에 도움이 될 구체적 물품(취발유·시나린 및 흉기 또는 극약)을 적시하는 등 규정이 엄격해 단순 유서대필이 자살방조로 인정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또 검찰이 법정에서 제시할 수 가자료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데 비해 전민련측에서는 그동안 추가로 확보한 김기설씨의 수헌·속초·원주 등지 행적을 밝힐 증인이 법정에 나와 검찰 주장의 모순점을 반박할 것으로 보여 검찰이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강씨가 법정에서 자살방조죄에 대해 유·무죄를 선고받기보다 유서를 대필했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받아들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무팀 지에는 김기설씨와에도 이 단체의 이동전씨 필적과 일부열씨의 필적도 함께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또 숭희여전생들이 제시한 김씨 메모도 검찰은 강씨가 사전에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숭희여전생들은 이 메모를 제출하기 전에 이미 사본을 만들어 현재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약 이 사본이 김씨의 필적과 일치하고 있으나, 검찰은 이미 김씨의 필적과 대조한 결과 '동일하다'는 감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부분도 홍씨가 지난 10일, 강씨와의 대질에서 강씨가 수첩에 김기설씨 이름을 적어주었다고 처음에 밝힌 진술을 "누가 한 것인지 기억이 안난다"고 다시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미 홍씨 진술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상태라 번복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으나 홍씨가 검찰 진술과정의 심리상 어부와 그동안 한 내용을 대부분 시인했으나 지난 5월10일 강씨와 만났을 때 강씨가 자신의 수첩에 김씨 전화번호를 적어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써 줬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번복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씨의 '혁명적 노동자 계급투쟁 동맹'(혁노맹) 관여 부분에 대해 공안부쪽에서 아직 단체 가입 혐의에 대해 조사를 거친 뒤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숨지기 전날인 5월7일 밤 11시30분께 홍씨가 강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씨에게 무슨일이 생기면 김씨 아버지에게 연락해달라"면서 김씨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을 때 강씨가 "미안하다"는 말을 세차례 되풀이했던 사실이 홍씨 진술을 통해 확인돼 강씨가 김씨 분신전에 이미 분신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지난 5월12일 종로5가 카페에서 강씨가 단국대 동문 김진수(28)씨와 홍씨 등 3명과 만났을 때 김씨가 "내가 박태전·최덕수씨 등의 분신사건 때 장례를 최간접으로 지원했는데, 이번 사건에서 홍씨를 동장시킨 것은 최대의 실수다"라고 말하자 강씨가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라고 말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총력수사 불구 공소장 구체성 결여

재야 무죄입증 새증거 제시할듯

검찰은 유서대필 사실이 인정만 된다면 비록 자살방조죄가 성립되지 않고 강씨에게 무죄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검찰로서는 재야와의 이번 싸움에서 얻을 것은 얻어낸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강씨를 기소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과 김씨의 여자친구 홍아무개(25)씨의 진술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더 명백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채 수사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불리한 사실을 밝혀내고 말았다.

즉, 검찰은 강씨가 대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일부일지를 변조했다는 판정이 나올 경우 검찰은 법정에서 수사 전체에 대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변호인단은 이 부분을 강씨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 수첩조작 부분도 이용해 미세한 불일치만 찾아냈을 뿐 수사과정에서 그 구체적인 '조작' 과정 등을 밝히는 데 한계를도 나타가지 못했다.

검찰은 홍아무개씨의 진술을 통해 강씨에게 불리한 부분, 즉 강씨가 김씨 분신사실을 안 시각과 홍씨와의 전화내용 중 강씨가 "미안하다"고 한 점, 그리고 '대책회의'에서의 강씨 발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부분도 홍씨가 지난 10일, 강씨와의 대질에서 강씨가 수첩에 김기설씨 이름을 적어주었다고 처음에 밝힌 진술을 "누가 한 것인지 기억이 안난다"고 다시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미 홍씨 진술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상태라 번복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으나 홍씨가 검찰 진술과정의 심리상 어부와 그동안 한 내용을 대부분 시인했으나 지난 5월10일 강씨와 만났을 때 강씨가 자신의 수첩에 김씨 전화번호를 적어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써 줬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번복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씨의 '혁명적 노동자 계급투쟁 동맹'(혁노맹) 관여 부분에 대해 공안부쪽에서 아직 단체 가입 혐의에 대해 조사를 거친 뒤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숨지기 전날인 5월7일 밤 11시30분께 홍씨가 강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씨에게 무슨일이 생기면 김씨 아버지에게 연락해달라"면서 김씨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을 때 강씨가 "미안하다"는 말을 세차례 되풀이했던 사실이 홍씨 진술을 통해 확인돼 강씨가 김씨 분신전에 이미 분신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지난 5월12일 종로5가 카페에서 강씨가 단국대 동문 김진수(28)씨와 홍씨 등 3명과 만났을 때 김씨가 "내가 박태전·최덕수씨 등의 분신사건 때 장례를 최간접으로 지원했는데, 이번 사건에서 홍씨를 동장시킨 것은 최대의 실수다"라고 말하자 강씨가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라고 말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투시경

검찰이 김기설씨 유서대필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지난 5월18일부터 강기훈씨가 12일 기소되기까지 꼬박 두달 동안 강씨 가족 등 주변인들은 물론이고 전민련 등 재야인사들에게도 엄청난 고통의 나날이었다.

이런 고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그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다.

강씨가 유서를 대필했다면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고, 감내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강씨가 대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가.

강씨의 어머니 전태경씨는 유서대필 보도가 나간 뒤 위로받은 친구로부터 "세전에는 연좌제 때문에 자식이 '빨갱이'면 가족들도 불이익을 당했는데 이제는 연좌제가 없어져 그래도 다행이냐"며 유서대필을 믿는 듯한 말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고 한다. 친구의 위로가 진심이었음을 알기에 더욱 더 그렇게 심계 자식이 유서를 대신 썼다고 믿어버리는 세상이 밉살맞다는 것이다.

전민련 정책기획실장 황인성(38)씨는 "여러차례 강욕에 도나 들면서도 인간의 존엄을 위해 순응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왔는데, 유서를 대신 써주는 정승만도 못한 짐만이, 그것도 은둔민이 그랬다는 말이 통하는 것을 보고 참혹한 심경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씨와 명동성당에서 한달이 넘도록 함께 지냈던 전민련 인권위원장 서준식(43)씨는 "전력이 있는 것에서 자라나 생모에 대한 기억은 물론 계모에 대한 정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 누나나 자형들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이 아버지, 어머니 만을 대상으로 "아버지, 어머니 어버이 날입니다… 모든 문제는 전민련 선배이형, 서준식 인권위원장님에게 위임하세요…"이라는 내용의 또 한장의 유서를 쓰도록 했다는 것을 들고 있으나 법조계에서는 "수사가 미진한 것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실토, 검찰 스스로도 이번 기소에 자신이 없음을 보여줬다.

법률적 판단에서도 검찰은 김기설씨가 몸에 불을 붙이고 투신하여 사망에 이르게 해 그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사실로, 김기설씨의 자살결심과 결행을 유서대필로 도왔다는 것을 들고 있으나 법조계에서는 자살방조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매우 엄격해 죄가 성립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서대필이 자살방조죄를 성립시킨다는 근거로 형법 제252조(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등) 의 1~2항을 들고 있으나 이 조항도 자살의 교사와 방조에 도움이 될 구체적 물품(취발유·시나린 및 흉기 또는 극약)을 적시하는 등 규정이 엄격해 단순 유서대필이 자살방조로 인정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또 검찰이 법정에서 제시할 수 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유서대필 사실이 인정만 된다면 비록 자살방조죄가 성립되지 않고 강씨에게 무죄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검찰로서는 재야와의 이번 싸움에서 얻을 것은 얻어낸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강씨를 기소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과 김씨의 여자친구 홍아무개(25)씨의 진술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더 명백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채 수사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불리한 사실을 밝혀내고 말았다.

즉, 검찰은 강씨가 대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일부일지를 변조했다는 판정이 나올 경우 검찰은 법정에서 수사 전체에 대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변호인단은 이 부분을 강씨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 수첩조작 부분도 이용해 미세한 불일치만 찾아냈을 뿐 수사과정에서 그 구체적인 '조작' 과정 등을 밝히는 데 한계를도 나타가지 못했다.

검찰은 홍아무개씨의 진술을 통해 강씨에게 불리한 부분, 즉 강씨가 김씨 분신사실을 안 시각과 홍씨와의 전화내용 중 강씨가 "미안하다"고 한 점, 그리고 '대책회의'에서의 강씨 발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부분도 홍씨가 지난 10일, 강씨와의 대질에서 강씨가 수첩에 김기설씨 이름을 적어주었다고 처음에 밝힌 진술을 "누가 한 것인지 기억이 안난다"고 다시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미 홍씨 진술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상태라 번복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으나 홍씨가 검찰 진술과정의 심리상 어부와 그동안 한 내용을 대부분 시인했으나 지난 5월10일 강씨와 만났을 때 강씨가 자신의 수첩에 김씨 전화번호를 적어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써 줬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번복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씨의 '혁명적 노동자 계급투쟁 동맹'(혁노맹) 관여 부분에 대해 공안부쪽에서 아직 단체 가입 혐의에 대해 조사를 거친 뒤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숨지기 전날인 5월7일 밤 11시30분께 홍씨가 강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씨에게 무슨일이 생기면 김씨 아버지에게 연락해달라"면서 김씨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을 때 강씨가 "미안하다"는 말을 세차례 되풀이했던 사실이 홍씨 진술을 통해 확인돼 강씨가 김씨 분신전에 이미 분신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지난 5월12일 종로5가 카페에서 강씨가 단국대 동문 김진수(28)씨와 홍씨 등 3명과 만났을 때 김씨가 "내가 박태전·최덕수씨 등의 분신사건 때 장례를 최간접으로 지원했는데, 이번 사건에서 홍씨를 동장시킨 것은 최대의 실수다"라고 말하자 강씨가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라고 말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강기훈씨 공소장 요지

피고인 강기훈은 전민련에서 함께 일하던 사회부장 김기설이 지난 4월20일 강경대군 치사사건 발생으로 반정부투쟁 분위기가 고조되자 민중을 자극하여 투쟁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분신자살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자살결의와 결행을 용이하게 할 의도로 지난 4월27일께부터 같은해 5월8일까지의 일자불상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한국신학대학 리포트 용지에 김기설 명의의 유서 2매를 작성했다. 강기훈은 김기설이 평만중학교등학교 1년 중퇴의 학력으로 지식과 문장력이 부족함에도 자신의 지식과 문장력을 이용, "단순하게 민혁은동의 도화선이 되고자 함이 아닙니다…"이라는 내용의 유서 1매를 작성했다. 강기훈은 또 김기설이 6살에 생모가 사망한 뒤 주로 누나 손에서 자라나 생모에 대한 기억은 물론 계모에 대한 정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 누나나 자형들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이 아버지, 어머니 만을 대상으로 "아버지, 어머니 어버이 날입니다… 모든 문제는 전민련 선배이형, 서준식 인권위원장님에게 위임하세요…"이라는 내용의 또 한장의 유서를 써주었다. 강기훈은 이를 통해 김기설씨 분신자살을 조국과 민중을 위한 행위로 미화하고 장례비의 등 모든 문제를 전민련 대표위에서 책임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김기설씨 분신자살 결심과 결행을 용이하게 도와 그해 5월8일 오전 8시7분께 김기설이 서강대 본관 5층 옥상에서 몸에 불을 붙이고 분신해 사망케 이르게 함으로써 김기설씨 자살을 방조했다.

심증이나마 확고한지…

7/13 한겨레

강기훈씨 오늘 기소

김기설씨 분신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강신욱 부장검사)는 김씨 유서대필 혐의로 수사해온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27)씨를 12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91. 7. 12. 한겨레

강씨 수사진전없이 기소

7.13. 한겨레

자살방조혐의 '대필'일시·장소 못밝혀

김기설씨 분신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강력부(강신욱 부장검사)는 김씨 유서대필 용의자로 지목해온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27)씨를 12일 자살방조 혐의로 법원에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강씨가 유서를 대필한 일시·장소 등을 전혀 밝혀내지 못한 채 공소장을 작성했으며, 수첩·일부일지 등의 조작 여부에 대해서도 지난달 24일 강씨가 출두하기 전의 수사상황에서 진전을 보지 못한 채 기소함으로써 법원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3·13면>

공소장에 따르면, 강씨는 김씨가 강경대씨 타살사건 이후 분신자살할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고 "지난 4월27일께부터 5월8일까지 사이의 일자 불상"께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김씨 명의의 유서 2장을 만들어 유서내용에서 분신자살을 조국과 민중을 위한 행위로 미화하고, 대책위에서 장례 등 사후문제를 책임진다고 암시하는 방법으로 김씨의 자살 결심과 결행을 도와줌으로써 자살을 방조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지난 10일 김씨의 여자 친구 홍 아무개(23)씨를 강씨와 2시간 가량 대질시켰으며 이 자리에서 홍씨는 이전에 진술한 내용을 대부분 시인했으나 지난 5월10일 강씨와 만났을 때 강씨가 자신의 수첩에 김씨 전화번호를 적어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써 줬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번복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씨의 '혁명적 노동자 계급투쟁 동맹'(혁노맹) 관여 부분에 대해 공안부쪽에서 아직 단체 가입 혐의에 대해 조사를 거친 뒤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숨지기 전날인 5월7일 밤 11시30분께 홍씨가 강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씨에게 무슨일이 생기면 김씨 아버지에게 연락해달라"면서 김씨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을 때 강씨가 "미안하다"는 말을 세차례 되풀이했던 사실이 홍씨 진술을 통해 확인돼 강씨가 김씨 분신전에 이미 분신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지난 5월12일 종로5가 카페에서 강씨가 단국대 동문 김진수(28)씨와 홍씨 등 3명과 만났을 때 김씨가 "내가 박태전·최덕수씨 등의 분신사건 때 장례를 최간접으로 지원했는데, 이번 사건에서 홍씨를 동장시킨 것은 최대의 실수다"라고 말하자 강씨가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라고 말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유서대필」…재판부에 거는 기대

取材日記

<사회부 기자>

姜基勳씨 起訴

검찰 自殺방조 혐의로

<중앙>

【2】 1991년 7월 14일〔일요일〕 한겨레 〔4판〕

사설

검찰은 도덕과 논리에서 패배했다

'언제, 어디서'도 없는 '자살방조' 공소장

'6하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기자가 글을 쓰거나 방송을 할 때, 검찰이나 경찰이 피의자 진술조서를 작성하거나 검사가 공소장을 쓸 때 6하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철칙이고 상식이다. 이 원칙에 어긋나는 기사는 신문이나 방송에 실리지 못하고, 이 원칙을 무시한 공소장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어 재판부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공소장이 나타났다. 그것도 미미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검찰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이 명예와 도덕성을 걸고 두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유서대필' 공방전에서 6하원칙에 전혀 맞지 않는 공소장이 나온 것이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가운데 그 공소장에는 '언제'와 '어디서'가 빠져 있다. 6하원칙이 아니라 '4하원칙'에 따라 공소장을 작성한 것인가?

검찰이 '언제, 어디서'라고 주장하는 대목이 공소장에 들어 있기는 하다. "지난 4월27일께부터 5월8일까지 사이의 일자 불상"과 "서울 이하 불상지"가 바로 그것이다. 그 열이틀간의 어느 때인지가 분명하지 않고 서울의 어느 곳인지도 밝혀지지 않은 이 표현은 6하원칙의 '언제'와 '어디서'가 될 수 없다.

명지대생 강경대씨를 '백골단'이 타살한 사건으로 불이 붙은 노태우 정권 퇴진운동이 강도를 높여가던 5월3일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가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분신하고 뛰어내려 숨지자 그 대학의 총장인 박홍 신부는 "죽음을 선동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공언했고, 시인 김지하씨는 분신하는 젊은이들을 "경박하다"고 공격하면서 "시체까지 탈취하는 운동권"의 도덕적 파산을 선고하는 글을 썼다. 유신독재와 전두환 정권 시절에 저항적 지식인으로 알려졌던 이 문필가가 민족민주운동권을 은근히 비난하거나 노골적으로 저주하는 '반생명적·반운동적'인 말의 테러를 가한 직후 검찰은 김기설씨 분신의 '배후'를 가려내는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5월18일 "유서의 필적이 본인의 것과 다르다"고 발표했다. 그 뒤 검찰이 유서대필의 혐의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였다. 강경대씨 타살에 항의하는 수십만 군중의 집회와 시위가 잇따라 열리는 속에서 검찰은 강기훈씨의 유서대필 혐의를 빌미로 전민련으로 상징되는 재야운동의 부도덕성을 끈질기게 공격해댔다.

잘 알려져 있듯이 우리나라의 재야운동은 다른 어느 나라의 비슷한 운동보다도 도덕성과 순결을 생명으로 여겨왔다. 이것은 박정희 정권 이래 조직과 대중적 지지기반을 강화해온 재야운동의 생명력이었다. 그런데 강경대씨의 죽음을 '기화'로 전민련의 청년간부가 동료의 유서를 대신 써주면서 자살을 부추겼다는 쪽으로 검찰이 여론재판을 하고, 대부분의 신문과 방송이 전민련이나 강기훈씨가 제시하는 반박자료보다는 검찰의 발표를 대서특필하니 재야운동은 낭떠러지 앞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설령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필했다 하더라도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 검찰은 기소도 하기 전부터 끊임없이 '피의사실 공표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의 수사를 맡은 서울지검의 전재기 검사장은 6월 중순께 전체 부장검사회의에서 "강씨가 유서를 대필한 확실한 범인이며, 명동성당에서 농성하는 동안 각종 증거자료를 조작했고, 거짓말을 해 천주교 신부와 순진한 기독교인들을 속이고 있는 교활한 인물"이라고 비난했다. '회람용'으로 서울지검 직원들에게 돌려진 '훈시문'에는 "검찰은 국가 최고 권력집행기관의 자격으로 이런 '악마'를 응징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말도 들어 있었다.

전 검사장이 말한 그 '악마'는 지금 쇠창살 안에 갇힌 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강기훈씨를 보면서 서양 중세의 '마녀재판'을 연상한다. 국가와 권력을 공유하던 교회가 구체적 증거도 없이 '심증'만으로 '마녀'를 화형하던 시대의 그 독단과 비논리가 지금 우리사회에 재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검찰은 강기훈씨의 '자살방조'재판에서 심증만으로는 공소를 유지할 수 없다. 그의 자백도 물증도 없이 어떻게 유죄판결을 기대하는가?

결정적 증거가 없는 이 단계에서 검찰은 도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패배했음이 분명하다. 전민련은 공개된 재판에서 공소장의 허구를 드러낼 증거와 참고인들을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들은 그 재판을 주의깊게 지켜볼 것이다.

"강기훈씨 필적 '유서'와 다르다"

2/19

KNCC 감정서 공개 무죄 증거물로 곧 제출

"김기설씨 글, 유서필체와 같다" 확인

검찰선 "큰 의미 없어"주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한교협) 인권위원회 산하 "김기설씨 분신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박형규 목사)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씨의 유서와 검찰에 의해 대필 유죄자로 지목된 강기훈(27)씨의 자필문건에 대해 아시아기독교교회협의회에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 두 필적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필적감정서를 공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아시아기독교교회협의회 국제위원회 클레멘츠(50) 총무와 필적감정을 담당한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JNCC) 인권위 아야타(28) 총무가 자리를 함께했다. 진상조사위는 "앞으로 이 감정서 원본을 변호인단을 통해 제판부에 강씨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진상조사위는 지난 5월30일 홍콩에서 열린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WCC) 회의에 참가한 한교협 인권위 김명주 사무국장을 통해 김씨의 유서 사본과 강씨의 자필편지 등 모두 9종류의 문건에 대한 필적감정을 아시아기독교교회협의회에 요청한 바 있다. 한교협은 아시아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한교협의 요청을 받아들여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를 통해 일본감정인협회 회장이며 일본 필적감정회 최고권위자로 알려진 오니시 요시오에게 필적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교협이 필적감정을 의뢰한 문건은 △김씨 유서 사본(2통) △김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전민련 수첩 사본(4장) △강기훈씨가 87년 아산교도소 수감시절 집으로 보낸 편지 원본(2통) △강씨가 지난 5월21일 진상조사위 입회 아래 작성한 자필문건 △김씨가 숨지기 전 학생들에게 써준 메모 원본 △김씨가 89년10월 성남 '터사랑청년학우회' 창립대회 때 방명록에 쓴 필적 △김씨가 89년 작성한 상황일지 원본 △김씨가 91년 쓴 전지부부 원본 △김씨가 90년 11월 작성한 이력서 등 모두 9종류이다.

진상조사위가 "김씨의(또는 김씨의 것으로 보이는) 필적 6종과 유서 필적이 동일한지 여부와 강기훈씨 필적과의 상이성 여부를 판정해달라"고 요청한 '강정주문'에 대해 감정인인 오니시 요시오는 감정결론을 통해 "김씨가 쓴 각종의 필적과 필법의 특색이 감정자료인 유서와 전적으로 공통되며, 강기훈씨의 필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

이 감정서에 따르면 김씨의 유서와 전민련 수첩 등 7종류의 문건의 경우 종신에서 '직곡선적' 필치로 수직과 '좌하' 방향으로 경사하는 두가지 필법이 혼용되는 데 반해, 강씨의 자필문건에서는 종신의 경우 '직선적' 필치를 주로 사용하면서 수직과 우하쪽으로 경사되는 필법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감정서는 또 김씨의 필적과는 달리 강씨의 필적에서는 "종필에 힘을 가하지 않고 써내리는 필법과 획선에서 기필시에 힘을 가해 써지는 필법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감정서는 특히 △각 문자의 제1획 △'ㅌ' 'ㅇ' 'ㅐ'의 필법 △모음 'ㅏ' 'ㅓ'의 획선 필법 등에서 유서 필적과 강기훈씨의 필적과는 다른 점이 뚜렷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번 필적감정을 담당한 오니오 요시오는 지난 40년부터 79년까지 도쿄 국립박물관의 문부기관(고문서나 미술품 감정전문가)을 지낸 일본 최고의 필적감정 권위자라고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 아타타 총무는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필적에 관한 논란은 수필이 존재한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이미 끝났다고 본다"면서 "특히 획이 동이라는 순서 등 한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의 감정결과는 공신력이 떨어지는 만큼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7월 19일 한겨레그림판 박재동